

BIFAN | **B.I.G**  
BIFAN INDUSTRY  
GATHERING  
[www.bifan.kr](http://www.bifan.kr)

MADE IN ASIA [메이드인아시아]



**B.I.G**  
BIFAN INDUSTRY  
GATHERING  
2019.6.30 - 7.4  
23 한국영화산업  
부흥을 위한  
판교영화산업  
페스티벌  
2019.6.27-29



MADE  
IN ASIA  
메이드인아시아

# CONTENTS

Made in  asia

## 009 한국

2018 한국 영화시장 산업동향

## 021 중국

2018 중국 영화산업 발전 총론

## 013 KOREA

Korean Film Market  
Trend in 2018

## 025 CHINA

China Film Market  
Trend in 2018

## 037 홍콩

2018 홍콩 영화산업 동향

## 049 대만

2018 대만 영화시장 동향

## 061 일본

2018 일본 영화시장 동향

## 041 HONG KONG

Hong Kong Film Market  
Trend in 2018

## 053 TAIWAN

Taiwan Film Market  
Trend in 2018

## 065 JAPAN

Japan Film Market  
Trend in 2018

## 073 태국

2018 태국 영화산업 동향

## 085 필리핀

2018 필리핀 영화산업 동향

## 097 베트남

2018 베트남 영화산업 동향

## 077 THAILAND

Thailand Film Market  
Trend in 2018

## 089 PHILIPPINES

Philippines Film Market  
Trend in 2018

## 101 VIETNAM

Vietnam Film Market  
Trend in 2018

## 109 인도네시아

2018 인도네시아 영화산업 동향

## 119 말레이시아

2018 말레이시아 영화산업 동향

## 129 인도

2018 인도 영화산업 개괄

## 111 INDONESIA

Indonesia Film Market  
Trend in 2018

## 121 MALAYSIA

Malaysia Film Market  
Trend in 2018

## 133 INDIA

India Film Market  
Trend in 2018

한국  
KOREA

Made in  sia



# Figures of Top 10 Films in Korea Box Office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www.kobis.or.kr](http://www.kobis.or.kr)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Local)	Gross(USD)	관객수	제작사	Production	배급사	Distribution
신과 함께-인과 연	Along with the Gods: The Last 49 Days	김용화	KIM Yonghwa	한국	Korea	판타지	Fantasy	KRW 102,666,146,909	USD 93,240,000	12,274,996	리얼라이즈픽처스(주)	Realies Pictures, Inc.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Lotte shopping Lotte Entertainment Co.,Ltd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Avengers: Infinity War	안소니 루소, 조 루소	Anthony RUSSO, Joe RUSSO	미국	USA	액션	Action	KRW 99,926,399,769	USD 90,750,000	11,212,710	마블 스튜디오	Marvel Studios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보헤미안 랍소디	Bohemian Rhapsody	브라이언 싱어	Brian SINGER	미국	USA	드라마	Drama	KRW 80,010,521,345	USD 72,670,000	9,224,591	이십세기폭스	20th Century Fox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20th Century Fox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Mission: Impossible - Fallout	크리스토퍼 맥쿼리	Christopher McQUARRIE	미국	USA	액션	Action	KRW 55,888,375,112	USD 50,760,000	6,584,915	스카이댄스 미디어	Skydance Media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Lotte shopping Lotte Entertainment Co.,Ltd
신과 함께-죄와 벌	Along With the Gods: The Two Worlds	김용화	KIM Yonghwa	한국	Korea	판타지	Fantasy	KRW 47,355,583,705	USD 43,010,000	5,872,007	리얼라이즈픽처스(주)	Realies Pictures, Inc.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Lotte shopping Lotte Entertainment Co.,Ltd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	Jurassic World: Fallen Kingdom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Juan Antonio BAYONA	미국	USA	액션	Action	KRW 49,770,711,037	USD 45,200,000	5,661,231	앰블린 엔터테인먼트	Amblin Entertainment	UIP	United International Pictures
앤티맨과 와스프	Ant-Man and the Wasp	페이튼 리드	Peyton REED	미국	USA	액션	Action	KRW 47,468,053,685	USD 43,110,000	5,448,134	마블 스튜디오	Marvel Studios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안사성	THE GREAT BATTLE	김광식	KIM Gwangsik	한국	Korea	액션	Action	KRW 46,335,334,026	USD 42,080,000	5,440,186	(주)영화사수작	Soojak Films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Next Entertainment World Co., Ltd.
블랙 팬서	Black Panther	라이언 쿨러	Ryan COOGLER	미국	USA	액션	Action	KRW 45,885,123,957	USD 41,670,000	5,399,227	마블 스튜디오	Marvel Studios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완벽한 타인	Intimate Strangers	이재규	LEE Jaegyu	한국	Korea	드라마	Drama	KRW 44,350,807,074	USD 40,280,000	5,293,435	(주)필름몬스터	Film Monster Co., Ltd.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Lotte shopping Lotte Entertainment Co.,Ltd

# Figures of Top 10 Films in Domestic Box Office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Local)	Gross(USD)	관객수	제작사	Production	배급사	Distribution
신과 함께-인과 연	Along with the Gods: The Last 49 Days	김용화	KIM Yonghwa	한국	Korea	판타지	Fantasy	KRW 102,666,146,909	USD 93,240,000	12,274,996	리얼라이즈픽처스(주)	Realies Pictures, Inc.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Lotte shopping Lotte Entertainment Co.,Ltd
신과 함께-죄와 벌	Along With the Gods: The Two Worlds	김용화	KIM Yonghwa	한국	Korea	판타지	Fantasy	KRW 47,355,583,705	USD 43,010,000	5,872,007	마블 스튜디오	Realies Pictures, Inc.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안사성	THE GREAT BATTLE	김광식	KIM Gwangsik	한국	Korea	액션	Action	KRW 46,335,334,026	USD 42,080,000	5,440,186	이십세기폭스	Soojak Films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20th Century Fox
완벽한 타인	Intimate Strangers	이재규	LEE Jaegyu	한국	Korea	드라마	Drama	KRW 44,350,807,074	USD 40,280,000	5,293,435	스카이댄스 미디어	Film Monster Co., Ltd.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Lotte shopping Lotte Entertainment Co.,Ltd
1987	1987: When the Day Comes	장준환	JANG Junhwan	한국	Korea	드라마	Drama	KRW 42,915,772,108	USD 38,970,000	5,290,310	리얼라이즈픽처스(주)	Woojung Films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Lotte shopping Lotte Entertainment Co.,Ltd
독전	Believer	이혜영	LEE Haeyeong	한국	Korea	범죄	Gangster	KRW 44,331,321,713	USD 40,260,000	5,201,555	앰블린 엔터테인먼트	Yong Film Inc.	UIP	United International Pictures
공작	The Spy Gone North	윤종빈	YOON Jongbin	한국	Korea	드라마	Drama	KRW 42,788,851,176	USD 38,860,000	4,974,520	마블 스튜디오	MOONLIGHT Film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암수살인	Dark Figure of Crime	김태균	KIM Taegyun	한국	Korea	범죄	Gangster	KRW 32,995,138,548	USD 29,960,000	3,789,321	(주)영화사수작	295 Films co.,Ltd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Next Entertainment World Co., Ltd.
국가부도의 날	Default	최국희	CHOI Gukhui	한국	Korea	드라마	Drama	KRW 30,846,056,137	USD 28,010,000	3,747,974	마블 스튜디오	ZIP CINEMA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그것만이 내 세상	Keys to the Heart	최성현	CHOI Seonghyeon	한국	Korea	코미디	Comedy	KRW 27,450,805,382	USD 24,930,000	3,419,339	(주)필름몬스터	JK Film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Lotte shopping Lotte Entertainment Co.,Ltd

# 2018 한국 영화시장 산업동향

1. 개관

2018년 한국 영화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2.1%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GDP 성장률이 2.7%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극장시장은 2013년 이후 2억 1천만 명 대를 유지하며 큰 변화 없는 저성장세를 지속했고, 디지털 온라인 시장은 전년 대비 8.6% 성장하며 약진했다. 반면 해외매출은 한국을 둘러싼 대외 정치요인으로 타격을 입어 전년대비 32.3% 급감했다.

이렇듯 시장 규모 확장은 몇 년째 정체된 상황에서 한국영화 평균 제작비는 상승하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이에 기여한 고예산 영화들의 흥행부진으로 상업영화 수익성이 6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개봉편수는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이지만 관객 수는 절반 수준으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독립·예술영화 진영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표 1> 2009-2018년 한국 영화산업 매출 (단위: 억 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극장 매출		10,941	11,684	12,358	14,551	15,513	16,641	17,154	17,432		17,566	18,140
비중		91.3%	88.1%	85.5%	85.0%	82.3%	82.1%	81.2%	76.7%		75.5%	76.3%
부가시장		888	1,109	1,709	2,158	2,676	2,971	3,349	4,125		4,362	4,739
비중		7.4%	8.4%	11.8%	12.6%	14.2%	14.7%	15.8%	18.1%		18.7%	19.9%
해 외	억 원	155	462	382	414	651	664	628	완성작	509	460	458
									서비스	664	883	427
									소계	1,173	1,343	885
	만 달러*	1,412	4,222	3,487	3,782	5,946	6,308	5,550	완성작	4,389	4,073	4,160
									서비스	5,720	7,806	3,876
									소계	10,109	11,879	8,036
비중		1.3%	3.5%	2.6%	2.4%	3.5%	3.3%	3.0%	5.2%		5.8%	3.7%
합계 Total		11,984	13,255	14,449	17,123	18,840	20,276	21,131	22,730		23,271	23,764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1USD = 1,101.47원(2018년 평균 매매기준율 적용) 기준.

<표 2> 2009-2018년 한국 영화산업 주요 통계지표 (단위: 억 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관객 수(만 명)	총 관객 수	15,696	14,918	15,972	19,489	21,335	21,506	21,729	21,702	21,987	21,639
	한국영화	7,641	6,940	8,287	11,461	12,729	10,770	11,293	11,655	11,390	11,015
	점유율	48.7%	46.5%	51.9%	58.8%	59.7%	50.1%	52.0%	53.7%	51.8%	50.9%
	외국영화	8,055	7,978	7,685	8,028	8,606	10,736	10,436	10,047	10,597	10,624
	점유율	51.3%	53.5%	48.1%	41.2%	40.3%	49.9%	48.0%	46.3%	48.2%	49.1%
개봉편수(편)*	한국영화(실질개봉)	118	140	150	175	183	217	232	302(167)	376(164)	454(194)
	외국영화(실질개봉)	243	286	289	456	722	878	944	1,218(411)	1,245(456)	1,192(534)
전국 스크린 수 (개)		2,055	2,003	1,974	2,081	2,184	2,281	2,424	2,575	2,766	2,937
전국 극장 수 (개)		305	301	292	314	333	356	388	417	452	483
1인당 관람횟수 (회)		3.15	2.92	3.15	3.83	4.17	4.19	4.22	4.20	4.25	4.18
한국영화 수익률**		-13.1%	-11.0%	-16.5%	15.9%	16.8%	7.6%	4.0%	17.6%	18%	-17.3% (추정)

\* 2016년부터 연간 총 상영횟수 40회차 이상 작품(적어도 1개 상영관에서 일주일간 전일 상영되는 경우 상영회차가 약 40회)을 실질개봉으로 보아 실질 개봉편수를 별도 집계함.

\*\* 2016년까지는 수익성 분석 대상작을 ‘총제작비 10억 원 이상으로 제작되었거나 전국 최대 100개 상영관 이상에서 개봉 상영된 영화’로 기준 삼았으며, 2017년부터는 최근 제작비 상승추이를 반영하여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으로 제작된 영화’로 기준 삼았음. 2018년은 추정치임.

2. 극장흥행

2018년 전체 극장 관객 수는 2억 1639만 명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한 반면 전체 극장 매출액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1조 8,14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평균 관람요금 상승으로 인해 전체 극장 매출액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영화 관객 수는 1억 1,015만 명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하였고, 한국영화 매출액은 9,1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상승하였다. 한국영화 관객 수 점유율은 50.9%를 기록해 2011년 이후 8년 연속 50% 대를 아슬아슬하게 유지하며 외국영화의 우위를 점했다. 인구 1인당 연평균 관람횟수는 4.18회로 전년과 비교해 0.07회 감소했으나,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관람횟수를 유지하고 있어 극장 시장은 앞으로도 큰 변화 없이 저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8년 전체 배급사 관객 점유율에서는 롯데가 17.1%의 관객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롯데는 <신과 함께-인과 연>(1,227만 명),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658만 명), <완벽한 타인>(529만 명)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둬 2017년 2위에서 2018년 1위로 올라섰다. 반면 2003년 이후 2017년까지 15년째 부동의 1위를 지켜왔던 CJ ENM은 13.9%의 관객 점유율을 기록하며 3위로 내려앉았다. 2017년 4위였던 디즈니는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1,121만 명), <앤티맨과 와스프>(545만 명), <블랙 팬서>(540만 명) 등 3편의 마블 영화 흥행에 힘입어 13.9%의 관객 점유율로 2위를 기록하며 약진했다.

개별 영화로 보면 2018년 최고 흥행작은 8월 개봉한 시리즈 영화 <신과 함께-인과 연>(1,227만 명)으로 전작 <신과 함께-죄와 벌>에 이어 천만 관객을 동원하여 쌍천만 흥행을 기록했고, 2위는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1,121만 명)가 차지했다. 한국영화로는 <완벽한 타인>, <독전>, <암수살인> 등이 좋은 성적을 거뒀으며, 외국영화로는 <보헤미안 랩소디>,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앤티맨과 와스프> 등이 있었다.

<표 3> 2009-2018년 한국영화, 외국영화 관객 수, 점유율, 1인당 관람횟수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극장 매출(억 원)	전체	10,941	11,684	12,358	14,551	15,513	16,641	17,154	17,432	17,566	18,140
	증감률	11.7%	6.8%	5.8%	17.8%	6.6%	7.3%	3.1%	1.6%	0.8%	3.3%
	한국영화	5,318	5,125	6,137	8,361	9,099	8,206	8,796	9,279	9,027	9,128
	증감률	28.9%	-3.6%	19.8%	36.2%	8.8%	-9.8%	7.2%	5.5%	-2.7%	1.1%
	외국영화	5,623	6,559	6,221	6,190	6,414	8,435	8,358	8,153	8,539	9,012
	증감률	-0.8%	16.7%	-5.1%	-0.5%	3.6%	31.5%	-0.9%	-2.5%	4.7%	5.5%
관객 수(만 명)	총 관객 수	15,696	14,918	15,972	19,489	21,335	21,506	21,729	21,702	21,987	21,639
	증감률	4.1%	-5.0%	7.1%	22.0%	9.5%	0.8%	1.0%	-0.1%	1.3%	-1.6%
	한국영화	7,641	6,940	8,287	11,461	12,729	10,770	11,293	11,655	11,390	11,015
	증감률	20.2%	-9.2%	19.4%	38.3%	11.1%	-15.4%	4.9%	3.2%	-2.3%	-3.3%
	점유율	48.7%	46.5%	51.9%	58.8%	59.7%	50.1%	52.0%	53.7%	51.8%	50.9%
	외국영화	8,055	7,978	7,685	8,028	8,606	10,736	10,436	10,047	10,597	10,624
	증감률	-7.7%	-1.0%	-3.7%	4.5%	7.2%	24.8%	-2.8%	-3.7%	5.5%	0.3%
	점유율	51.3%	53.5%	48.1%	41.2%	40.3%	49.9%	48.0%	46.3%	48.2%	49.1%
1인당 관람횟수(회)		3.15	2.9	3.15	3.83	4.17	4.19	4.22	4.20	4.25	4.18

3. 시장구조

한국 영화시장의 대기업 중심 구조는 별다른 변화 없이 공고하다. 극장시장을 보면 전국 극장 수는 483개, 스크린 수는 2,937개인데 이 중 극장제인 상위 3사의 극장 수가 376개, 스크린 수는 2,692개로 전체 스크린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 기준으로 보면 상위 3사의 비중이 96.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배급시장은 그나마 할리우드 직배사들의 참여로 상위 기업들의 점유율이 높지 않고 기업별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1위 배급사의 매출 비중이

16.9%, 상위 3사의 비중이 44.3%로 나타난다. 단 이를 한국영화 배급시장으로 국한해서 볼 경우 상위 3개사 점유율 합계가 69.5%로 나타나며 이는 전년도 63.8%로 다소 완화되었던 집중도가 다시 이전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을 보여준다. 한편 소수 영화에 스크린이 몰리는 상영 배정의 편중(스크린 독과점)은 더욱 심화되었다. 일별 상영점유율 기준 1위 영화가 평균 33%, 2위가 20.7%, 3위가 13.8%를 차지함으로써 1~3위 합이 67.5%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2014-2018년 전체영화 상영시장 시장집중도(상위기업집중률 & HHI지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CJ CGV(CR1)	50.7%	50.6%	49.7%	48.7%	49.3%
롯데시네마	28.6%	29.9%	30.1%	30.0%	28.9%
메가박스	17.4%	16.6%	17.3%	18.3%	18.7%
소계(CR3)	96.7%	97.1%	97.1%	97.0%	96.9%
HHI	3,695	3,732	3,680	3,610	3,610

<표 5> 2014-2018년 전체영화 배급시장 시장집중도(상위기업집중률 & HHI지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매출액 1위 배급사 점유율(CR1)	24.6%	22.5%	17.0%	15.0%	16.9%
매출액 상위 3개 배급사 점유율 합계(CR3)	48.2%	51.4%	43.1%	36.9%	44.3%
매출액 상위 5개 배급사 점유율 합계(CR5)	68.5%	69.8%	63.3%	55.4%	62.8%
매출액 상위 10개 배급사 점유율 합계(CR10)	89.5%	94.2%	91.2%	87.9%	92.0%
HHI	1,221	1,268	1,054	864	1,030

4. 제작비 및 수익률

2018년 한국영화(조사 대상작 186편 대상)의 편당 평균 순제작비는 20억 원, 마케팅비는 6.8억 원, 따라서 총제작비는 26.8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제작비 구간별로 보면 2017년에 비해 100억 원 이상의 작품편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60~70억 원 사이인 작품 수가 줄었다. 이를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인 상업영화, 즉 순제작비 상위 40편에 한정해서 보면 평균 순제작비가 79.0억 원, 마케팅비가 24.4억 원으로 총제작비는 103.4억 원이다.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제작비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한국 상업영화 중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 영화 40편의 추정 수익률은 -17.3%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도 수익률 18%에서 대폭 하락한 수치이며, 2012년 이후 흑자 기조를 유지해오던 한국영화 수익률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이다.

수익률 폭락의 주요 원인은 순제작비 100억 원 이상인 고예산 영화들의 흥행 부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순제작비 규모별 평균 추정수익률을 보면, 100억 원~150억 원 구간 영화의 수익률이 -62.7%로 평균 수익률을 크게 하회하고 있고, 전년과 비교해도 폭락한 수치이다. 반면, 30억 원~50억 원 구간에 속하는 중저예산 영화의 수익률은 전년대비 하락하였으나, 2018년 전체 평균 수익률 하락을 완화시키며 존재감을 입증했다. 2018년 중저예산 영화들이 보여준 저력은 기대 밖의 흥행 성적뿐만이 아니라 장르적 다양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영화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며, 재무적 투자자들에게는 중급영화 제작 활성화를 향한 매력적인 이정표로 각인 되었을 것이다.

<표 6> 2014-2018년 한국 '상업영화' 평균 제작비

구분	편수	순제작비(a)		순제작비(a)		총제작비 (a + b)
		평균 순제작비(억 원)	비중(%)	평균 순제작비(억 원)	비중(%)	평균 순제작비(억 원)
2014	67	35.5	69.8	15.4	30.2	50.9
2015	70	37.4	69.9	16.1	30.1	53.5
2016	78	33.3	71.3	13.4	28.7	46.7
2017	37	73.3	74.9	24.5	25.1	97.8
2018(간이조사)	40	79.0	76.4	24.4	23.6	103.4

<표 7> 2017-2018년 한국 '상업영화' 순제작비 구간별 (추정)수익률

구분	2017년				2018년(추정치)			
	편수	BEP 심화편수	평균 순제작비	평균 수익률	편수	BEP 심화편수	평균 순제작비	평균 수익률
150억 이상	3	1	182.1억	30.7%	4	1	185.7억	4.6%
100억 이상 ~ 150억 미만	5	4	124.1억	52.9%	5	0	126.3억	-62.7%
80억 이상 ~ 100억 미만	3	1	86.1억	23.8%	7	1	86.3억	-33.5%
50억 이상 ~ 80억 미만	11	4	59.3억	-14.9%	12	6	60.6억	-1.1%
30억 이상 ~ 50억 미만	15	5	42.2억	10.3%	12	5	38.1억	1.6%
전체	37	15	73.3억	18.0%	40	13	79.0억	-17.3%

\* 2017년은 실집계금액이며, 2018년은 추정치임.

2018년 한국 영화산업의 동향을 통해 살펴본 현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극장 중심의 기존 영화시장 질서가 일정한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콘텐츠/플랫폼 융합 시대에 메타 매체로서의 영화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으로 보인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정책연구원  
본 글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2019년 2월 발표한 「2018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보고서를 요약한 것으로 보고서 전문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 Korea Film Market Trend in 2018

1. Overview

In 2018, the size of the Korea movie market grew 2.1 % compared with the previous year.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GDP growth rate was 2.7% in the same period, actually it did not make any progress. The theater market has remained steady at 210 million viewers since 2013 and the digital online market grew 8.6% than the previous year. Meanwhile, overseas sales plummeted 32.3% than the previous year due to external political factors surrounding Korea.

As the market expansion has been stagnant for several years, the average production cost of Korean films has risen and the polarization has worsened. As a result of the lack of popularity of high budget movies, the profitability of commercial films registered negative growth in 6 years. The number of Korean independent and artistic films has been on a similar level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but the number of audiences has fallen by half, so the situation of the independent and artistic film scene has become worse.

Korea film market sales 2009-2018

Market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Theater		10,941	11,684	12,358	14,551	15,513	16,641	17,154	17,432		17,566	18,140
percentage		91.3%	88.1%	85.5%	85.0%	82.3%	82.1%	81.2%	76.7%		75.5%	76.3%
Addirional Market		888	1,109	1,709	2,158	2,676	2,971	3,349	4,125		4,362	4,739
percentage		7.4%	8.4%	11.8%	12.6%	14.2%	14.7%	15.8%	18.1%		18.7%	19.9%
Overseas	KRW	155	462	382	414	651	664	628	Theater Release Rights	509	460	458
									Technical services exports	664	883	427
									Total	1,173	1,343	885
	USD*	1,412	4,222	3,487	3,782	5,946	6,308	5,550	Theater Release Rights	4,389	4,073	4,160
									Technical services exports	5,720	7,806	3,876
									Total	10,109	11,879	8,036
percentage		1.3%	3.5%	2.6%	2.4%	3.5%	3.3%	3.0%	5.2%		5.8%	3.7%
Total		11,984	13,255	14,449	17,123	18,840	20,276	21,131	22,730		23,271	23,764
percentage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Unit: 1billion KRW / 10,000 USD with the exchange rate of 1 USD = 1,101.47 KRW (market average rate of 2018)

Key statistics of Korea film market 2009-2018

Year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Audience number (Unit: 10,000)	Total number	15,696	14,918	15,972	19,489	21,335	21,506	21,729	21,702	21,987	21,639
	Korean number	7,641	6,940	8,287	11,461	12,729	10,770	11,293	11,655	11,390	11,015
	Share	48.7%	46.5%	51.9%	58.8%	59.7%	50.1%	52.0%	53.7%	51.8%	50.9%
	Foreign number	8,055	7,978	7,685	8,028	8,606	10,736	10,436	10,047	10,597	10,624
	Share	51.3%	53.5%	48.1%	41.2%	40.3%	49.9%	48.0%	46.3%	48.2%	49.1%
Number of movies released*	Korean movies (actual release)	118	140	150	175	183	217	232	302(167)	376(164)	454(194)
	Foreign movies (actual release)	243	286	289	456	722	878	944	1,218(411)	1,245(456)	1,192(534)
Number of screens nationwide		2,055	2,003	1,974	2,081	2,184	2,281	2,424	2,575	2,766	2,937
Number of theaters nationwide		305	301	292	314	333	356	388	417	452	483
Number of visits to movie theaters		3.15	2.92	3.15	3.83	4.17	4.19	4.22	4.20	4.25	4.18
Earning rate of Korean movies**		-13.1%	-11.0%	-16.5%	15.9%	16.8%	7.6%	4.0%	17.6%	18%	-17.3% (estimated)

\* Since 2016, films that had more than 40 showings a year (If a film is showing all day at least one venue, it totals up to 40 showings) is considered as actual opening of the screening and the number of actual screenings has been separately counted.  
\*\* Until 2016, the profitability analysis was based on 'films with total production cost of over 1 billion KRW or screened at more than 100 venues in Korea', and from 2017, reflecting the recent rise in production costs, it is based on 'films with net production cost of over 3 billion KRW.'  
Year 2018 is an estimated figure.

2. Theater Box Office

In 2018, the total number of audiences in theaters was 216.39 million, decreased 1.6% from the previous year, while overall theater sales increased 3.3% than the previous year and made a record high 1.814 trillion KRW. It is estimated that the overall theater sales rose due to the raise in the average ticket price in 2018. The number of Korean movie audience decreased by 3.3% from the previous year to 110.15 million, and Korean movie sales increased by 1.1% to 912.8 billion KRW. Korean movie audience share was 50.9%, barely maintaining a 50% success rate for the eighth consecutive year since 2011, and held the lead over foreign films. The annual average number of viewings per person was 4.18 times, 0.07 times decreased than the previous year, however it still maintains the world's highest number of viewings. This shows that the theater market will remain to grow slowly without any major change.

Meanwhile, in 2018, Lotte occupied the top spot with 17.1% of the audience share in the overall distributors. Lotte achieved great results with Along with the Gods: The Last 49 Days(12.27 million

people), *Mission: Impossible - Fallout*(6.58 million people), *Intimate Strangers*(5.29 million people) and moved from second place in 2017 to first place in 2018. On the other hand, CJ ENM, which maintained its top spot for 15 years from 2003 to 2017, recorded 13.9% in audience share and came down to third place. Disney, which was fourth place in 2017, supported by the success of three Marvel movies including *Avengers: Infinity War*(11.21 million people), *Ant-Man and the Wasp*(5.45 million people), *Black Panther*(5.40 million people) and was placed second with 13.9% audience share. As for the individual movies, the best-selling movie in 2018 was the series movie *Along with the Gods: The Last 49 Days*(12.27 million people) which was released in August. Following its previous film *Along With the Gods: The Two Worlds*, the film drew more than ten million viewers totaling 20 million with both films. Second place goes to *Avengers: Infinity War*(11.21 million people). Among Korean films *Intimate Strangers*, *Believer*, *Dark Figure of Crime* achieved great results, and for foreign films hits include *Bohemian Rhapsody*, *Mission: Impossible - Fallout*, *Ant-Man and the Wasp*.



Audience numbers for Korean movies and foreign movies, market shares, annual movie theater attendance 2009-2018

Year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Sales of movie theaters (one hundred million KRW)	Total	10,941	11,684	12,358	14,551	15,513	16,641	17,154	17,432	17,566	18,140
	Change rate	11.7%	6.8%	5.8%	17.8%	6.6%	7.3%	3.1%	1.6%	0.8%	3.3%
	Korean movies	5,318	5,125	6,137	8,361	9,099	8,206	8,796	9,279	9,027	9,128
	Change rate	28.9%	-3.6%	19.8%	36.2%	8.8%	-9.8%	7.2%	5.5%	-2.7%	1.1%
	Foreign movies	5,623	6,559	6,221	6,190	6,414	8,435	8,358	8,153	8,539	9,012
	Change rate	-0.8%	16.7%	-5.1%	-0.5%	3.6%	31.5%	-0.9%	-2.5%	4.7%	5.5%
Audience number (Unit: 10,000)	Total number of audience	15,696	14,918	15,972	19,489	21,335	21,506	21,729	21,702	21,987	21,639
	Change rate	4.1%	-5.0%	7.1%	22.0%	9.5%	0.8%	1.0%	-0.1%	1.3%	-1.6%
	Korean movies	7,641	6,940	8,287	11,461	12,729	10,770	11,293	11,655	11,390	11,015
	Change rate	20.2%	-9.2%	19.4%	38.3%	11.1%	-15.4%	4.9%	3.2%	-2.3%	-3.3%
	Audience share	48.7%	46.5%	51.9%	58.8%	59.7%	50.1%	52.0%	53.7%	51.8%	50.9%
	Foreign movies	8,055	7,978	7,685	8,028	8,606	10,736	10,436	10,047	10,597	10,624
	Change rate	-7.7%	-1.0%	-3.7%	4.5%	7.2%	24.8%	-2.8%	-3.7%	5.5%	0.3%
	Audience share	51.3%	53.5%	48.1%	41.2%	40.3%	49.9%	48.0%	46.3%	48.2%	49.1%
Movie theater attendance (number of times)		3.15	2.9	3.15	3.83	4.17	4.19	4.22	4.20	4.25	4.18

3. Market Structure

The conglomerate-oriented structure in the Korean movie market is steady without any change. In the theater market, there are 483 theaters and 2,937 screens nationwide. Among them, the top three theaters have 376 theaters and 2,692 screens, accounting for 92% of the total screens. In terms of revenue, the top 3 companies account for 96.9% of total sales.

In the distribution market, the top company share is not that high due to direct distribution from Hollywood. It is rather distributed between companies. The top-ranked distributor accounted for 16.9% of sales and the top three companies accounted for 44.3%. However, when the market is limited to the Korean film distribution market, the total of the top three companies accounts for 69.5%. This indicates that the market penetrance which was slightly eased to 63.8% last year has returned to its previous level.

Concentration rate of movie screening market 2009-2018

(Concentration rate and HHI of top-tier companies)

Movie Theaters	2014	2015	2016	2017	2018
CJ CGV(CR1)	50.7%	50.6%	49.7%	48.7%	49.3%
Lotte Cinema	28.6%	29.9%	30.1%	30.0%	28.9%
Megabox	17.4%	16.6%	17.3%	18.3%	18.7%
Sum of top three chains(CR3)	96.7%	97.1%	97.1%	97.0%	96.9%
HHI	3,695	3,732	3,680	3,610	3,610

Concentration rate of movie distribution market 2014-2018

(Concentration rate and HHI of top-tier companies)

Category	2014	2015	2016	2017	2018
Market share of the top distributor in terms of sales figures(CR1)	24.6%	22.5%	17.0%	15.0%	16.9%
Aggregate market share of top three distributors in terms of sales figures(CR3)	48.2%	51.4%	43.1%	36.9%	44.3%
Aggregate market share of top five distributors in terms of sales figures(CR5)	68.5%	69.8%	63.3%	55.4%	62.8%
Aggregate market share of top ten distributors in terms of sales figures(CR10)	89.5%	94.2%	91.2%	87.9%	92.0%
HHI	1,221	1,268	1,054	864	1,030

On the other hand, the concentration of screenings of certain films (screen monopoly and oligopoly) has been further intensified. According to daily screening share, movies ranked at 33%, 20.7%, and 13.8% respectively. The total of the top three movies accounted for 67.5%.

4. Production Cost and Profitability

In 2018, the average net production cost of Korean films (for the 186 films surveyed) was 2 billion KRW, marketing expenditure was 680 million KRW, bringing the total production cost of 2.68 billion KRW. According to each section of the total production cost, the number of projects that cost over 10 billion KRW has increased noticeably than in 2017 and the number of projects that cost between 6~7 billion has decreased.

Commercial films with more than 3 billion KRW in net production cost, in other words limited to the top 40 films, the average net production cost is 7.9 billion KRW, marketing cost is 2.44 billion KRW, bringing the total production cost of 10.34 billion won. This indicates that the production cost has increased overall compared with the previous year.

The main reason for the slump in profitability i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poor performance of high budget films with net production costs of over 10 billion KRW. According to the average estimated profitability by net production cost, the profitability of movies with production cost of 10~15 billion KRW is -62.7% fell far below the average profitability, plummeted compared with the previous year. Meanwhile, the profitability of mid to low budget movies with production cost of 3~5 billion KRW has declined from the previous year but have eased the decline in overall average profitability in 2018 and proved their presence.

In 2018, the mid to low budget movies proved their potential not only in unexpected box office results but also in genre diversity. This has great implications for the movie industry and imprinted as an attractive milestone for financial investors in reviving B-rated film production.

Average production cost of Korean commercial movies 2014-2018

Category	Number of movies	Net production cost(a)		Marketing cost(P&A)(b)		Total production cost(a + b)
		Average net production cost(억 원)	Proportion(%)	Average net production cost(억 원)	Proportion(%)	Average total production cost(억 원)
2014	67	35.5	69.8	15.4	30.2	50.9
2015	70	37.4	69.9	16.1	30.1	53.5
2016	78	33.3	71.3	13.4	28.7	46.7
2017	37	73.3	74.9	24.5	25.1	97.8
2018(Estimated figure)	40	79.0	76.4	24.4	23.6	103.4

※ Until 2016, it was based on ‘films with total production cost of over 1 billion KRW or screened at more than 100 venues in Korea’, and from 2017, reflecting the recent rise in production costs, it is based on ‘films with net production cost of over 3 billion KRW.’  
※ The data up to 2017 is calculated as the total net amount collected in the <Korean Movie Profitability Analysis> for each year. 2018 is based on data from simplified surveys.

(Estimated figure) Profit rate of Korean commercial movies by net production cost 2017-2018

Revenue (in KRW)	2017				2018(Tentative figure)			
	Number of movies	Above BEP	Average net production cost	Average earning rate	Number of movies	Above BEP	Average net production cost	Average earning rate
15 billion and over	3	1	18.21 billion	30.7%	4	1	18.57 billion	4.6%
10 billion ~ 15 billion	5	4	12.41 billion	52.9%	5	0	12.63 billion	-62.7%
8 billion ~ 10 billion	3	1	8.61 billion	23.8%	7	1	8.63 billion	-33.5%
5 billion ~ 8 billion	11	4	5.93 billion	-14.9%	12	6	6.06 billion	-1.1%
3 billion ~ 5 billion만	15	5	4.22 billion	10.3%	12	5	3.81 billion	1.6%
Total	37	15	7.33 billion	18.0%	40	13	7.90 billion	-17.3%

\* 2017 is based on actual figures, 2018 is estimated figures.



Made in  asia

중국  
CHINA

# Figures of Top 10 Films in China Box Office

CBO중국표방 www.cbooo.cn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Local)	Gross(USD)	제작사 Production	배급사 Distribution
오퍼레이션 레드 씨 红海行动	Operation Red Sea	임초현 林超贤	Dante LAM	중국/홍콩	China Hong Kong	액션	Action	CNY 3,650,780,000	USD 552,360,000	Xingmeng Gongcheng Media (Shanghai) Co.,Ltd.	Horgos Bona Culture Media Co.,Ltd.
당인가탐안2 唐人街探案2	Detective Chinatown 2	진사성 陈思诚	CHEN Sicheng	중국	China	코미디	Comedy	CNY 3,397,690,000	USD 514,070,000	Wanda Media Co., Ltd.	Wuzhou Film Distribution Co., Ltd. Wuzhou Film Distribution
나는 약신이 아니다 我不是藥神	Dying To Survive	원무예 文牧野	WEN Muye	중국	China	코미디	Comedy	CNY 3,099,960,000	USD 469,020,000	Beijing Bad Monkey Culture Industry Development Co., Ltd.	Beijing Jingxi Culture & Tourism Co., Ltd.
서홍시수부 西虹市首富	Hello Mr. Billionaire	염비 闫非, 팡대마 彭大魔	YAN Fei, PENG Damo	중국	China	코미디	Comedy	CNY 2,547,570,000	USD 385,440,000	Xihong City Film and Television Culture (Tianjin) Co., Ltd.	Shanghai Alibaba Pictures Co., Ltd.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Avengers: Infinity War	안소니 루소, 조 루소	Anthony RUSSO, Joe RUSSO	미국	USA	액션	Action	CNY 2,390,530,000	USD 361,680,000	Marvel Studios	China Film Group Corporation China Film Group Corporation
몬스터 헌트2: 요괴사냥단 捉妖记2	Monster Hunt 2	라맨 허 许诚毅	Raman HUI	중국/홍콩	China Hong Kong	판타지	Fantasy	CNY 2,237,080,000	USD 338,470,000	Guanxing Entertainment Co., Ltd.	Tianjin Maoyan Weiyang Media Co., Ltd.
베놈	Venom	루벤 플레셔	Ruben FLEISCHER	미국	USA	액션	Action	CNY 1,870,130,000	USD 282,950,000	Columbia Pictures	China Film Co., Ltd.
아쿠아맨	AQUAMAN	제임스 완	James WAN	미국	USA	액션	Action	CNY 1,852,180,000	USD 280,230,000	Warner Bros. Pictures	China Film Group Corporation China Film Group Corporation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	Jurassic World: Fallen Kingdom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Juan Antonio BAYONA	미국	USA	액션	Action	CNY 1,695,880,000	USD 256,580,000	Amblin Entertainment	China Film Group Corporation China Film Group Corporation
전임3: 재견전임 前任3：再见前任	The Ex-File 3: Return of the Exes	전우생 田羽生	TIAN Yusheng	중국	China	코미디	Comedy	CNY 1,646,670,000	USD 249,140,000	Huayi Brothers Film Co., Ltd.	Huaying Tianxia (Tianjin) Film Distribution Co., Ltd.

# Figures of Top 10 Films in Domestic Box Office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Local)	Gross(USD)	제작사 Production	배급사 Distribution
오퍼레이션 레드 씨 红海行动	Operation Red Sea	임초현 林超贤	Dante LAM	중국/홍콩	China Hong Kong	액션	Action	CNY 3,650,780,000	USD 552,360,000	Xingmeng Gongcheng Media (Shanghai) Co.,Ltd.	Horgos Bona Culture Media Co.,Ltd.
당인가탐안2 唐人街探案2	Detective Chinatown 2	진사성 陈思诚	CHEN Sichen	중국	China	코미디	Comedy	CNY 3,397,690,000	USD 514,070,000	Wanda Media Co., Ltd.	Wuzhou Film Distribution Co., Ltd. Wuzhou Film Distribution
나는 약신이 아니다 我不是藥神	Dying To Survive	원무예 文牧野	WEN Muye	중국	China	코미디	Comedy	CNY 3,099,960,000	USD 469,020,000	Beijing Bad Monkey Culture Industry Development Co., Ltd.	Beijing Jingxi Culture & Tourism Co., Ltd.
서홍시수부 西虹市首富	Hello Mr. Billionaire	염비 闫非, 팡대마 彭大魔	YAN Fei, PENG Damo	중국	China	코미디	Comedy	CNY 2,547,570,000	USD 385,440,000	Xihong City Film and Television Culture (Tianjin) Co., Ltd.	Shanghai Alibaba Pictures Co., Ltd.
몬스터 헌트2: 요괴사냥단 捉妖记2	Monster Hunt 2	라맨 허 许诚毅	Raman HUI	중국/홍콩	China Hong Kong	판타지	Fantasy	CNY 2,237,080,000	USD 338,470,000	Guanxing Entertainment Co., Ltd.	Tianjin Maoyan Weiyang Media Co., Ltd.
전임3: 재견전임 前任3：再见前任	The Ex-File 3: Return of the Exes	전우생 田羽生	TIAN Yusheng	중국	China	코미디	Comedy	CNY 1,646,670,000	USD 249,140,000	Huayi Brothers Film Co., Ltd.	Huaying Tianxia (Tianjin) Film Distribution Co., Ltd.
먼 훔날 우리 后来的我们	Us and Them	유약영 刘若英	Rene LIU	중국	China	드라마	Drama	CNY 1,361,520,000	USD 205,990,000	Shanghai Shigu Film Co., Ltd.	Tianjin Maoyan Weiyang Media Co., Ltd.
아일랜드 一出好戏	The Island	황보 黄渤	HUANG Bo	중국	China	코미디	Comedy	CNY 1,355,050,000	USD 205,010,000	Shanghai Hanna Entetainment Culture Media Co.,Ltd	Tianjin Maoyan Weiyang Media Co., Ltd.
무쌍 無雙	Project Gutenberg	장문강 庄文强, 맥조휘 麦兆辉	Felix CHONG, Alan MAK	중국/홍콩	China Hong Kong	범죄	Gangster	CNY 1,273,760,000	USD 192,710,000	Baixing Film Co.,Ltd	Shanghai Bona Media Co., Ltd.
초시공동거 超时空同居	How Long Will I Love U	소륜 苏伦	SU Lun	중국	China	멜로/로맨스	Romance	CNY 899,880,000	USD 136,150,000	Beijing Joy Leader Culture Communication	Beijing Enlight Pictures Co.,Ltd



# 2018 중국 영화산업 발전 총론

중국 영화시장은 2018년 마의 600억 위안 선을 돌파, 2017년 동기대비 8.65% 성장하여 총 607억 위안의 흥행수입을거두었다. 최근 중국영화 흥행수입 증가폭은 점차 커지고 있는데, 흥행수입 성장률은 2012년 30.18%에서 2015년 48.69%까지 급성장했지만, 2016년에는 3.0%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다시 2016년 동기대비 23.08% 성장했다.

2018년 중국의 영화 상영횟수는 전년 동기대비 17.24% 증가한 1억 1,100만 회였고, 관객 수는 17억 1,800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87%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2년부터 줄곧 30%가 넘는 관객 증가율을 유지하였으나, 이는 2016년 8.62%로 급락한 후 2017년 18.51%로 증가했다.

2018년도 중국에서 상영된 영화는 총 521편으로 2017년의 566편보다 약간 적다. 중국의 영화 상영 편수는 2016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2018년도 역시 전년도와 비등한 생산 수준을 유지했다. 2018년에 상영된 521편의 영화 중, 중국 국산영화(이하 '중국영화')는 400편으로 전체 흥행수입의 60.16%, 수입영화는 121편으로 전체 흥행수입의 39.53%를 차지했다. 중국영화의 편당 평균 흥행수입은 8,757만 4,600천 위안, 수입영화의 편당 평균 흥행수입은 1억 8,900만 위안이다.

2018년도 평균 일일 흥행수입은 1억 6,629만 위안이다. 최고 일일 흥행수입은 2018년 2월 16일의 12억 7,700만 위안, 최저 일일 흥행수입은 2018년 11월 7일의 3,061만 1,600위안이다.

2018년 흥행성적이 가장 좋은 달은 100억 위안을 돌파한 2월이었는데, 이는 춘절과 밸런타인 시즌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월 흥행수입이 50억 위안을 넘어선 달은 2월, 3월, 7월, 8월이다.

2018년 개봉되어 흥행수입 1억 위안을 넘어선 영화는 모두 86편이며, 그 중 중국영화는 47편, 수입영화는 39편이었다. 2018년 흥행수입이 1억~5억 위안 사이인 영화는 53편, 5억~10억 위안인 영화는 16편, 10억~15억 위안인 영화는 7편이었으며, 15억 위안 이상의 수입을 거둔 영화는 모두 10편이다.

**2018년 상영된 영화의 장르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로맨스 59편, 흥행수입 24억 위안.**

**애니메이션 64편, 흥행수입 38.6억 위안**

**액션영화 46편, 흥행수입 149.7억 위안**

**다큐멘터리 15편, 흥행수입 5.3억 위안**

**스릴러 27편, 흥행수입 3.3억 위안**

**드라마 169편, 흥행수입 75.6억 위안**

**SF 26편, 흥행수입 115.1억 위안**

**판타지 18편, 흥행수입 42.8억 위안**

**코미디 90편, 흥행수입 124.5억 위안.**

중국영화 흥행수입 상위 20위 작품 중, 흥행 성적이 가장 좋은 장르는 93.6억 위안의 수입을 올린 코미디 영화이다. 2위는 78억 위안의 액션 영화, 3위는 46.5억 위안을 기록한 드라마이다.

2018년 분장제 수입영화는 총 39편, 누적 흥행수입은 198.8억 위안이었으며, 이 중 판타지 영화가 6편, 애니메이션 6편, 액션 5편, SF 12편, 드라마가 2편이었다.

2018년 10개의 시즌 동안 거둔 흥행수입은 전체의 52.16%인 316.6억 위안이다. 여름방학, 춘절, 연말연시 시즌 이외의 다른 시즌은 주로 명절・연휴로, 보통 1일에서 3일 동안 이어진다. 2018년 흥행수입이 가장 높았던 시즌은 춘절 연휴인데, 2018년도 춘절의 흥행수입은 2017년보다 15.76% 늘어났다. 2018년 중국 배급사의 흥행성적을 살펴보면, 1위는 화샤영화배급사(華夏電影發行有限公司)이며, 2위는 타오파오파오(淘票票) 배급사, 3위는 차이나필름그룹(中影集團) 배급사이다. 차이나필름그룹과 화샤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수입영화를 배급할 수 있는 국영기업인데, 분장제 영화 흥행성적이 좋아서 시장 점유율도 높아졌다.

2018년 중국의 일 평균 스크린 증가 수량은 22개를 유지했다. 스크린 수량 증가세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처음으로 20%를 밑돌았다. 중국의 영화관 건설은 아마도 향후 몇 년간 그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점차 영화 수준 향상을 통해 흥행수입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2018년의 중국 영화관 수량은 2017년보다 1,459개 증가한 1만 466개로, 동기대비 12.2% 성장한 것이나, 2017년 연 성장률과 비교하면 다시 하락한 것이다. 중국 영화관객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면서, 영화 흥행수입 향상에 대한 인프라시설의 촉진작용이 약화되기 시작했고, 영화관 건설 투자열풍 역시 냉정을 찾기 시작했다.

2018년 원선별 흥행수입을 살펴보면, 1위는 완다원선(萬達院線)으로 82.5억 위안의 수입을 거두었고, 이는 2017년의 60.3억 위안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반면 시장 점유율은 2017년과 기본적으로 비슷한 수준인 13.59%였다. 상위 3위 원선은 완다, 다디(大地), 상하이런허(上海聯和) 순이며, 이는 2017년도 순위와 동일하다.

2018년에도 중국 31개 성 중, 광둥성, 장쑤성, 저장성이 여전히 흥행수입 상위 3위를 차지했는데, 이 지역들은 모두 남동 연해지역에 위치하여, 이 지역의 문화소비 수준이 높은 편이고, 티켓 파워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6년과 비교하면, 상위 10개 성의 흥행수입은 최대 약 13% 성장했다.

1선 도시는 영화관 수량은 가장 적지만 흥행수입은 2위를 차지해, 여전히 주요 '표발' 도시임을 보여줬으며, 2, 3선 도시와의 평균 흥행수입 차이가 매우 크다. 이는 중국 각 도시의 불균형한 경제성장 현실과 매우 큰 관계가 있다. 반면 3선 및 3선 이하 도시의 2018년 흥행수입 비중은 33.06%이다.





## 2018년 중국영화산업 시즌별 현황

### 춘절 연휴

2018년 춘절 연휴(2월 15일~2월 21일)의 중국 누적 흥행수입은 57.7억 위안으로 2017년 춘절연휴 수입인 34.3억 위안보다 68.43% 증가한 것이다. 2018년 춘절 연휴 관객수는 총 1.45억 명, 상영 횟수는 2,350만 회이다. 2017년 춘절의 전국 관객 수 9,057만 명과 비교하면 2018년 관객수는 60.43% 성장했는데, 이에 비해 상영횟수는 19.42% 증가하는데 그쳤고, 영화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관객수 증가에 기여했다.

2018년 춘절 시즌은 '삼분정립' 형세를 띄며 경쟁이 한층 심화되어, 1억 위안의 흥행수입을 거둔 영화 5편이 나타났다. 그 중 <몬스터 헌트2: 요괴사냥단>(捉妖記2)이 기록을 경신하였는데, 1일 흥행수입 5.4억 위안을 기록하며 2017년 <서유기 요괴편>(西遊伏妖篇)이 가지고 있던 중국어영화 1일 흥행수입 최고 기록인 3.55억 위안을 넘어서었다.

2018년 춘절 연휴 TOP 5 작품은 다음과 같다. <오퍼레이션 레드 씨>(紅海行動) 더우반 평점 8.5점, <당인가탐안2>(唐人街探案2) 더우반 평점 7.1, <부니베어: 더 빅 슈링크>(熊出没·變形記) 더우반 평점 6.8점, <몬스터 헌트2: 요괴사냥단> 5.2점, <몽키킹3: 서유기 여인왕국>(西遊記女兒國)의 평점은 4.7점에 그쳤다. 2017년 춘절 TOP 5 작품과 비교하면 전반적인 수준이 적잖이 향상되었다. <당인가탐안2>는 강력한 입소문에 힘입어 중반부에 <몬스터 헌트2: 요괴사냥단>에 역전한 후 박스오피스 순위에서 독주했고, 종합 흥행수입 19.1억 위안으로 춘절연휴 흥행 1위를 차지했다. <몬스터 헌트2: 요괴사냥단>은 가장 먼저 10억 위안을 돌파한 작품이나, 평점의 영향으로 연휴 후반부에는 피로감을 보이며 총 17.17억 위안으로 춘절연휴 흥행 2위를 달성했다. <오퍼레이션 레드 씨>는 호평에 힘입어 역전에 성공, 흥행수입 총 12.05억 위안으로 춘절연휴 흥행 3위를 차지했다. 발 빠르게 먼저 개봉한 <몽키킹 3: 서유기 여인왕국>은 시작 성적은 괜찮았었던 반면, 후반부에 극단적인 평가를 받으며 4.37억 위안의 흥행수입으로 4위에 그쳤다. <부니베어: 더 빅 슈링크>는 착실하게 시장을 공략했다. 차별화된 장점을 통해 춘절연휴의 새 영화 중 가장 안정적인 흥행수입 그래프를 그려냈으며, 총 3.68억 위안의 수입으로 5위를 차지했다. 2018년 춘절연휴는 '좋은 평가, 높은 흥행수입'의 경향이 점차 뚜렷해졌으며, 관객평이 나쁜 영화는 개봉 초기에는 높은 흥행수입으로 시작해도 낮게 끝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해졌다.

### 밸런타인 시즌

2018년 밸런타인 시즌 흥행수입은 총 2억 6,316만 위안이었으며, 상영횟수는 29만 회, 관객수 710만 명으로, 전체 흥행수입은 2017년 밸런타인 시즌의 3억 9,276만 위안보다 33% 감소했다. 2016년 밸런타인데이에는 마침 춘절 연휴와 겹치면서 6억 440만 위안이라는 근래 최고의 흥행성적을 기록했다. 2018년 밸런타인데이에는 춘절연휴 전날이었기 때문에 명절 귀향의 영향이 있었을 수 있다.

2018년 밸런타인 시즌에는 <몽키킹 3: 서유기 여인왕국>이 미리 개봉하여 당일에 1.79억 위안의 수입을 올리며 밸런타인 흥행 1위를 차지했다. 상영 12일째인 영화 <남극지연>(南極之戀)은 사랑을 소재로 한 데 힘입어 2,525만 위안의 수입으로 2위를, 거의 1개월 가량 상영한 인도 영화 <시크릿 슈퍼스타>가 2,057만 위안을 벌어들이며 3위를 차지했다. 2018년 밸런타인데이에는 춘절연휴와 가까웠기 때문에, <몽키킹 3: 서유기 여인왕국>을 먼저 개봉한 것 외에, 이 날 개봉된 다른 신작은 없었다.

### 노동절 연휴

2018년 노동절 연휴(4월 29일~5월 1일)의 전국 누적 흥행 수입은 10.06억 위안으로, 2017년 노동절 연휴의 흥행수입인 7.84억 위안보다 28.29% 늘었고, 총 관객수는 2,909만 명, 상영 횟수는 79만 회였다. 2018년 노동절 연휴는 총 3일이었는데 중국 대륙의 흥행수입은 첫날부터 차례로 3억 8,685만 위안, 3억 5,482만 위안, 2억 6,464만 위안이었다. 노동절 연휴 3일 동안 <먼 훗날 우리>(後來的我們)가 흥행수입 6억 4,502만 위안으로 노동절 연휴 흥행 1위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했다. <막후완가>(幕後玩家)가 1억 5,406만 위안으로 그 뒤를 이었고, <램페이지>의 흥행수입은 1억 358만 위안이었다.

### 6월 1일 어린이날

2018년 6월 1일 어린이날 시즌 총 흥행수입은 2.13억 위안, 상영횟수 33만 회, 총 관객은 6,790만 명이었다. 2018년 어린이날 시즌 흥행수입은 2017년의 1억 6,504만 위안보다 29% 늘었다.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보물섬>은 6월 1일 개봉하여 시즌 전체 흥행수입 중 39.35%를 차지했다. 2018년 어린이날 시즌 애니메이션 영화의 흥행수입은 전체의 59.04%였는데, 2017년에는 36.4%에 불과했다. 2018년 어린이날 시즌 흥행 1위는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보물섬>(8,393억 위안), 2위는 <어벤져스 인피니티워>(3,530억 위안), <빅샤크2: 해저 2만리>(潛艇總動員: 海底兩萬里)가 3,245만 위안으로 3위를 차지했다. 중국 로컬 애니메이션은 흥행에 실패했다.

### 여름방학 시즌

2018년 여름방학 시즌 전체 흥행수입은 173억 7,800만 위안으로 동기대비 5.73% 성장하면서 역대 여름방학 시즌 흥행수입에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이 시기 누적 상영횟수는 2,855만 4,700회로 동기대비 18.18% 늘었고, 총 관객은 4.96억 명으로 동기대비 4.64% 증가했다.

2018년 여름시즌에는 총 133편의 신작이 상영됐다. 1억 위안 이상의 수입을 거둔 영화는 총 24편인데, 그 중 중국영화는 17편으로 <나는 약신이 아니다>(我不是藥神)가 1위(30.99억 위안), <서홍시수부>(西虹市首富)가 2위(25.21억 위안), <아일랜드>(一出好戏)가 3위(13.23억 위안)를 차지했다. 외국영화는 8편으로,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이 1위(16.96억 위안), <앤티맨과 와스프>가 2위(6.84억 위안), <스카이스크래퍼>가 3위(6.70억 위안)였다.

2018년은 영화 공급이 충분하고 장르가 다양해, 영화시장은 7월부터 활기를 띄기 시작했고, 거의 매 주 좋은 영화와 대형 영화를 만날 수 있었다. 2018년 여름시즌 흥행수입 TOP 10 영화의 더우반 평점을 보면 <애정공우>(愛情公寓) 단 한 편의 작품만 불합격했고, 나머지 9편의 작품은 모두 6점 이상을 받았다. 이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는 작품이 많이 나타난 것이 올 여름시즌의 가장 큰 변화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영화의 흥행수입과 평점이 정비례를 이루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다. 입소문 효과는 올해 여름 그 효과가 특히 빠르게 나타났으며, 영화관에서 하루 만에 상영을 내리는 영화도 많이 나타났다.

2018년은 우수한 영화가 늘어남과 동시에, 흥행수입 10억 위안을 돌파한 영화도 5편이었다. 흥행수입 TOP 10 작품의 최저 수입은 5.55억 위안으로 2017년의 3.76억 위안, 2016년의 3.94억 위안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올 여름시즌도 여전히 80:20 효과가 뚜렷하여, TOP 10 작품의 흥행수입이 여름시즌 전체의 73.47%를 차지하여, 2016년의 60.43%보다 크게 증가했고, 2017년의 72.31%보다도 높았다.



### 류 후이

『화어전영시장』 영화 기자, 에디터, 근속 4년 동안 중국어 영화의 기획, 인터뷰, 저술과 편집을 담당해 왔고, 상하이영화제 및 베이징영화제를 다수 보도했다. 인터뷰 했던 영화인으로는 지야 장커, 닝 하오, 임초현, 프룻 첸, 양가휘, 고천락, 천쿤, 오언조 등이 있고, 집필 기사로는 『베이징국제영화제 스크린 뒤의 이야기』, 『수입 매단계 영화 연말조사: 이것은 과연 어떤 비즈니스인가?』, 『이것은 개혁-닝하오 인터뷰』, 『인간과 규범의 전쟁-취하오평 인터뷰』 등이 있다.

2017년 <특수부대 전랑2>(戰狼2)의 일인 독주와 달리, 2018년 여름시즌에는 다양한 영화가 사랑 받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관람 붐이 전체 시즌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2018년 여름시즌에는 강문(姜文), 서극(徐克)으로 대표되는 시니어 영화인들이 우수한 작품을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신인 감독과 신인 연기자가 배출되어 시장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바링허우 세대 감독 원 무예(文牧野)의 <나는 약신이 아니다>와 엄비(閻非), 팡대마(彭大魔) 감독의 <서홍시수부>, 그리고 황보(黃渤)가 감독으로 데뷔하자마자 좋은 성적을 거둔 <아일랜드>에 이르기까지 이 작품들 모두 우수한 흥행성적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관객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 국경절 연휴

2018년 국경절 연휴(10월 1일~10월 7일)의 전체 흥행수입은 동기대비 28.22% 감소한 19.1억 위안이었다. 누적 상영횟수는 동기대비 0.8% 감소한 246만 회, 총 관객은 동기대비 30.76% 감소한 5,403만 명이었다. <무쌍>(無雙)은 국경절 연휴 7일 동안 6억 2,988만 위안의 흥행을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상영된 <이차적고마>(李茶的姑媽)가 4억 959만 위안으로 2위, <삼국-무영자>(影)는 3억 8,733만 위안으로 3위를 차지했다.

### 연말연시

2018년 연말연시 시즌 흥행수입은 총 260억 3천만 위안, 상영횟수는 총 500만 4,300회, 총 관객수는 7,400만 7천 명으로 2016년보다 43.89% 증가했다. 2018년 연말연시 시즌에 상영된 영화 중, <아쿠아맨>의 흥행수입은 시즌 전체의 31.63%인 8억 3,328만 위안으로 흥행 1위를 차지했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의 흥행수입은 전체의 13.45%인 3억 5,426만 위안으로 2위를 했다. <완벽한 타인: 킬 모바일>(来电狂响)의 흥행수입은 2억 7,341만 위안, 점유율은 10.38%, <지구 최후의 밤>(地球最后的夜晚)의 흥행수입은 265억 7,900만 위안, 점유율은 5.32%, <이웃집 토토로>는 1억 4,018만 위안을 벌어들여 4.67%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 China Film Market Trend in 2018

The Chinese movie market surpassed 60 billion CNY in 2018, an increase of 8.65% from the same period in 2017, totaling 60.7 billion CNY at the box office. Recently, the earnings growth of Chinese box office movies has been growing steadily. The growth rate rapidly increased from 30.18% in 2012 to 48.69% in 2015, but only 3.0% in 2016. However, in 2017, it grew by 23.08% from the same period in 2016.

In 2018, the number of movie screenings in China increased 17.24% than the previous year, totaling up to 110 million screenings and the number of audience reached 1.718 billion, 5.87% increase from the same period last year. The audience growth was always a steady 30% increase since 2012, but it plunged from 8.62% in 2016 and back up to 18.51% in 2017.

In 2018, total of 521 films were screened in China, slightly less than in 2017 (total of 566 films were screened in 2017). The volume of movie screenings in China has been growing explosively since 2016 and was able to keep the same production level as the

previous year in 2018. Among the 521 films screened in 2018, 400 films were Chinese domestic films (aka Chinese films) which accounted for 60.16% of the total box office earnings and 121 film were imported films which accounted for 39.53% of the total box office earnings. The average box office earnings is 87.5746 million CNY per Chinese film and 189 million CNY per imported film.

The average daily box office earnings in 2018 is 166.29 million CNY. The highest daily box office earnings are 1.277 billion CNY on February 16, 2018 and the lowest daily box office earnings is 30.61 million and 1,600 CNY on November 7, 2018.

The month with the best performance in 2018 was February when the box office exceeded 10 billion CNY because of the Chinese New Year and Valentine season. In addition, February, March, July, and August all exceeded monthly box office earnings of 5 billion CNY.

There are 86 films released in 2018 and exceeded box office earnings of 100 million CNY, including 47 Chinese films and 39 imported films. In 2018, there were 53 films with box office earnings between 100~500 million CNY, 16 films between 0.5~1 billion CNY, 7 films between 1~1.5 billion CNY, and 10 films over 1.5 billion CNY.

## 2018 Screened Movies Status by Genre as follows:

Romance 59 films, Box Office Gross 2.4 billion CNY  
 Animation 64 films, Box Office Gross 3.86 billion CNY  
 Action 46 films, Box Office Gross 14.97 billion CNY  
 Documentary 15 films, Box Office Gross 530 million CNY  
 Thriller 27 films, Box Office Gross 330 million CNY  
 Drama 169 films, Box Office Gross 7.56 billion CNY  
 SF 26 films, Box Office Gross 11.51 billion CNY  
 Fantasy 18 films, Box Office Gross 4.28 billion CNY  
 Comedy 90 films, Box Office Gross 12.45 billion CNY

Among the top 20 Chinese box office movies, the genre with the best performance is comedy with earnings of 9.36 billion CNY, action comes in second place with earnings of 7.8 billion CNY, and drama comes in third place with earnings of 4.65 billion CNY. There were 39 'revenue sharing' imported films in 2018 with total box office earnings of 19.88 billion CNY including 6 fantasy films, 6 animation films, 5 action films, 12 SF films, and 2 drama films.

The box office earnings during the 10 seasons of 2018 was 31.66 billion CNY which accounted for 52.16% of the total. Seasons other than summer vacation, Chinese New Year, year end and New Year are mainly holidays, usually lasting 1 to 3 days. The season with the most box office earnings in 2018 was the Chinese New Year and it increased 15.76% than 2017. When looked into the performance of Chinese distributors in 2018, first place goes to Huaxia Film Distribution, Taopiaopiao Distribution is second, and China Film Group Corporation is third. China Film Group Corporation and Huaxia Film Distribution are the only national-run companies that can distribute imported films in China and due to good performance of 'revenue sharing' imported films, the market share has also increased.



In 2018, in average 22 screens were increased daily in China. Currently showing a decline, it fell short of 20% for the first time since 2011. Construction of Chinese movie theaters is likely to slow down over the next few years and progress into the direction of bringing more box office earnings by steadily improving the quality of films.

The number of Chinese movie theaters in 2018 increased by 10,466 (1,459 more than 2017). It is increased 12.2% from the same period of last year, but decreased compared with the annual growth of 2017. As the growth of Chinese movie audiences slow down, the promotion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to improve box office earnings began to worsen and the investment boom in movie theater construction also calmed down.

When looked at the box office earnings by movie theater group in 2018, first place is Wanda Film Holding Co. with earnings of 8.25 billion CNY. This is slightly above than 2017 earnings of 6.03 billion CNY.

Meanwhile, the market share was 13.59%, basically like that of 2017. The top three movie theater groups are Wanda Cinemas, Dadi Theater Circuit, and Shanghai United Circuit, same as 2017 ranking.

In 2018, among the 31 Provinces, Guangdong Province, Jiangsu Province, and Zhejiang Province still occupied the top 3 in terms of box offices earnings. All these regions are located in the southeast coastal area, with high cultural level of spending and strong ticket sales. Compared with 2016, the total box office earnings of the top 10 provinces grew 13% max.

Tier 1 cities have the smallest number of movie theaters but ranked second in terms of box office earnings, showing that they are still major 'landmark' cities and the difference in average box office earnings between Tier 2 and Tier 3 cities was quite big. This is very much related to the reality of unbalanced economic growth of each Chinese city. Meanwhile, the box office earnings of Tier 3 cities and below was 33.06% in 2018.





## 2018 Chinese Film Industry Seasonal Status

### Chinese New Year Holiday

Chinese total box office earnings during the 2018 Chinese New Year holiday (February 15 ~ February 21) was 5.77 billion CNY. It is a 68.43% increase from 2017 earnings of 3.43 billion CNY. The total number of audiences during the 2018 Chinese New Year holiday was 145 million with 2,350 screenings. Compared with 2017 (90.57 million), the number of audiences in 2018 increased 60.43%. However, the number of screenings only increased up to 19.42% and the quality of movies has greatly improved, contributing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audiences.

During the 2018 Chinese New Year holiday, the competition was fierce as it showed strong 'Three Foundation Rule.' There were 5 films with box office earnings of 100 million CNY. Among them, *Monster Hunt 2*(捉妖記2) set a new record by bringing 540 million CNY in one day. It exceeded the record high 355 million CNY brought by *Journey to the West: The Demons Strike Back*(西遊伏妖篇) in 2017.

The top 5 films of 2018 Chinese New Year holiday are as follows. *Operation Red Sea*(紅海行動) Douban Rating 8.5, *Detective Chinatown 2*(唐人街探案2) Douban Rating 7.1, *Boonie Bears: The Big Shrink*(熊出没·變形記) Douban Rating 6.8, *Monster Hunt 2* Douban Rating 5.2, *The Monkey King 3*(西遊記女兒國) Douban Rating 4.7. Compared to the top 5 films of 2017 Chinese New Year holiday, the quality of the films have overall improved.

Thanks to the strong word of mouth *Detective Chinatown 2* turned the game around and took the lead at the box office. Ranked first in the Chinese New Year holiday with total box office earnings of 1.910 billion CNY. *Monster Hunt 2* was the first to bring over 1 billion CNY, but due to the ratings, it slowed down at the end of the holiday and ranked second with 1.717 billion CNY. *Operation Red Sea* received great reviews and succeeded in bringing 1.205 billion CNY and ranked third.

*Monkey King 3* was the first to be released and performed well in the beginning. However, after receiving harsh reviews in the latter half, it ranked fourth place with box office earnings of 437 million CNY. *Boonie Bears: The Big Shrink* steadily hit the market, promoting differentiation and drew the most stable box office earnings among the Chinese New Year holiday new movies. It ranked fifth with total earnings of 368 million CNY. There is an increasing tendency to have 'good reviews, high box office earnings' during the 2018 Chinese New Year holiday. Even if the film premiered with high box office earnings, once it receives bad reviews, it is likely to end up with low rankings.

### Valentine Season

The 2018 Valentine season brought a total box office earnings of 263.16 million CNY, 290,000 screenings, and 7.1 million audiences. However, declined 33% than 2017 Valentine season which brought in 392.76 million CNY. In 2016, the Valentine season overlapped with the Chinese New Year and made an all-time box office record of 644 million CNY. The 2018 Valentine season was the day before the Chinese New Year holiday, so it may have affected those who were going home for the holidays.

In the 2018 Valentine season, *Monkey King 3* had an early release and brought 179 million CNY that day, ranking first place in the box office. *Till the End of the World*(南極之戀) which already screened for 12 days ranked second and brought 25.25 million CNY. Indian drama *Secret Superstar* was released for a month and ranked third bringing 20.57 million CNY. Since 2018 Valentine season was close to Chinese New Year holiday, other than *Monkey King 3*, there were no new films released.

### Labor Day Holiday

The national box office gross was 1.006 billion CNY during the 2018 Labor Day holiday. It increased 28.29% than 2017 Labor Day holiday which brought 784 million CNY with 29.09 million audiences and 790,000 screenings. The 2018 Labor Day holiday was a total of three days. The box office earnings were 386.85 million CNY, 354.82 million CNY, and 264.64 million CNY, respectively, from day one. During the three days of Labor Day holiday, *Us and Them*(後來的我們) led the market with box office earnings of 645.02 million CNY and ranked first place in the Labor Day holiday box office. *Two Steps From Heaven*(幕後玩家) came right after with box office earnings of 154.06 million CNY and *RAMPAGE* brought in 103.58 million CNY.

### June 1, Children's Day

June 1, 2018, the Children's Day season brought total box office earnings of 213 million CNY with 330,000 screenings and 67.90 million audiences. This was a 29% increase than the 2017 season which brought in 165.04 million CNY.

*Doraemon the Movie: Nobita's Treasure Island* opened on June 1 and accounted for 39.35% of the season's total box office earnings. The box office earnings of animation films during the 2018 Children's Day season accounted for 59.04% of the total, which was only 36.4% in 2017.

During the 2018 Children's Day season, *Doraemon the Movie: Nobita's Treasure Island*(839.3 billion CNY) ranked first in the box office, followed by *Avengers: Infinity War*(353 billion CNY) and *Happy Little Submarine: 20000 Leagues Under the Sea*(潛艇總動員：海底兩萬里)(324.5 billion CNY). Chinese local animation films failed at the box office.



### Summer Vacation Season

The total box office earnings during the 2018 summer vacation season was 17.378 billion CNY, increased 5.73% than the same period last year, and set a new record in the box office earnings during the summer vacation season of all time. The total number of screenings during this period was 285,504,700 times, increased 18.18% than the same period last year, and the number of audiences was 496 million, increased 4.64% than the same period last year. A total of 133 new films were screened during the 2018 summer vacation season. A total of 24 films earned more than 100 million CNY, including 17 Chinese films. *Dying to Survive*(我不是藥神)(3.099 billion CNY) ranked first place in the box office, *Hello Mr. Billionaire*(西虹市首富)(2.521 billion CNY) ranked second, and *The Island*(一出好戏)(1.323 billion CNY) ranked third. There were total of 8 foreign films including *Jurassic World: Fallen Kingdom*(1.696 billion CNY) which ranked first, *Ant-Man and the Wasp*(684 million CNY) in second and *Skyscraper*(670 million CNY) in third. In 2018, because there were plenty of films with various genres, the movie market began to thrive starting in July. Almost every week, one could meet good films and blockbusters. According to the Douban rating of the TOP 10 films in 2018 summer vacation season box office,

*iPartment*(爱情公寓) was the only film that was disqualified, and the other 9 films all received more than 6 points. Through this, the biggest change during this summer season is that more films with good reviews were released. In addition, there are more and more cases in which the box office earnings and the rating are directly proportional to each other. The word of mouth effect was especially prevalent this summer but there were also a lot of movies that only screened for a day. In 2018, there was an increase of excellent films and 5 films brought box office earnings of more than 1 billion CNY. Among the TOP 10 in the box office, the lowest earnings were 555 million CNY which is well over 2017 earnings of 376 million CNY and 2016 with 394 million CNY. The 80:20 effect is still evident this summer season and the total box office earnings of TOP 10 films accounts for 73.47% of the total summer season. This is an increase from 60.43% in 2016 and 72.31% in 2017. Unlike the solo lead of *Wolf Warrior 2*(戰狼2) in 2017, various films won everyone's heart during the 2018 summer season. In addition, the continuous boom of audiences gave boost to the entire season. In the 2018 summer not only season senior directors such as JIANG Wen and TSUI Hark presented excellent work but also produced many new directors and actors and brought a new sensation to the industry. From *Dying to Survive* by post-1980 generation film director WEN Muye, *Hello Mr. Billionaire* by film directors YAN Fei and PENG Damo, to HUANG Bo's successful directorial debut *Island*, all these films performed well in the box office and received great reviews.

### National Holiday

The total box office earnings during the 2018 National holiday (October 1 ~ October 7) was 1.91 billion CNY, decreased 28.22% than the same period last year. The total number of screenings was 2.46 million which decreased 0.8% than the same period last year and the total number of audiences was 54.03 million which decreased 30.76% than the same period last year. *Project Gutenberg*(無雙) ranked first in the box office and brought in 629.88 million CNY during the 7 days of National holiday. Hello, Mrs. Money was screened during the same time and came in second bringing in 409.59 million CNY and *Shadow*(影) in third with 387.33 million CNY.

### Year End and New Year's Holiday

The box office earnings during the 2018 Year End and New Year's holiday season was 26.3 billion CNY, with 5.43 million screenings and 74.7 million audiences, 43.89% increase than 2016. Among the films screened during this season, *Aquaman* topped the box office bringing 833.28 million CNY which accounts for 31.63% of the total earnings of the season. *Spider-Man: Into the Spider-Verse* ranked second bringing 354.26 million CNY which accounts for 13.45% of the total. *Kill Mobile*(来电狂响) brought box office earnings of 273.41 million CNY with market share of 10.38%, *Long Day's Journey Into Night*(地球最后的夜晚) brought 265.79 million CNY with market share of 5.32%, and *My Neighbor Totoro* brought 140.18 million CNY with market share of 4.67%.



### LIU Hui

A journalist, an editor, her work has covered Chinese language film plannings, interviews, writings and editings. She wrote several reports on Shangha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Beiji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he interviewed JIA Zhang Ke, NING Hao, Dante Lam, Fruit Chan, Tony Leung Ka Fai, Louis Koo, CHEN Kun, Daniel Wu, etc. She wrote the reports of *A story behind the screen of Beiji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nual report on the imported films through sales agents: What kind of business is this?*, *This is evolution - An interview with NING Hao*, *A war between humans and principles - An interview with SHUI Hao Feng*.

香港  
HONGKONG

Made in  sia



# Figures of Top 10 Films in Hong Kong Box Office

Hong Kong Box Office [www.hkbo.com.hk](http://www.hkbo.com.hk)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Local)	Gross(USD)	제작사 Production	배급사 Distribution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Avengers: Infinity War	안소니 루소, 조 루소	Anthony RUSSO, Joe RUSSO	미국	USA	액션	Action	HKD 153,300,000	USD 19,530,000	Marvel Studios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	Jurassic World: Fallen Kingdom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Juan Antonio BAYONA	미국	USA	액션	Action	HKD 88,600,000	USD 11,300,000	Amblin Entertainment	United International Pictures
인크레더블2	Incredibles 2	브래드 버드	Brad BIRD	미국	USA	애니메이션	Animation	HKD 71,200,000	USD 9,070,000	Walt Disney Pictures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블랙 팬서	Black Panther	라이언 쿨러	Ryan COOGLER	미국	USA	액션	Action	HKD 63,300,000	USD 8,070,000	Marvel Studios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Mission: Impossible - Fallout	크리스토퍼 맥쿼리	Christopher McQUARRIE	미국	USA	액션	Action	HKD 60,440,000	USD 7,700,000	Skydance Media	Intercontinental Film Distributors
앤티맨과 와스프	Ant-Man and the Wasp	페이튼 리드	Peyton REED	미국	USA	액션	Action	HKD 57,060,000	USD 7,270,000	Marvel Studios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아쿠아맨	AQUAMAN	제임스 완	James WAN	미국	USA	액션	Action	HKD 55,070,000	USD 7,020,000	Warner Bros. Pictures	Warner Bros. Pictures
데드풀 2	Deadpool 2	데이빗 레이치	David LEITCH	미국	USA	액션	Action	HKD 54,590,000	USD 6,960,000	Marvel Entertainment	20th Century Fox
신과 함께: 죄와 벌	Along With the Gods: The Two Worlds	김용화	KIM Yonghwa	한국	Korea	판타지	Fantasy	HKD 54,430,000	USD 6,940,000	Realies Pictures	Edko Films Ltd.
신과 함께:인과 연	Along with the Gods: The Last 49 Days	김용화	KIM Yonghwa	한국	Korea	판타지	Fantasy	HKD 48,240,000	USD 6,150,000	Realies Pictures	Edko Films Ltd.

# Figures of Top 10 Films in Domestic Box Office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Local)	Gross(USD)	제작사 Production	배급사 Distribution
동독특공 棟篤特工	Agent Mr. Chan	장자제 張家傑	Jeff CHANG	홍콩 /중국	Hong Kong/China	코미디	Comedy	HKD 44,700,000	USD 5,700,000	China 3D	HMV Digital China
무쌍 無雙	Project Gutenberg	장문강 庄文强, 맥조휘 麥兆輝	Felix CHONG, Alan MAK	홍콩 /중국	Hong Kong/China	스릴러	Thriller	HKD 34,400,000	USD 4,380,000	Shanghai Bona Culture Media Co., Ltd	A Really Happy Film
아직정적여서 我的情敌女婿	A Beautiful Moment	염염침 叶念琛	Patrick KONG	홍콩	Hong Kong	로맨스	Romance	HKD 17,420,000	USD 2,220,000	Emperor Motion Pictures	Emperor Motion Pictures
L 풍폭 L風暴	L Storm	임덕록 林德祿	David LAM	홍콩 /중국	Hong Kong/China	스릴러	Thriller	HKD 17,410,000	USD 2,218,000	Pegasus Motion Pictures	Screen Media & Promotion Ltd.
몬스터 헌트2: 요괴사냥단 捉妖記2	Monster Hunt 2	라맨 허 许诚毅	Raman HUI	홍콩 /중국	Hong Kong/China	판타지	Fantasy	HKD 16,090,000	USD 2,050,000	Edko Films Ltd.	Edko Films Ltd.
맨 온 더 드래곤 逆流大叔	Men on the Dragon	전영신 陳詠燦	Sunny CHAN	홍콩	Hong Kong	코미디	Comedy	HKD 15,650,000	USD 1,990,000	One Cool Film Production Ltd.	One Cool Film Production Ltd.
황금형제 黄金兄弟	Golden Job	전가락 錢嘉樂	CHIN Kalok	홍콩 /중국	Hong Kong/China	액션	Action	HKD 10,880,000	USD 1,390,000	Beijing Sparkle Roll Media Corporation	Intercontinental Film Distributors
엽문 외전 葉問外傳：張天志	Master Z: The Ip Man Legacy	원화평 袁和平	YUEN Wooping	홍콩 /중국	Hong Kong/China	액션	Action	HKD 10,790,000	USD 1,380,000	Mandarin Motion Pictures Limited	Mandarin Motion Pictures Limited
몽키킹3: 서유기 여인왕국 西游记·女儿国	The Monkey King 3	정 바오루이 鄭保瑞	Soi CHEANG	홍콩 /중국	Hong Kong/China	어드벤처	Adventure	HKD 8,940,000	USD 1,140,000	Filmko Pictures Co., Ltd.	Filmko Pictures Co., Ltd.
오퍼레이션 레드 씨 红海行动	Operation Red Sea	임초현 林超賢	Dante LAM	홍콩 /중국	Hong Kong/China	액션	Action	HKD 8,720,000	USD 1,110,000	Beijing Bona Film Group Co., Ltd.	Emperor Motion Pictures



# 2018 홍콩 영화산업 동향

2000년대 중반부터 홍콩의 상업영화산업은 갈수록 중국 본토와의 공동제작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 본토와 홍콩간의 경제협력강화협정으로 인해 공식적인 홍콩-중국 공동제작 작품이 중국의 외국영화 쿼터제와 상관 없이 시장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중국 본토 영화산업제도 내에서 작업하기로 선택한 감독들은 중국영화산업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시장으로 만들어준 수천만 명의 관객 덕에 훨씬 더 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대가는? 검열로 인한 상당한 예술적 자유의 제약과 중국 영화 관객의 취향에 맞춰야 한다는 것. 조송기(趙崇基) 감독이 오사카아시아영화제에서 그의 최신 영화 <No. 1 총 잉 스트리트>(中英街1號) 관련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그 어떤 감독도 수천만 달러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유혹을 뿌리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임초현(林超賢)의 경우를 보라. <오퍼레이션 메콩>(湄公河行動)과 <비스트 스토크>(證人) 등을 연출한 블록버스터 영화 감독으로 2018년 <오퍼레이션 레드 씨>(紅海行動)를 통해 중국 본토 시장에서 활동하는 가장 성공한 홍콩 감독이 되었다. 이는 중국 군인이 가상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구조작전을 펼치면서 테러범들과 싸우는 내용의 3,500만 USD짜리 영화로 인민군의 물류 지원을 받아 모로코 현지에서 촬영했고, 중국 본토에서만 36.5억 위안(5.39억 USD)을 벌어들였다. 이 영화는 전쟁폭력의 사실적 묘사 때문에 홍콩에서 3급(18세 미만 관람불가)으로 판정 받아 불과 872만 HKD(111만 USD)를 벌어들였다.

이 트렌드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자 중국 본토 시장에서 일하며 금전적 보상을 선택한 베테랑들이 홍콩의 영화산업을 빠져나갔다. 1990년대, 전 세계 영화계가 부러워한 홍콩영화 산업을 이끈 서극, 주성치, 왕가위, 성룡, 진가신 등의 유명 영화제작자들은 홍콩 투자자들이 독립적으로 지원해줄 수 없는 규모의 예산을 가진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베이징으로 회사를 옮겼다.

이 때 오랜 시간 제작진으로 일해 온 재능인들과 국내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신세대 감독들은 유명 감독들이 떠나고 남긴 자리를 채웠다. 1년에 불과 50여 편의 영화가 제작되지만, 지난 3년 간 홍콩금상장영화제에서는 매년 평균 23명의 감독들이 신인감독상 후보에 올랐다.

그러나 중국본토의 투자를 거절하고 홍콩지역 관객을 상대로 하는 영화를 만드는 이들은 큰 재정적 위험 때문에 낮은 예산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영화들은 스타 배우들이 출연하고 거액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볼거리 많은 대작을 선호하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쉽지 않다. 조 감독 같은 경우도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 때문에 투자자와 배우 모두 꺼려했기에 <No. 1 총 잉 스트리트>를 만드는데 8년이나 걸렸다. 지난 3월 오사카아시아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흑백으로 된 이 역사극은 홍콩 내에서 1백만 HKD(12.7만 USD)도 채 벌어들이지 못했다.

정치적 논쟁이 홍콩사회를 갈라놓았듯이 홍콩영화산업의 제작은 지역 영화의 수익이 갈수록 정체되면서 더욱 격차가 벌어졌다. 심지어 2018년에는 홍콩 관객들이 중국본토 관객을 겨냥한 영화들을(유명한 홍콩 배우가 등장하는 영화조차도)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홍콩에서 만들어진 영화임에도 큰 관객층을 형성하지 못했다.

홍콩영화산업협회 통계에 의하면 2018년 총 박스오피스 수입은 18.54억 HKD(2.362억 USD)으로 매년 5.57%의 성장률을 보였다. 극장 개봉된 총 영화 편수는 353편으로 2017년의 331편보다 증가했으나 (중국본토 공동제작을 포함한)홍콩영화 편수는 여전히 53편이었다.

14년 연속 할리우드 영화들이 연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올해의 1위는 1.533억 HKD(1.953천만 USD)를 벌어들인 마블 스튜디오와 디즈니의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로 홍콩 역사상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영화가 됐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단 한 편의 홍콩 영화도 2018년 박스오피스 차트 10위권에 진입하지 못했고 10위권 내의 영화 중 할리우드 영화가 아닌 것은 한국의 판타지 서사영화 <신과 함께> 1, 2뿐이었다.

2018년 중국본토에서 제작한 표준중국어로 된 영화들이 계속해서 실패한 가운데 대만의 최루성 영화 <모어 댄 블루>(比悲傷更悲傷的故事)가 박스오피스에서 1.8천만 HKD(229만 USD) 넘게 벌어들이면서 대부분의 홍콩 영화보다 더 성공했다.

홍콩 영화들에게 구정은 여전히 대목이다. 홍콩영화 상위 10위 중 <동독특공>(棟篤特工)을 포함한 네 편은 이 기간에 개봉했다. HMV디지털차이나그룹에서 개봉한 이 영화는 10년 만에 영화계로 돌아온 코미디 슈퍼스타 다요 왕(黃子華) 덕분에 4.470천만 HKD(5.7백만 USD)을 벌어들였다.

홍콩 영화 상위 10위 중 여덟 편이 예산이 큰 영화인 것을 감안하면, 홍콩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여전히 매끄럽고 상업적으로 재미있는 영화를 선호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순수홍콩영화” 또한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이 있다.

8월에는, 중년의 남자들로 이루어진 용선 경기 팀을 다룬 코미디 영화 <맨 더 드래곤>(逆流大叔)이 개봉 첫 주에 1.35백만HKD(17.2만 USD)를 기록하며 6위에 그쳤다. 그러나 관객들의 입소문과 배급사 원쿨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이 영화는 비교적 성공한 수준의 1.57천만HKD(1.99백만USD)를 벌어들일 수 있었다. 오랫동안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한 진영신(陳詠燊)의 감독 데뷔작으로 홍콩금상장영화제에서 9개의 상을 받았다.

또한 원쿨에서 개봉한 <트레이시>(翠絲)는 주연 배우인 강호문(姜皓文)을 캐스팅하고,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한 가족의 가장을 다루면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 때문에 초반에 관심을 끌었다. 총 수익이 5백만 HKD(63.7만 USD)로 규모 있는 상업영화에 비해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나 홍콩 내에서 LGBTIQ 영화로서는 상당한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간주된다.



에드코, 엠퍼러모션픽처스와 페가서스 등의 주요 영화사들이 계속해서 큰 예산의 공동제작 영화에 의존하는 동안 원쿨과 골든썸과 같은 작은 배급사들은 저예산 홍콩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더 작은 규모에 비용이 절감되는 전략을 이용하고 있다. 빌보드나 비싼 TV 광고에 돈을 쓰는 대신 이 두 회사는 출연진과 감독을 만날 기회나 SNS를 통해 영화를 알렸다.

특히 이 전략은 골든썸의 <다름의 하모니>(非同凡響)에서 효과적이었는데, 영화는 특수학교 학생들이 한 자선단체의 지원을 받아 뮤지컬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렸다. 기존의 대규모 광고 캠페인을 할만한 예산이 없던 이 회사는 지역사회상영회, 관객과의 대화, SNS에 짧은 영상 올리기 등으로 입소문을 탔다. <트레이시>와 마찬가지로 출연진 중 유명한 배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5백만HKD 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것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홍콩정부의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산업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2007년 설립된 이래로 영화발전기금은 (<맨 온 더 드래곤>을 포함한) 46개의 작품에 대해 제작비 용자와 지원금의 형태로 1억 1,186만 HKD(1,510만 USD)을 지원했고, 이와 별도로 5,450만 HKD(694만 USD)를 13편의 첫 장편영화제작 지원금인 FFFI(First Feature Film Initiative)로 제공해 그 중 다수가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인정받고 수상했다. FFFI가 젊은 감독들에게 상업적 성공과 상관 없이 장편영화를 만들 기회를 준 것에 대해 찬사를 받았지만 영화발전기금(FDF)은 위원회가 “상업적으로 가능성 있다”고 판단한 독립영화감독만 지원한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

2018년에는 홍콩레코즈와 HMV 등 두 개의 주요 소매체인이 문을 닫으면서 보조 부문 또한 큰 타격을 받았다. 이 두 회사의 폐쇄는 물리적인 미디어 시장의 계속되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비디오 스트리밍이 전세계보다는 느리지만 폭스네트웍스그룹의 Fox+가 이 지역에서 제작한 두 개의 미니시리즈를 가지고 시장에 과감하게 진출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홍콩 라이브러리에 이 지역 영화 몇 편을 증가시키기는 했으나 아시아 지역 사업을 한국과 대만에 주력한 듯하다.

제작과 배급이 여전히 불안정했던 2018년 전시 부문은 꾸준히 확장되었다. 모든 강당을 하나의 통제실에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영화 테크놀로지로 인해 극장들이 공간을 줄일 수 있게 되어 극장 체인들은 주거지역에 위치한 몰 안에 멀티플렉스 시설을 지을 수 있었다.

브로드웨이 시네마는 배급사인 에드코와 동일한 기업의 소유로 2017년 말 열게 된 두 개의 큰 멀티플렉스 덕분에 지금도 우위를 지키는 체인이다. 2년 전 시네마 시티와 함께 확장을 했던 MCL은 인구 밀도가 높은 샤틴 지역에 7개의 극장을 지닌 거대한 멀티플렉스를 개장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렸다. 골든하베스트와 UA도 그 후 마찬가지로 주거지역에 세 개의 멀티플렉스를 열었다.

표면상 극장 스크린을 늘린 것은 영화산업에 있어 긍정적인 발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국 영화의 상영을 보장하는 한국의 쿼터제와 같은 보호제도가 없으면 이러한 새로운 극장을 역시 높은 관객 수요 때문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상영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2018년에 있던 두 건의 주요 인사이동이 앞으로 홍콩영화산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8월에는 베테랑 프로듀서인 존 종이 자신이 공동 창립한 미디어 아시아로 돌아왔다. 첫 재임기간에 <무간도>(無間道) 3부작, 평 샤오강 감독의 <집결호>(集結號) 및 <이니셜 D>(頭文字D) 그리고 두기봉 감독의 밀키웨이이미지 회사의 영화 몇 편을 제작하면서 지역 최고의 제작사로 자리 잡도록 했다. 엠퍼러모션픽처스의 대표이자 동료 프로듀서인 알버트 리는 홍콩영화제의 신임 집행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알버트 리의 임명과 함께 제프리 왕의 새 수석 프로그래머 임명은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 중 하나에 있어 큰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 케빈 마

케빈 마는 전 인터넷 판매 업체 YesAsia.com의 영문 편집자이자, 무역 뉴스 웹 사이트 Film Business Asia의 중화권 특파원이었다. 현재 캐세이퍼시픽과 캐세이드래곤의 기내 잡지를 발행하는 Cedar Hong Kong의 엔터테인먼트 부문 편집자이다. 또한 그는 아시아 영화 산업에 대한 포괄적 인 보도를 제공하는 새로운 웹 사이트인 아시아인시네마(www.asiaincinema.com)의 창립자이자 중화권 영화사 및 기타 문화 기관을 위한 프리랜서 작가, 번역가이기도 하다.





# Hong Kong Film Market Trend in 2018

Since the mid-2000's, the Hong Kong commercial film industry has relied more and more on co-productions with mainland China. The Mainland and Hong Kong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allowed official Hong Kong-mainland China co-productions to bypass China's foreign film quotas and directly enter the market. Filmmakers who choose to work within the mainland Chinese film industry system have access to much bigger budgets, thanks to the hundreds of millions of filmgoers who made the mainland Chinese film industry the second biggest in the world. The trade-off? Considerably less artistic freedom due to censorship and the need to adjust to Chinese filmgoers' taste.

As director Derek CHIU said to me during our interview at the Osaka Asian Film Festival for his latest film, *No. 1 Chung Ying Street* (中英街1號), it's difficult for any filmmaker to turn down the temptation of having millions of dollars at his or her disposal.

Consider the case of Dante LAM. The blockbuster director behind *Operation Mekong* (湄公河行动) and *The Beast Stalker* (證人) became the most successful Hong Kong filmmaker working in the mainland Chinese market in 2018 with *Operation Red Sea*. Shot on location in Morocco with logistical support from the People's Liberation Army, the 35 million USD film - about a group of Chinese soldiers fighting terrorists in a fictional African nation during a

rescue mission - earned 3.65 billion CNY(539 million USD) in mainland China alone. In Hong Kong, where the film was rated category III (no one under 18 admitted) for its graphic war violence, it made only 8.72 million HKD(1.11 million USD). Over a decade after the trend began, the Hong Kong film industry has seen a drain of veterans who chose the financial reward of working in the mainland Chinese market. High-profile filmmakers who made the Hong Kong film industry the envy of the global film community in the 1990s - such as TSUI Hark, Stephen CHOW, WONG Kar Wai, Jackie CHAN, Peter Ho Sun CHAN - have moved their production base to Beijing for ambitious big-budget projects that Hong Kong investors can't afford on their own.

Meanwhile, a new generation of young filmmakers, consisting of a mix of longtime behind-the-scenes talents and young directors trained in local educational institutions, have stepped in to fill the void left by the drain. Over the past three years, the Hong Kong Film Awards has seen an average of 23 directors eligible for the Best New Director award each year - in a city that produces just over 50 films annually.

However, those reject mainland Chinese funding to make films that target the local audience face lower budgets due to greater financial risk. In turn, those films boast limited commercial appeal to an audience base that overwhelmingly prefers big-budget extravaganzas with slick visuals and major stars. CHIU, for example, took eight years to make *Chung Ying Street* because its politically sensitive topic caused both investors and actors to shy away. Despite winning the top prize at the Osaka Asian Film Festival last March, the black-and-white historical drama made less than 1 million HKD(127,000 USD) in Hong Kong.

Much like how political debates have caused a rift in Hong Kong society, the Hong Kong film industry's production sector has also become increasingly split as financial returns for local films continue to stagnate. Even though Hong Kong audiences continued to reject productions aimed at mainland Chinese audiences in 2018 (even those featuring high-profile Hong Kong actors), they didn't turn up in large numbers to watch local productions, either.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the Hong Kong Motion Picture Industry Association, total box office revenue for 2018 was 1.854 billion HKD(236.2 million USD), representing a year-on-year increase of 5.57%. While the total number of theatrical releases increased to 353 from 331 in 2017, the number of Hong Kong films (including mainland Chinese co-productions) remained the same at 53.

For the 14th consecutive year, a Hollywood film topped the yearly box office chart. In this year's case, it's Marvel Studios and Disney's *The Avengers: Infinity War*, which earned 153.3 million HKD(19.53 million USD) to become the second highest-grossing film of all-time in Hong Kong. Like last year, not a single Hong Kong film made 2018's top ten box office chart, and only two non-Hollywood films made the top ten: the two-part South Korean epic fantasy *Along with the Gods*. While mainland China-produced Mandarin-language film continued to flop in 2018, Taiwan tearjerker *More Than Blue* (比悲傷更悲傷的故事) out-grossed most Hong Kong productions with over 18 million HKD(2.29 million USD) at the box office.

Lunar New Year remains the most lucrative period for local films. Four of the top ten-grossing local films were released during the period, including number one film *Agent Mr. Chan* (棟篤特工). Released by HMV Digital China Group, the film earned 44.7 million HKD(5.7 million USD) thanks to the presence of comedy superstar Dayo WONG, in his first film starring role in over ten years.



Considering that eight out of the top ten local films are big-budget co-productions, it appears that those who choose to watch Hong Kong films still prefer slick, commercial entertainment. However, there is still room for so-called “purely Hong Kong productions” to succeed on their own terms.

In August, *Men on the Dragon*(逆流大叔) -a comedy about a group of middle-aged men who form a dragon boat race team- opened at only sixth place with 1.35 million HKD(172,000 USD) in its first week. However, thanks to strong word-of-mouth and an aggressive marketing push by distributor One Cool, the film ended its run with a moderately successful 15.7 million HKD(1.99 million USD). The directorial debut of longtime scriptwriter Sunny Chan also earned 9 Hong Kong Film Awards.

Also released by One Cool, *Tracey*(翠絲) -about a family man who suffers from gender identity crisis- attracted attention early on with the casting of character actor Philip KEUNG as the titular character and its controversial themes. Even though its gross of 5 million HKD(637,000 USD) isn't particularly successful compared to bigger commercial films, but it's considered a very strong gross for an LGBTIQ film in Hong Kong.

While major film outfits such as Edko, Emperor Motion Pictures and Pegasus continue to rely on big-budget co-productions, smaller distributors such as One Cool and Golden Scene are employing smaller, more cost-effective strategies to promote low-budget local productions. Instead of spending money on billboards and expensive TV ads, the two companies use cast and director greeting sessions and social media to spread awareness.

The strategy was particularly effective for Golden Scene's *Distinction*(非同凡響), a charity organization-funded drama about a group of special education students who put on a musical. Without the budget for a large-scale traditional advertising campaign, the company organized community screenings, greeting sessions and made short videos on social media to build word-of-mouth. Like *Tracey*, its gross of over 5 million HKD is a relative success, considering that the film has no household name in its cast.

The Hong Kong government's Film Development Fund has become a major industry player, thanks to its First Feature Film Initiative and its film production subsidies.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07, the fund has spent 118.6 million HKD(15.1 million USD) on subsidizing 46 productions in the form of production loans and grants (Men on the Dragon was one of those films), in addition to the 54.5 million HKD(6.94 million USD) it spent on funding 13 First Feature Film Initiative productions, many of which have earned award recognition and film festival exposure around the world. While the FFI has been praised for giving young directors the chance to make feature films without commercial consideration, the FDF has also been criticized by independent filmmakers for only subsidizing films that are the committee deems “commercially viable”.

The ancillary sector has also been dealt a major blow in 2018 with the closing of two major retail chains, Hong Kong Records and HMV. The closings reflect the continuing weakening of the physical media market. Even though video streaming in the city continues to lag behind the rest of the world, Fox Networks Group's Fox+ made an aggressive entry into the market with two locally-produced mini-series. Netflix, on the other hand, seemed to have concentrated their Asian region efforts on South Korea and Taiwan, though it has increased the number of local films in its Hong Kong library.

While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ectors remained rocky in 2018, the exhibition sector continued to expand at a steady rate. Thanks to new cinema technology that allows cinemas to save space by running all their auditoriums from a central control room, cinema chains have been able to build compact multiplexes in residential neighborhood malls. Broadway Cinemas, which shares the same corporate owner as distributor Edko Films, is still the dominant chain, especially thanks to two large multiplexes that opened in late 2017. MCL, who led the expansion charge two years ago alongside Cinema City, expanded its market share with the opening of a giant seven-screen multiplex in the heavily populated neighborhood of Shatin. Golden Harvest and UA also followed suit with the opening of three new mini-multiplexes in residential neighborhoods.

On the surface, adding cinema screens appears to be a positive development for the film industry. However, without a protectionist system such as the screen quota system in South Korea to ensure that local films can secure screenings, many of these new cinema screens are often used to show Hollywood blockbusters due to high audience demand.

Last, but not least, two major executive shuffles in 2018 are also expected to impact the Hong Kong film industry in the coming years. In August, veteran producer John CHONG returned to Media Asia, the production powerhouse that he co-founded. During his first tenure, CHONG helped establish the company as one of the region's top production outfits with blockbusters such as the *Infernal Affairs*(無間道) trilogy, FENG Xiao Gang's *Assembly*(集結號), *Initial D*(頭文字D) and a number of films by Johnnie TO's Milkyway Image. Meanwhile, fellow producer Albert LEE, the CEO of Emperor Motion Pictures, was appointed as the new executive director of the Hong Ko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Lee's appointment, as well as the appointment of Geoffrey WONG as the new head of programming, may lead to major changes for one of the oldest film festivals in the region.



#### Kevin MA

Kevin MA was formerly an English editor at internet retailer YesAsia.com and the Greater China correspondent for trade news website Film Business Asia. He is currently an entertainment editor at Cedar Hong Kong, which publishes Cathay Pacific and Cathay Dragon's inflight magazines. In addition, he is the founder of Asia in Cinema ([www.asiaincinema.com](http://www.asiaincinema.com)), a new website that provides comprehensive coverage of the Asian film industry, as well as a freelance writer/translator for film companies and other cultural institutions in the Greater China region.

대만  
TAIWAN

# Figures of Top 10 Films in Taiwan Box Office

Taiwan Cinema [www.taiwancinema.com](http://www.taiwancinema.com)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Local)	Gross(USD)	제작사 Production	배급사 Distribution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	Avengers: Infinity War	안소니 루소, 조 루소	Anthony RUSSO, Joe RUSSO	미국	USA	액션	Action	NTD 641,770,000	USD 21,300,000	Marvel Studios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	Jurassic World: Fallen Kingdom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Juan Antonio BAYONA	미국	USA	액션	Action	NTD 621,670,000	USD 20,630,000	Amblin Entertainment	United International Pictures
신과 함께: 죄와 벌	Along With the Gods: The Two Worlds	김용화	KIM Yonghwa	한국	Korea	판타지	Fantasy	NTD 511,830,000	USD 16,990,000	Realies Pictures	Cai Chang International Inc.
신과 함께: 인과 연	Along with the Gods: The Last 49 Days	김용화	KIM Yonghwa	한국	Korea	판타지	Fantasy	NTD 479,420,000	USD 15,910,000	Realies Pictures	Cai Chang International Inc.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Mission: Impossible - Fallout	크리스토퍼 맥쿼리	Christopher McQUARRIE	미국	USA	액션	Action	NTD 447,300,000	USD 14,850,000	Skydance Media	United International Pictures
블랙 팬서	Black Panther	라이언 쿨러	Ryan COOGLER	미국	USA	액션	Action	NTD 373,050,000	USD 12,380,000	Marvel Studios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레디 플레이어 원	Ready Player One	스티븐 스필버그	Steven SPIELBERG	미국	USA	액션	Action	NTD 362,040,000	USD 12,010,000	Warner Bros. Pictures	Warner Bros. Pictures
아쿠아맨	AQUAMAN	제임스 완	James WAN	미국	USA	액션	Action	NTD 354,570,000	USD 11,770,000	Warner Bros. Pictures	Warner Bros. Pictures
앤티맨과 와스프	Ant-Man and the Wasp	페이튼 리드	Peyton REED	미국	USA	액션	Action	NTD 297,160,000	USD 9,860,000	Marvel Studios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데드풀 2	Deadpool 2	데이빗 레이치	David LEITCH	미국	USA	액션	Action	NTD 287,610,000	USD 9,540,000	Marvel Entertainment	20th Century Fox

# Figures of Top 10 Films in Domestic Box Office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Local)	Gross(USD)	제작사 Production	배급사 Distribution
모어 댄 블루 比悲傷更悲傷的故事	More than Blue	임효겸 林孝謙	Gavin LIN	대만	Taiwan	멜로/로맨스	Romance	NTD 220,000,000	USD 7,300,000	mm2 Entertainment	20th Century Fox
가타오2: 라이즈 오브 더 킹 角頭2：王者再起	Gatao 2: Rise of the King	안정국 顏正國	YEN Chengkuo	대만	Taiwan	범죄	Gangster	NTD 127,000,000	USD 4,210,000	Leday Multimedia	Shine Time Entertainment Co., Ltd.
Back to the Good Times 花甲大人轉男孩	Back to the Good Times	구우녕 瞿友寧	CHU Yuning	대만	Taiwan	코미디	Comedy	NTD 102,000,000	USD 3,380,000	CMC Entertainment Holding Corporation	Vie Vision Pictures Co., Ltd.
인면어: 저주의 시작 人面魚：紅衣小女孩外傳	The Tag-Along: The Devil Fish	데이비드 청 莊絢維	David Chuang	대만	Taiwan	공포	Horror	NTD 72,760,000	USD 2,410,000	Greener Grass Production	Vie Vision Pictures Co., Ltd.
나의 Ex 誰先愛上他的	Dear Ex	맥 쉬 徐譽庭	Mag HSU	대만	Taiwan	코미디	Comedy	NTD 65,580,000	USD 2,170,000	Dear Studio Production	Warner Bros. Pictures
더 로프 커스 絞邪	The Rope Curse	랴오 시한 廖士涵	LIAO Shihhan	대만	Taiwan	공포	Horror	NTD 49,270,000	USD 1,630,000	WOWING Entertainment Group	20th Century Fox
The Outsiders 門魚	The Outsiders	가한진 柯翰辰, 호녕원 胡寧遠	KE Hanchen, HU Ningyuen	대만	Taiwan	범죄	Gangster	NTD 30,570,000	USD 1,010,000	Domany Production Co., Ltd.	Shine Time Entertainment Co., Ltd.
귀신온천여관 切小金家的旅館	Secrets in the Hot Spring	린 관후이 林冠慧	LIN Kuanhui	대만	Taiwan	코미디	Comedy	NTD 19,770,000	USD 656,000	MacGuffin Film	Warner Bros. Pictures
유일종희한 有一種喜歡	About Youth	왕옥혜 王郁惠	WANG Yuhuei	대만	Taiwan	멜로/로맨스	Romance	NTD 8,870,000	USD 294,000	Jiuxing Film Co., Ltd.	Shine Time Entertainment Co., Ltd.
롱 타임 노 씨 只有大海知道	Long Time No Sea	헤더 추이 崔永徽	Heather TSUI	대만	Taiwan	드라마	Drama	NTD 8,400,000	USD 278,000	RichLand Production Co., Ltd.	Swallow Wings Film Co.,Ltd.



# 2018 대만 영화시장 동향

2016년 대만 영화시장은 8년 만에 최저점을 찍었고 2017년부터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여 2018년에는 전년대비 약 20% 성장을 기록했다. 2018년 대만 로컬 영화시장을 이끌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역대 수입을 올린 연초의 하세편 두 편과 연말에 선보인 <모어 댄 블루>(比悲傷更悲傷的故事)로, 평탄했던 로컬영화 흥행 성적표에 아름다운 상승곡선을 그려냈다. 이 외에도 속편제작, IP 각색 영화 및 더욱 전형화된 장르영화들이 폭넓게 사랑 받았는데, 영화인들이 상업영화 제작 프로세스와 운영 방법을 이해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2018년 대만시장 박스오피스 랭킹 10위 작품 중, 할리우드 슈퍼히어로 영화는 5편에 불과했다. 한편 대만영화는 할리우드 대작들 틈에서도 1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지켰다. 연초의 음력 설 시즌이 시작되면서 마블 영화 <블랙 팬서>가 흥행시장을 독주하며 다른 영화들과 격차를 벌렸지만, <가타오 2: 라이즈 오브 더 킹>(角頭2: 王者再起), *Back to the Good Times*(花甲大人轉男孩) 두 편도 모두 1억 TWD가 넘는 흥행 성적을 거뒀다. 이 중 <가타오 2>는 속편 영화이고, *Back to the Good Times*는 IP를 각색한 영화로, 두 편 모두 기존 관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이다. 전편인 <가타오>와 2년 반의 시차를 두고 개봉된 <가타오 2: 라이즈 오브 더 킹>은 속편 영화이지만, 두 작품은 장르만 같을 뿐 내용은 전혀 관련이 없다. 2015년 여름방학에 개봉한 <가타오>는 당시 시장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하며 대만에서

8천만 TWD의 흥행수입을 올렸고, 조폭 범죄 장르물 시장을 개척했다. 영화사 또한 속편 <가타오 2: 라이즈 오브 더 킹> 제작을 결정하고, <가타오>에 출연했던 안정국(顏正國)을 감독으로 발탁, 감독 데뷔를 시켰다. <가타오 2: 라이즈 오브 더 킹>의 안정국 감독은 메가폰은 처음 잡았지만, 아역스타 출신인데다 조직생활을 하다 복역을 마친 후 새 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작품 속 인물이 조직 갈등에 깊이 휘말려 들어가는 상황과 강호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고통을 잘 포착할 수 있었다. 또한 허우 샤오시엔 스태프인 야오 홍이 촬영감독의 도움을 받아 카메라 앞에서 두 조직이 기세 등등하게 대치 중인 장면을 연출, 영화의 극적 텐션을 더했다. <가타오 2>는 전편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 영화는 살벌하게 피비린내 나는 싸움과 '한 번 길을 잘 못 들면 돌아오기 어렵다'는 주제로 설 시즌에 1.27억 TWD의 수입을 올리며 시장을 사로잡았다. *Back to the Good Times*는 TV드라마 『꽃 같은 내 인생』(花甲男孩轉大人)의 영화버전으로, 2017년 방송한 드라마가 높은 시청률을 거둔데 힘입어, 구우녕(瞿友寧) 감독이 여세를 몰아 원작 스태프들과 함께 만든 영화이다. 양부민의 소설 『화갑남해』를 각색해 만든 TV드라마는 3대가 함께 사는 지방 가족의 손자 정화갑을 주인공으로, 평범한 인물들을 통해 눈물과 웃음이 공존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드라마를 통해 토론을 이끌어내고 캐릭터를 구축하는데 성공했기에,

영화 역시 TV 드라마의 주요 캐릭터와 시골 코미디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시공간을 뛰어 넘는 판타지 요소를 가미하여 IP를 확장하고 다시 한 번 좋은 성과를 얻고자 했다. 하지만 성급하게 영화화하면서 드라마 캐릭터가 많아지고, TV 색깔이 너무 강해 예상만큼 흥행하지는 못했다. 그래도 1억 TWD를 돌파하면서 마무리해 IP 인기의 기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만 영화시장은 설 시즌 이후 침체되기 시작했다. 봄, 여름 시즌에는 청춘학원물 <유일종희환>(有一種喜歡)과 따뜻한 영화 <롱 타임 노 씨>(只有大海知道) 두 작품의 흥행성적이 괜찮은 편이었다. 이옥새, 필서진 두 젊은 아이돌을 내세운 <유일종희환>은 청소년을 주요 타겟으로 공략했지만, 진부한 설정과 투박한 화면으로 타겟 관객을 사로잡을 수 없었다. <롱 타임 노 씨>는 대만의 란위 섬의 원주민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도시-농촌의 격차와 문화 정체성 등의 주제를 탐색했다. 유명 배우는 없었지만 일반인 연기자들의 연기가 눈길을 끌었고, 입소문을 타 840만 TWD의 흥행수입을 거두었다. 여름방학 시즌 대만영화의 포문을 연 <귀신온천여관>(切小金家的旅館)은 린 관후이(林冠慧)가 처음으로 각본과 감독을 맡은 영화로, 2015년 금마장 FPP(The Golden Horse Film Project Promotion)에 선정된 작품이다. 영화는 호러 코미디의 옷을 입고 있지만 따뜻한 가족애와 우정을 그린 작품이다. 홍콩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린 관후이 감독은 홍콩스타 나가영, 주미미를 등을 기용했다. 영화 전반적으로

80, 90년대 홍콩 강시 코미디영화의 과장된 코믹요소가 스며들어있고, 미술디자인과 특수효과를 통해 다양한 판타지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독특한 스타일의 대만 공포영화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홍콩식 스타일과 블랙코미디는 요즘 대만 젊은 관객의 취향과 거리가 멀어 박스오피스 성적은 평범한 편이었다. 공포영화 <더 로프 커스>(粽邪)와 연속 흥행에 성공한 <마신자>(紅衣小女孩) 시리즈 모두 대만 민속 이야기에서 소재를 찾아 쉽게 문화적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목 매어 자살한 망자를 바다로 보낸다는 대만 연해지역 풍속에서 영감을 얻은 <더 로프 커스>는 신비하면서 금기시된, 로컬 특징이 강력한 소재에 도전하여 풍부한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게다가 '귀신의 달'인 음력 7월에 개봉해 영화에 대한 관객의 기대치를 높였다. 그 결과 개봉 후 약 5천만 TWD에 가까운 성적으로 여름방학 대만영화 흥행 1위를 차지했다. 2018년 *Back to the Good Times* 말고도 <투어>(鬥魚)와 *Spicy Teacher*(王牌教師麻辣出擊) 역시 드라마를 영화화한 작품인데, 이 두 작품은 공교롭게도 모두 원작 드라마와 십 수 년의 시차를 두고 개봉했다. <투어>는 드라마와 동명 타이틀을 사용했는데, 소설 『데이지』를 각색한 트렌디 드라마인 원작 드라마는 2004년 높은 시청률을 달성하면서 팬들에게 '대만판 <고혹자>(古惑仔)'라고 불렸고, 안이현, 광품초, 남정용 등 배우들이 이 드라마를 통해 인기를 얻게 되었다. *Spicy*





*Teacher*의 원작 드라마 『마날선사』(麻辣鮮師) 시리즈는 일본 만화 『GTO』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대만의 장수 학교·생활 드라마이며, 2000년 7월 방영을 시작해 3년 반 동안 방송되며 고정 시청자를 확보했고, 이후에도 소재와 타이틀이 유사한 속편 드라마들이 있었다.

<투어>와 *Spicy Teacher* 두 작품 모두 기존 스타프들이 예전 IP를 새롭게 포장하여 만든 영화였지만 <투어>는 관객의 사랑을 받은 반면 *Spicy Teacher*는 그렇지 못했다. <투어>는 원작 드라마의 프로듀서가 제작을 맡아 새로운 배우를 기용하고 시대 배경을 1987년으로 변경하면서도 내용은 여전히 같은 캐릭터들로 구성된 젊은 조폭의 이야기를 유지했고, 살벌하고 피비린내 나는 폭력성 수위는 영화에서 더욱 관대해지면서 다양한 세대의 관객을 끌어들이 대만 전역에서의 흥행수입 3천만 TWD를 돌파했다.

영화 <투어>는 드라마 버전에 대한 '경의'의 의미가 컸다. 하지만 제작규모 확대, 집약적 스토리, 원작 드라마 감독 가한진(柯翰辰)의 영화 감독 데뷔 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볼거리가 없었다. 그저 영화 마지막에 드라마 주연배우들이 카메오로 영화 속 인물의 15년 후 모습을 보여주며, 추억에 잠긴 팬들에게 깜짝 선물을 선사했을 뿐이다. *Spicy Teacher*는 산만한 줄거리와 정형적 인물, 참신한 아이디어가 빠진 IP 등으로 인해 힘을 쓰지 못했다.

2018년 11월까지 흥행수입 1천만 TWD의 문턱을 넘은 대만영화는 5편에 불과했다. 많은 기대를 받았던 <인폭점>(引爆點)과 <대범죄도시: 나쁜 녀석들>(狂徒)의 흥행수입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문화부에서 주최한 우수대본 대상수상작을 각색한 <인폭점>은 미스터리 자살 사건으로 시작되는데, 사건 조사 과정에서 환경보호와 지방 정경 유착 이슈를 이끌어냈지만, 간소화된 서사로는 복잡한 인간 본성과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보여주기에 부족했고, 심각하고 엄중한 주제 역시 관객에게 호소력을 가지지 못했다. <대범죄도시: 나쁜 녀석들>의 출현은 많은 대만 영화인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영화는 좌절한 젊은 스포츠스타가 의도하지 않게 은행강도와 손을 잡게 되면서 은행털이 후 도주를 계획하게 되는 내용이다. 대만에서 쉽사리 보기 힘든 액션 영화이지만, 처음으로 영화를 연출한 형 추슈안(洪鈺煊) 감독의 과거 단편영화 촬영 경험과 액션에 대한 연구, 무술감독 홍시호와 촬영을 맡은 진극근과 진지현, 주연배우 임철희, 오강인 등의 끊임 없는 액션 리허설과 카메라 위치 설정 등을 통해 거침 없는 액션과 속도감 넘치는 영화를 완성했고, 대만 특유의 배경 특징도 효과적으로 이용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영화의 홍보역량 부족으로 인해 열정적인 관객 반응은 일정 수준을 넘어설 수 없었고 할리우드의 액션 대작에 익숙해진 관객들에게는 너무 단순해 보였기 때문에, 흥행수입은 564만 TWD에 그쳤다.

<나의 Ex>(誰先愛上他的)는 2018년 입소문과 흥행을 모두 잡은 영화로, 타이페이영화제에서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수상했고, 뒤이어 열린 금마장에서는 여우주연상, 편집상, 영화음악상 등을 수상했다. TV 작가 출신의 맥 쉬(徐譽庭)는 이 영화의 공동 감독이면서, 작가 여시원과 공동으로 각본을 맡았다. 가족애와 동성애 소재를 결합한 영화는 반항적인 소년의 시점에서 출발한다. 병으로 세상을 떠난 그의 아버지가 생전의 동성 연인에게 자신의 보험금을 남기고, 이에 분노한 소년의 어머니는 그 상대를 찾아 정의를 실현하려 한다. 코미디 형식으로 소년과 어머니, 전처와 동성 연인 사이의 갈등에 완충 공간이 생기고, 관객으로 하여금 입장을 바꿔 각각의 입장을 생각해보게 한다.

<나의 Ex> 이후 개봉한 <모어 댄 블루>는 2018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박스오피스의 다크호스이다. 이 영화는 한국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를 리메이크한 영화로, 임효겸(林孝謙) 감독과 여안현 시나리오 작가가 한국 원작의 가장 완벽한 스토리 전환을 맡았는데, 남녀 주인공은 상대에 대한 사랑을 위해 묵묵히 슬픔을 참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한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원래 젊은 여성 직장인을 주요 홍보 타겟으로 설정했으나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특히 여자 중고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홍보

전략을 바꾼 사례다. Dcard, 인스타그램, Meteor 등 사용 연령층이 낮은 SNS를 중심으로 홍보를 진행하면서 정확히 타겟 관객을 공략했다. <모어 댄 블루>는 멜로드라마의 장르적 요소를 심분 발휘하여 높은 흥행수입을 올렸다.

<인면어: 저주의 시작>(人面魚：紅衣小女孩外傳)은 장르 영화의 특징과 IP 성공에 힘입어 흥행수입을 올렸다. 공포영화 <마신자> 시리즈는 대만의 시골 전설에서 '마신자' 이야기를 개발하면서 IP로 발전했다. <인면어: 저주의 시작>은 전작 두 편의 설정을 이어가면서 가정폭력, 멸문 등 사회 뉴스를 첨가했다. 아쉽게도 공포 분위기 조성과 홍보역량이 모두 약해져 흥행수입은 전작 두 편보다 못한 7,280만 TWD에 그쳤다.

2018년 대만영화의 상업적 성과를 살펴보면, 단지 기본 파이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흥행수입 상위 10위 작품 중 신인감독의 작품이 7편으로 영화계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고, 신선한 기운을 불어 넣었다. 독립제작 분야에서는 샤오 야첸(蕭雅全) 감독의 <파더 투 선>(范保德)과 호 위딩(何蔚庭) 감독의 <행복도시>(幸福城市) 등의 영화가 자신의 숙명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을 다루고 시대가 변화하는 상황에 주목하며, 예술적 창의력을 보여주었다.



#### 상 이페이

상 이페이는 대만을 기반으로 20년 이상 활동은 영화 저널리스트이다. 현재 News Mirror Weekly(鏡週刊)에서 저널리스트 겸 영화 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2009, 2010, 2011, 2016년에는 타이페이영화제에서 Press Award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 저널리스트 경력

News Mirror Weekly 2016-

United Daily News(聯合報) 1999-2016

Taiwan Daily News(臺灣日報) 1996-1999

Independent Evening Post(自立晚報) 1993-1996



# Taiwan Film Market Trend in 2018

2016 marks the lowest point for the Taiwanese film market since the recent 8 years. Finally in 2017, the market slowly recovered and in 2018, the market marked 20% growth. The main driving force that led the success to the Taiwanese local film market was the two Chinese New Year films with 100 million earnings and *More than Blue* (比悲傷更悲傷的故事) which was released at the end of the year. It finally brought a rising curve to the featureless box office results. Moreover, sequels, IP films, and typical genre films were widely loved by the public. This shows that film makers started to understand the process and ways of operation of commercial film production.

In 2018, only 5 Hollywood superhero films were included in the Taiwanese Box Office Top 10. Meanwhile, Taiwanese films held 10% of the market among Hollywood blockbusters. When the Lunar New Year started, Marvel's *Black Panther* was way ahead of the box office market and increased the gap between other films. However, *Gatao 2: Rise of the King* (角頭2：王者再起) and *Back to the Good Times* (花甲大人轉男孩) both earned more than 100 million TWD. *Gatao 2* is a sequel and *Back to the Good Times* is an IP film. Both films are produced based on an existing audience. The sequel *Gatao 2: Rise of the King* was released after 2 years and a half since *Gatao*. The two films share the same genre with completely different plots. *Gatao* which was released in summer 2015 emerged as a dark horse in the

market and grossed 80 million TWD. It also cultivated a new genre of gangster crime. The production company announced to make the sequel *Gatao 2: Rise of the King* and appoints YEN Cheng Kuo who featured in *Gatao* to make his directorial debut.

*Gatao 2: Rise of the King* is YEN Cheng Kuo's directorial debut but he once was a child actor and a former gang member. Therefore, he was able to carefully capture the characters' involvement with conflict and their distress for having no control. In addition, with the help of Director of Photography YAO Hung I, a staff of HOU Hsiao Hsien, the film created face-to-face scenes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and added dramatic tension. *Gatao 2* received better reviews than *Gatao* and dominated the market with 127 million TWD during the New Year's Day season. The film's theme was 'bloody war' and 'one street the wrong way, hard to come back'.

*Back to the Good Times* is a theatrical version of TV drama *A Boy Name Flora A* (花甲男孩轉大人). First aired in 2017, the drama continuously received high viewer ratings which led Director CHU Yu Ning to produce the film with the staff from the original series. Adapted from the novel *The Sixty-Year-Old Boy* by YANG Fu Min, the TV drama focuses on the grandson CHENG Hua Chia from a local family where three generations live together. Through these ordinary characters, the producers created stories filled with tears and laughter. The drama was successful in leading discussions

and establishing characters. The film version also kept the main characters from the TV drama and countryside comedy features. Adding fantasy elements that transcend time and space, it advanced the boundaries of IP to achieve good results. However, the film did not do well as expected due to the hasty preparation of the film which created way too many characters and difficulty getting rid of the TV image. Yet, the film made over 100 million TWD and confirmed popularity of IP films.

After the New Year's Day season, the Taiwanese film market slides into recession. In the Spring and Summer, youth film on school life *About Youth* (有一種喜歡) and *Long Time No Sea* (只有大海知道) had pretty good box office results. Featuring Dino LEE and Bii, *About Youth* mainly targeted the young audience but didn't succeed due to typical setup and crude images. *Long Time No Sea* sets among the indigenous Tao community from Orchid Island in Taiwan and explores the theme of urban-rural gap and cultural identity. The film does not feature any famous actors but the non-professional actors drew everyone's attention. Mostly due to word-of-mouth, the film grossed nearly 8.4 million TWD. The first Taiwanese film released during the summer vacation season is *Secrets in the Hot Spring* (切小金家的旅館). This is LIN Kuan Hui's first time being in charge of the screenplay and directing. In 2015, the film was selected for FPP (The Golden Horse Film Project Promotion). It is a horror comedy

film but focuses on family love and friendship. Being strongly influenced by Hong Kong films, Director LIN casted LAW Kar Ying and CHU Mimi. Overall, the film is filled with exaggerated comic elements seen in 80s and 90s Hong Kong Jiangshi movies. Through production design and special effects, the film created various fantasy effects and turned into a unique Taiwanese horror film. However, the film did not score well at the box office due to lack of interest from today's Taiwanese younger audiences in Hong Kong style and black comedy. Horror film *The Rope Curse* (粽邪) and *The Ta-Along* (紅衣小女孩) series which has continuous hits received great cultural response by using the characters of the Taiwanese people. Inspired by a Taiwanese tradition that exists along the coastline of Taiwan - sending the deceased that committed suicide to the ocean, *The Rope Curse* became the topic of conversation as the film challenged a powerful theme filled with mysterious, yet forbidden, and local characteristics. The film was released in 'Ghost Month' - the seventh month of the Lunar Calendar and brought great expectations to the audience. As a result, the film grossed about 50 million TWD and took the top spot in box office for a Taiwanese film during the summer vacation season.

In 2018, besides *Back to the Good Times*, *The Outsiders* (鬥魚) and *Spicy Teacher* (王牌教師麻辣出擊) were also TV dramas that were made into a film. Both films happened to be released after decades since the original TV drama.



*The Outsiders* shares the same title with the TV drama, and it is an adaptation of a trendy drama called Daisy. Reaching its highest rating in 2004, fans referred the show as a Taiwanese version of the *Young and Dangerous* (古惑仔). Actors Ady An, Dylan Kuo, and Blue Lan received great popularity through the TV series. *Spicy Teacher* is based on the TV drama *Spicy Fresh Teacher* (麻辣鮮師) and influenced by Japanese manga *GTO*. One of the longest-running Taiwanese drama on school life, it started airing in July, 2000 until the next three and a half years and secured a strong fan base. Later a few more sequels were made with similar topics and titles. *The Outsiders* and *Spicy Teacher* both were IP films recreated by the original staff. However, everyone loved *The Outsiders* and not so much of *Spicy Teacher*. The original producer of the TV drama took charge of the production and casted new actors. In addition, even though he changed the setting to 1987, he kept the gangster stories and the same characters. In the film version, the level of violence was adjusted to be less bloody and gory. As a result, it attracted audiences of all generations and grossed over 30 million TWD across Taiwan. *The Outsiders* had huge respect to the TV drama version. However, despite of the expanded scale of production, intensive storyline, and directorial debut of the original TV drama director KE Han Chen, there was nothing new. Just a short surprise at the end of the movie to their fans lost in memories. The main cast appears to show what happened to the characters 15 years later.

Only 5 Taiwanese films grossed over 10 million TWD until November 2018. Even *High Flash* (引爆點) and *The Scoundrels* (狂徒) fell short of everyone's expectations. Adapted from the grand prize winner at the Best Script Competition hosted by Ministry of Culture, *High Flash* starts with a mysterious suicide case. During the investigation, it brings the issue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collusive ties between politicians and businessmen. However, the simplified narration could not capture the complicated human nature and relationships of politics and economy. Moreover, the serious and stern topic was not appealing the audience.

The release of the *The Scoundrels* made many Taiwanese moviemakers come to their senses. The film is about a frustrated young sports star who unwilling joined hands with a bank robber and starts planning an escape after they rob a bank. While action films are not quite common in Taiwan, Director HUNG Tzu Hsuan took the megaphone for the first time and incorporated his filming experience when making shorts along with his in-depth study on action films. With endless action rehearsals and various camera positions from Martial Arts Director HONG Shi Hao, Director of Photography CHEN Chih Hsuan and CHEN Ko-Chin, and actors LIN J.C., WU Kang Ren, the film turned into an amazing thrilling action film. They also made effective use of the scenery unique to Taiwan. However, unfortunately, lack of publicity, responses from the audience did not exceed certain level and the film seemed a little too bland compared to the Hollywood action blockbusters. The film only made around 5.64 million TWD.

*Dear Ex* (誰先愛上他的) released in 2018, was both successful in spreading the word and in the box office. The film received awards in 4 categories including Best Picture at the Taipei Film Festival, and won Best Leading Actress, Best Film Editing, Best Original Film Score at the Golden Horse Awards. Mag HSU, former writer for TV, co-directed and co-wrote with writer LU Shih Yuan. Dealing with themes such as family love and homosexuality, the film is seen from the viewpoint of a rebellious boy. His father dies from an illness and leaves all his insurance money to his homosexual partner. Furious, his mother searches for this homosexual partner to bring justice. Comic elements are used to display the conflict between the boy and the mother, the ex-wife and the homosexual partner. In addition, every conflict creates a space where it permits the audience to put themselves in their positions. *More than Blue* which was released after *Dear Ex*, is the box office's dark horse and received the most attention in 2018. It is a remake of the Korean film of the same title *More than Blue*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Director Gavin LIN and Screenwriter Hermes LU did their best to perfectly bring the original story. The film drew tears from the audience as it displayed how the two main characters endured sadness for love. An interesting fact is that the film originally targeted young female professionals but the results of a 'blind test'

reports that the film attracted junior high and high school girls. The marketing strategy was completely revised and proceeded with advertisement using social media for younger age groups such as Dcard, Instagram, and Meteor.

*More than Blue* cleverly uses 10 minutes of the melodrama genre and results in high box office sales.

The *Tag-Along: Devil Fish* also received great box office profits supported by genre film features and the success of IP film. Horror film *The Tag-Along* series developed into an IP film by evolving the Taiwanese urban legend into 'The Tag-Along' story. *The Tag-Along: Devil Fish* follows the setting of the previous two films and included social issues such as domestic violence and destruction of all one's kinfolk. Unfortunately, lack of horror elements and publicity resulted in lower box-office profits than the previous two films. The film grossed about 72.80 million TWD.

When looked at the commercial success of Taiwanese film in 2018, 7 films from the box office top 10 were produced by new directors. By keeping the core, this also incubated new talent and brought fresh air to the film industry. Independent production included *Father to Son* by HSIAO Ya Chuan and *Cities of Last Things* by HO Wi Ding. Both films display artistic creativity by dealing with characters fighting their destiny and fast-changing times.



#### HSIANG Yi Fei

HSIANG Yi Fei has worked as the film journalist over 20 years in Taiwan and now works for *News Mirror Weekly* as the journalist and the film critics. She was invited as the jury member of Taipei Film Festival's Press Award in 2009, 2010, 2011, and 2016.

#### As Journalist

*News Mirror Weekly* 2016–

*United Daily News* (聯合報) 1999–2016

*Taiwan Daily News* (臺灣日報) 1996–1999

*Independent Evening Post* (自立晚報) 1993–1996

일본  
JAPAN

# Figures of Top 10 Films in Japan Box Office

Motion Picture Producers Association of Japan, Inc. [www.eiren.org/boxoffice\\_e](http://www.eiren.org/boxoffice_e)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Local)	Gross(USD)	제작사 Production	배급사 Distribution
보헤미안 랍소디	Bohemian Rhapsody	브라이언 싱어	Brian SINGER	미국	USA	드라마	Drama	JPY 10,460,000,000	USD 94,757,140	20th Century Fox	20th Century Fox
극장판 코드블루 -닥터 헬기 긴급 구명-	Code Blue the Movie	니시우라 마사키	NISHIURA Masaki	일본	Japan	드라마	Drama	JPY 9,300,000,000	USD 84,248,700	Fuji Television Network	Toho Company
명탐정 코난: 제로의 집행인	Detective Conan: Zero the Enforcer	타치카와 유즈루	TACHIKAWA Yuzuru	일본	Japan	애니메이션	Animation	JPY 9,180,000,000	USD 83,161,620	TMS Entertainment	Toho Company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	Jurassic World: Fallen Kingdom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Juan Antonio BAYONA	미국	USA	액션	Action	JPY 8,070,000,000	USD 73,106,130	Amblin Entertainment	Toho-Towa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Star Wars: The Last Jedi	라이언 존슨	Rian JOHNSON	미국	USA	액션	Action	JPY 7,510,000,000	USD 68,033,090	Walt Disney Pictures	Walt Disney Studios Japan
극장판 도라에몽: 친구의 보물섬	Doraemon The Movie: Nobita's Treasure Island	이마이 카즈아키	IMAI Kazuaki	일본	Japan	애니메이션	Animation	JPY 5,370,000,000	USD 48,646,830	Shin-Ei Animation	Toho Company
위대한 쇼맨	The Greatest Showman	마이클 그레이시	Michael GRACEY	미국	USA	드라마	Drama	JPY 5,220,000,000	USD 47,287,980	Chernin Entertainment	20th Century Fox
코코	Coco	리 언크리치	Lee UNKRICH	미국	USA	애니메이션	Animation	JPY 5,000,000,000	USD 45,295,000	Walt Disney Pictures	Walt Disney Studios Japan
인크레더블2	Incredibles 2	브래드 버드	Brad BIRD	미국	USA	애니메이션	Animation	JPY 4,900,000,000	USD 44,389,100	Walt Disney Pictures	Walt Disney Studios Japan
미션 임파서블 : 폴아웃	Mission: Impossible – Fallout	크리스토퍼 맥쿼리	Christopher McQUARRIE	미국	USA	액션	Action	JPY 4,720,000,000	USD 42,758,480	Skydance Media	Towa Pictures

# Figures of Top 10 Films in Domestic Box Office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Local)	Gross(USD)	제작사 Production	배급사 Distribution
극장판 코드블루 -닥터 헬기 긴급 구명-	Code Blue the Movie	니시우라 마사키	NISHIURA Masaki	일본	Japan	드라마	Drama	JPY 9,300,000	USD 94,757,140	20th Century Fox	20th Century Fox
명탐정 코난: 제로의 집행인	Detective Conan: Zero the Enforcer	타치카와 유즈루	TACHIKAWA Yuzuru	일본	Japan	애니메이션	Animation	JPY 9,180,000	USD 84,248,700	Fuji Television Network	Toho Company
극장판 도라에몽: 친구의 보물섬	Doraemon The Movie: Nobita's Treasure Island	이마이 카즈아키	IMAI Kazuaki	일본	Japan	애니메이션	Animation	JPY 5,370,000	USD 83,161,620	TMS Entertainment	Toho Company
어느 가족	Shoplifters	고레에다 히로카즈	KORE-EDA Hirokazu	일본	Japan	드라마	Drama	JPY 4,550,000	USD 73,106,130	Amblin Entertainment	Toho-Towa
은혼2: 규칙은 깨라고 있는 것	GINTAMA 2: Rules are Made to be Broken	후쿠다 유이치	HUKUDA Yuichi	일본	Japan	코미디	Comedy	JPY 3,700,000	USD 68,033,090	Walt Disney Pictures	Walt Disney Studios Japan
운명	DESTINY: The Tale of Kamakura	야마자키 다카시	YAMAZAKI Dakashi	일본	Japan	드라마	Drama	JPY 3,210,000	USD 48,646,830	Shin-Ei Animation	Toho Company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One Cut of the Dead	우에다 신이치로	UEDA Shinichiro	일본	Japan	공포	Horror	JPY 3,120,000	USD 47,287,980	Chernin Entertainment	20th Century Fox
극장판 포켓몬스터 모두의 이야기	Pokémon the Movie: The Power of Us	야지마 테츠오	YAZIMA Tetsuo	일본	Japan	애니메이션	Animation	JPY 3,090,000	USD 45,295,000	Walt Disney Pictures	Walt Disney Studios Japan
검찰측의 죄인	Killing for the Prosecution	하라다 마사토	HARADA Masato	일본	Japan	미스터리	Mystery	JPY 2,960,000	USD 44,389,100	Walt Disney Pictures	Walt Disney Studios Japan
미래의 미라이	MIRAI	호소다 마모루	HOSODA Mamoru	일본	Japan	애니메이션	Animation	JPY 2,880,000	USD 42,758,480	Skydance Media	Towa Pictures





# 2018 일본 영화산업 동향

전체 합계만 봤을 때는 딱히 희망적인 수치라고 할 순 없다. 그러나 개별 작품에 주목하면 몇 가지 희망적인 징후가 보인다. 이 징후를 통해 2018년 일본영화 시장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일본영화와 외국영화를 합친 2018년 영화 전체 흥행수익은 2,225억 1,100만 엔이었다. 2017년보다 약 3% 감소하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재작년인 2016년에 2,355억 8백만 엔이라는 역대 최다 흥행수입을 거뒀기 때문에, 2018년은 지금까지의 성적을 고려했을 때 그리 나쁜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게다가 일본영화 업계가 흥행수익을 발표하기 시작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2000년대부터이며 그전까지는 배급 수입 수치만 발표했었다).

한편, 2018년도에 개봉한 영화 편수는 외국영화를 포함하면 총 1,192편으로, 공식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55년 이래 가장 많은 개봉 편수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한 편당 평균 흥행수익의 감소 추세는 전체 흥행수익의 감소 폭보다 크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일본영화와 외국영화의 흥행수익 비율은 54.8% 대 45.2%로, 일본영화 점유율이 해외 영화를 가까스로 웃돌았다. 그러나 이처럼 일본영화의 점유율이 55%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1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외국영화가 우세했으나 2008년부터 일본영화가 우세해지기 시작했다. 이후 11년 연속으로 일본영화의 점유율은 50%를 넘긴 했으나, 더는 여유롭게 바라만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실제로 외국영화를 포함한 2018년 개봉 작품 가운데 흥행수익 TOP10 안에 일본영화는 세 편 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본영화와 외국영화를 합친 전체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은 미국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였다(11월 일본에서 개봉한 이 영화는 일본영화제작자연맹이 2018년 흥행 통계를 발표한 2019년 1월 말 기준 104억 6천만 엔을 기록했다). 2위와 3위가 일본영화로, 2위가 90억 엔 대의 수익을 올린 <극장판 코드 블루-닥터 헬기 긴급 구명>, 3위가 <명탐정 코난: 제로의 집행인>이었다. 그리고 50억 엔 대의 수익을 기록한 일본영화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보물섬>이 6위를 차지했다. <코난>과 <도라에몽>은 모두 2017년에 전작이 크게 히트한 인기 애니메이션 시리즈다. <명탐정 코난: 제로의 집행인>의 흥행수익은 91억 8천만 엔이었는데, 전작인 <명탐정 코난: 진홍의 연가>의 68억 9천만 엔보다 수익이 상당히 증가한 부분에 주목하고 싶다. <도라에몽>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전작인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남극 공공 대모험>의 44억 3천만 엔에서 이번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보물섬>은 53억 7천만 엔을 기록하며 흥행수익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 두 인기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앞으로도 매년 제작될 것이고 연간 흥행수익에서도 상위를 차지할 것이다.

실사 영화인 <극장판 코드 블루-닥터 헬기 긴급 구명->을 포함한 이 세 작품 모두 도호(東寶)에서 배급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도호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인다는 사실은 최근 일본영화 시장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은 작년에도 변함이 없었다. 다만 작년에는 도호의 기세가 살짝 기울었다는 점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메이저급 일본영화의 경우, 흥행수입 10억 엔 미달이면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년 도호가 배급한 일본영화 편수는 타사와의 공동 배급작 2편을 포함한 총 33편으로, 그 가운데 무려 16편이나 10억 엔 미달을 기록했다. 그중 한국 영화를 리메이크한 <써니: 강한 마음, 강한 사랑>도 들어간다. 연간 배급 작품의 약 절반이 10억 엔 이하라는 사실은 이례적이다. 또한 기획 내용에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점도 눈에 띈다. 2017년은 업계에서 유일한 승자로 오랫동안 군림해온 도호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확인한 한 해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세 작품의 흥행 덕분에 모든 실패를 만회했다는 점 역시 도호의 저력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작년 '메이드 인 아시아(Made in Asia)' 카탈로그에서 2017년도 일본영화 시장을 분석했을 때, 흥행수익 상위 영화와 평론가가 평가한 상위 영화와 하나도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일본 영화계의 또 다른 과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18년 역시 흥행수익 TOP10에 들어간 일본영화 3편을 보면 이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영화 평론가 및 저널리스트 60인이 각자의 BEST10을 선정한 후 투표한 '키네마 준보 BEST10'의 결과를 보면 <극장판 코드 블루-닥터 헬기 긴급 구명->과 <명탐정 코난: 제로의 집행인>, 그리고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보물섬>에 투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 작품의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이 나돈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표도 획득하지 못한 데는 평론가와 저널리스트들이 이 작품에 투표하고자 하는 동기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본다. 다시 말해, 가장 안전한 일본 메이저급 영화 제작법이라고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기존 인기 시리즈, TV 드라마나 만화, 소설의 영화화와 같은, 소위 주류적 방식을 철저히 적용하여 제작한 이들 작품에 대해 평론가들은 칭찬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한, 작년에는 생각지도 못한 대박을 터트린 일본영화가 있었다는 사실에도 주목하고 싶다. 흥행수입 TOP10에는 아쉽게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일본영화만을 대상으로 한 TOP10에서 4위를 차지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과 7위를 기록한 우에다 신이치로 감독의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작품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일본영화의 전형적인 히트작 생산 방식에서 벗어난 작품이었다. 애니메이션이 아님은 물론, 둘 다 도호 배급이 아니라는 점, 인기 소설이나 TV 드라마 및 만화를 영화화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인기 시리즈 영화의 최신판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 이 두 작품은 감독이 구현하고 싶은 오리지널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획되었다(엄밀히 말하면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의 경우, 감독에게 영감을 제공한 원안 희곡이 존재한다. 그러나 거의 알려지지 않은 희곡이며 인기 희곡을 원작으로 영화화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TOP10에 들어갈 정도로 크게 성공한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분위기의 일본 영화계에 다양성과 도전 의식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이 두 작품은 단순히 운이 좋아 히트한 것이 아니다. <어느 가족>은 고레에다 히로카즈라는 감독의 높은 인지도와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이 큰 영향을 끼쳤다.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는 원래 2017년 11월에 제한적 상영으로 개봉했다. 하지만 개봉 후 평이 좋아 2018년 상반기부터 일본 국내외 영화제에서 상영되기 시작했고, 연이은 호평을 바탕으로 6월에 본격적으로 로드쇼를 펼쳤다. SNS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입소문을 타고 점차 관객 수가 증가했다. 작품이 훌륭하면 관객은 보러 온다는 정론을 이 두 작품이 다시 한번 일본 영화인들에게 상기시켜주었다. 참고로 '키네마 준보 BEST10'에서도 <어느 가족>이 1위를,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가 17위를 차지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화제작사인 후지TV도 작년에 큰 각광을 받았다. 일본영화 흥행수익 1위를 차지한 <극장판 코드 블루-닥터 헬기 긴급 구명->을 만든 것도, '키네마 준보 BEST10'에서 1위를 기록한 <어느 가족>을 만든 것도 다 후지TV였기 때문이다(둘 다 타사와의 공동 제작임). 인기 TV 드라마를 영화화한 전자는 일본영화의 히트작 제조 방식에 대입해 제작 및 홍보를 진행했고, 후자는 고레에다 감독의 개성과 오리지널리티를 존중한 제작과 홍보 방식을 관찰했다. 올해도 <날아라 사이타마>가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두며 후지TV가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

끝으로, 작년에는 저명한 일본 감독들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이와이지, 이누도 잇신, 다키타 요지로, 가네코 슈스케와 같은 감독들이 작년에 중국에서 새로운 작품을 완성했거나 현재까지 제작 중이다. 옛날에는 한국 감독들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두드러졌으나,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 영화인이 중국에서 환영 받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을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한동안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테루오카 소조

아시아영화 전문가로서 도쿄 도립대학, 이케부쿠로 대학의 교수 및 도쿄국제영화제의 아시아영화 수석프로그래머 등의 경력을 갖고 있다. 홍콩영화제, 금마장 등 유수의 국제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로 활동해왔으며 『키네마준보』와 『피아』 등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현재 오사카아시아영화제의 프로그램 디렉터이다.



# Japan Film Market Trend in 2018

When looked at the total gross, it is not a hopeful figure. However, when looked at each individual work, it shows some hopeful signs. Through these signs, we will analyze the overall 2018 Japanese film market.

The total box office earnings for all 2018 Japanese and foreign films was 222.511 billion JPY. This is a 3% decrease than 2017 showing a decline for two years in a row. Since it hit an all-time box office earnings of 235.58 billion JPY in 2016, considering the results so far in 2018 is not that bad. (In addition, the Japanese film industry started announcing the box office earnings not until 2000 and only presented the distribution revenue figures in the past.) Meanwhile, the total number of films released in 2018 including foreign films are 1,192 films, and this was the largest number of releases since 1955 when it began calculating the official statistics. It can be inferred from this that the decreasing trend of average box office earnings per film is larger than the drop of the total box office earnings.

The box office earnings ratio of Japanese films and foreign films accounted for 54.2% to 45.2% and the share of Japanese films barely exceeded foreign films. However, it is the first time since 2011 for the share of Japanese films to drop below 55%. Foreign films were outnumbered in the early 2000 but Japanese films started to have an upper hand from 2008. For the next 11 years in a row, the share of Japanese films exceeded 50%, but they no longer have time to spare.

Among the films released in 2018 including foreign films, only three Japanese films are included in the box office earnings TOP 10. From the overall ranking of Japanese films and foreign films, American film *Bohemian Rhapsody* ranked number one. (This film was released at the end of November, recorded 10.46 billion JPY at the end of January 2019 when the Federation of Japanese Films Industry announced the 2018 box office statistics. Second and third place were both Japanese films. Second place was *Code Blue* with earnings of 9 billion JPY and third place was *Detective Conan: Zero the Enforcer*. Japanese film *Doraemon the Movie: Nobita's Treasure Island*, brought earnings of 5 billion JPY and ranked sixth place.

'*Conan*' and '*Doraemon*' are both popular animation series which their first film was a huge hit in 2017. *Detective Conan: Zero the Enforcer* brought box office earnings of 9.18 billion JPY, a significant increase in earnings than *Detective Conan: Crimson Love Letter* which brought 6.89 billion JPY. '*Doraemon*' displayed a similar trend. The first film *Doraemon: Nobita and the Great Adventure in the Antarctic Kachi Kochi* brought box office earnings of 4.43 billion JPY and its sequel *Doraemon the Movie: Nobita's Treasure Island* dramatically increased to 5.37 billion JPY. These two popular animation series will continue to be produced every year and will always rank high in annual box office earnings. These three films including live-action film *Code Blue* all have been distributed by Toho. The fact that Toho has an overwhelming market share is a unique feature of recent Japanese film market which remains the same as last year. However,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fact that the spirit of Toho has been slightly flagged.

In case of major Japanese films, it is common to consider it a failure if the box office earnings are less than 1 billion JPY. Last year, the total number of Japanese films Toho distributed was 33 films including 2 co-distributed with another company. Among them 16 films made less than 1 billion JPY. This includes a Korean film remake *Sunny: Strong Mind Strong Love*. It is unprecedented that half of the films distributed annually brings below 1 billion JPY. Also, it is noticeable that the production contents lack fresh ideas. 2017 was the year that Toho, the only winner in the industry dominating the market for the longest period, identified the challenges to be solved in the future. Nevertheless, the fact that they recovered from all failures thanks to the above mentioned three films shows the power of Toho.



However, when analyzing the 2017 Japanese film market from last year's 'Made in Asia' catalog, the top box office earnings and the top films by critics did not overlap and it was pointed out to be another challenge for the Japanese film industry. When looked at the three Japanese films that includes in the 2018 box office earnings TOP10, the same issue continu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Kinema Junpo BEST10', BEST10 selected and voted by 60 Japanese well-known critics and journalists, no one voted for *Code Blue*, *Detective Conan: Zero the Enforcer*, or *Doraemon the Movie: Nobita's Treasure Island*. Even though these films did not receive any bad reviews of the work being notably poorly made, but to received zero votes, it is presumed that the critics and journalists had no motive to vote for these films. In other words, critics may think they do not have to compliment work produced by the so-called mainstream way, the safest Japanese major film production such as animation films, existing popular series, TV drama or manga, film version of the novel, etc.

In addition, we want to take note on the Japanese films last year that brought unexpected hit. These films did not make the box office earnings TOP10, but *Shoplifters* by director KORE-EDA Hirokazu ranked fourth and *One Cut of the Dead* by director UEDA Shinichirou ranked seventh in the Japanese films TOP10. Both films were different from the typical Japanese hit production method in many ways. They are not animation films, not distributed by Toho, not a film version of a popular novel, TV drama, or manga, not the latest version of a popular movie series. Both films were produced and based on the original idea of the director (Strictly speaking, in the case of *One Cut of the Dead*, there exists the original play that gave inspiration to the director. However, the play is little-known and basically different from turning a popular play into a movie.) Nonetheless, the fact that these films made it to the TOP10 will give an opportunity to instill diversity and a sense of challenge in the conservative Japanese film industry.

Of course, these two films are not just a lucky hit. *Shoplifters*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 high profile of director KORE-EDA Hirokazu and winning the Golden Palm at the Cannes Film Festival. *One Cut of the Dead* was originally released in November 2017 with limited screening. However, it received great reviews after the release, so it started screening at domestic and foreign film festivals from the first half of 2018 and the road show was officially launched in June after a series of favorable comments. The number of audiences gradually increased through word-of-mouth as it caused sensation on SNS. The two films once again reminded the Japanese moviegoers that if the work is good, the audience will come to see it. For reference, *Shoplifters* ranked first and *One Cut of the Dead* ranked 17th on 'Kinema Junpo BEST10' and received high praise.

Film production company Fuji TV also received the spotlight last year. It was Fuji TV that produced *Code Blue* which was ranked top in Japanese box office earnings and *Shoplifters* which ranked top in 'Kinema Junpo BEST10' (Both were co-produced with other companies). *Code Blue*, the film version of a popular TV drama, applied the Japanese hit production method and proceeded with the production and promotion.

Fuji carried out the production and promotion method that respects director KORE-EDA's personality and originality. This year, with the unexpected success of *Fly Me to Saitama*, once again Fuji TV received a lot of attention. In conclusion, we would like to point out the striking phenomenon of well-known Japanese directors relocating to China last year. Directors like IWAI Shunji, INUDO Isshin, TAKITA Yojiro, KANEKO Shusuke have completed their new work last year or currently in production in China. In the past, many Korean directors relocated in China but the issue of THAAD has worsened Korea-China relations and rather Japanese filmmakers were more welcomed by China. We need to look carefully for a while to determine whether this trend will continue or will be just a temporary phenomenon.



**TERUOKA Sozo**

He is a lecturer in Asian Films at Nihon University and Ikebukuro Community College, and worked as the programming director for the Toky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ong Kong Film Festival, Taipei Golden Horse Film Festival and others. As the film critic, he is writing for the *Kinema Jumbo*, PIA and others. He is currently a programming director of Osaka Asian Film Festival.

태국  
THAILAND

Made in  sia



# Figures of Top 10 Films in Thailand Box Office

Donsaron Kovitvanitcha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Local)	Gross(USD)	제작사 Production	배급사 Distribution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Avengers: Infinity War	안소니 루소, 조 루소	Anthony RUSSO, Joe RUSSO	미국	USA	액션	Action	THB 430,000,000	USD 13,287,000	Marvel Studios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	Jurassic World: Fallen Kingdom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Juan Antonio BAYONA	미국	USA	액션	Action	THB 286,000,000	USD 8,837,400	Amblin Entertainment	United International Pictures
아쿠아맨	Aquaman	제임스 완	James WAN	미국	USA	액션	Action	THB 255,000,000	USD 7,879,500	Warner Bros. Pictures	Warner Bros. Pictures
블랙 팬서	Black Panther	라이언 쿠글러	Ryan COOGLER	미국	USA	액션	Action	THB 207,000,000	USD 6,396,300	Marvel Studios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Nakee 2	Nakee 2	퐁파트 와치라번종	Pongpat WACHIRABUNJONG	태국	Thailand	판타지	Fantasy	THB 161,190,000	USD 4,980,771	Act-Art Generation	M Pictures
쥬만지: 새로운 세계	Jumanji: Welcome to the Jungle	제이크 캐스단	Jake KASDAN	미국	USA	액션	Action	THB 150,000,000	USD 4,635,000	Columbia Pictures	United International Pictures
브라더 오브 더 이어	Brother of the Year	위타야 통유용	Vithaya THONGYUYONG	태국	Thailand	코미디	Comedy	THB 146,450,000	USD 4,525,305	GDH 559	GDH 559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	Fantastic Beasts: The Crimes of Grindelwald	데이빗 예이츠	David YATES	미국	USA	모험	Adventure	THB 141,000,000	USD 4,356,900	Warner Bros. Pictures	Warner Bros. Pictures
베놈	Venom	루벤 플레셔	Ruben FLEISCHER	미국	USA	액션	Action	THB 135,000,000	USD 4,171,500	Columbia Pictures	Sony Pictures Releasing
앤티맨과 와스프	Ant-Man and the Wasp	페이튼 리드	Peyton REE	미국	USA	액션	Action	THB 131,000,000	USD 4,047,900	Marvel Studios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 Figures of Top 10 Films in Domestic Box Office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Local)	Gross(USD)	제작사 Production	배급사 Distribution
Nakee 2	Nakee 2	퐁파트 와치라번종	Pongpat WACHIRABUNJONG	태국	Thailand	판타지	Fantasy	THB 161,190,000	USD 4,980,771	DO Entertainment	M Pictures
브라더 오브 더 이어	Brother of the Year	위타야 통유용	Vithaya THONGYUYONG	태국	Thailand	코미디	Comedy	THB 146,450,000	USD 4,525,305	GDH 559	GDH 559
바이크맨	Bikeman	프렉사 아마루지	Prueksa AMARUJI	태국	Thailand	코미디	Comedy	THB 67,110,000	USD 2,073,699	M Pictures	M Pictures
홈스테이	Homestay	팍퐁 왕퐁	Parkpoom WONGPOOM	태국	Thailand	드라마	Drama	THB 66,750,000	USD 2,062,575	GDH 559	GDH 559
레전드 오브 무에타이: 9 사트라	The Legend of Muay Thai: 9 Satra	퐁사 콘스리, 닛 요스와타난논트, 군 판수원	Pongsa KORNTRI, Nat YOSWATANANONT, Gun PHANSUWON	태국	Thailand	애니메이션	Animation	THB 52,630,000	USD 1,626,267	Exformat Films	M Pictures
Khun Bun Lue	Khun Bun Lue	펏타이 왕캄라오	Petchtai WONGKAMLAO	태국	Thailand	코미디	Comedy	THB 46,520,000	USD 1,437,468	M Pictures	M Pictures
쿤 판2	Khun Phan 2	콩키앗 콤시리	Kongkiat KHOMSIRI	태국	Thailand	액션	Action	THB 44,510,000	USD 1,375,359	Sahamongkol Film International	Sahamongkol Film
Thi Baan The Series 2.2	Thi Baan The Series 2.2	수라삭 풍손	Surasak PONGSON	태국	Thailand	코미디	Comedy	THB 33,400,000	USD 1,032,060	Serng Production	Serng Production
How Taew Tak 6	How Taew Tak 6	포이 아논	Poj ARNON	태국	Thailand	호러	Horror	THB 27,590,000	USD 852,531	Film Guru	Movie Hero
더 풀	The Pool	핑 롱프랍플렝	Ping LUMPRAPLENG	태국	Thailand	코미디	Comedy	THB 27,170,000	USD 839,553	Dark Army Studio	T Moment



# 2018 태국 영화산업 동향

2018년은 태국 주류 영화계가 변화를 이룬 한 해였다. 특히 내륙 지방에서 태국 영화의 흥행 수입이 증가하고, 방송계에서 온 신인들이 성공을 거두었다.

2018년 영화관에서 개봉한 태국 영화가 50편이었는데, 2018년 태국 영화의 총 흥행 수입은 8억3,900만 THB로 전체 시장의 18.3%에 달한다. 2018년 태국 영화의 시장점유율은 10%에 불과했던 2017년보다 더 좋은 성적이다.

10월 18일 태국의 영화관에서 *Nakee 2*가 공개 됐을 때, 이 영화가 1억 6,119만 THB의 흥행 수입을 올리며 2018년 가장 성공적인 태국 영화가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Nakee*는 채널 3에서 방영된 인기 텔레비전 시리즈로, 2017년 한 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소설을 원작으로 하였으며 '나키'라고 불리는 고대 뱀의 혼령에 홀린 태국의 북동부 지역 남녀의 사랑을 다룬다. 이 시리즈의 감독인 풍팻 와치라본존은 <미, 마이셀프>나 <해피 버스데이> 등의 영화를 연출한 베테랑 감독 겸 배우다. 최근 그는 채널 3의 텔레비전 시리즈를 제작, 연출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대부분의 대사가 북동부 지역 방언(태국어 자막 표기)인 이 시리즈는 특히 많은 북동부 지역의 시청자를 끌어들이 수 있다.

채널 3는 이 텔레비전 시리즈의 성공에 힘입어 속편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는데, 풍팻을 장편 영화의 감독으로 결정했다. 이 영화는 프라이트 말리논(채널3 전 상무), 서치엔터테인먼트(채널3 방송 프로그램 독점 제작사), DO엔터테인먼트(풍팻과 부인 타나 와치라본존 소유 제작사)가 제작하고, M 픽처스가 배급했다. 이 영화에는 태국의 슈퍼스타 나덱 쿠기미야(<차오프라야의 석양>)와 우랏야 세뽀반이 주연을 맡고, 원작 텔레비전 시리즈에서 커플로 출연한 나타톤 테미락와 푸품 풍파누도 함께 출연한다.

인기 텔레비전 시리즈의 영화화는 태국 영화계에서는 드문 일이지만, *Nakee 2*의 엄청난 성공은 일본과 몇몇 국가에서 효과를 거둔 이 사업 모델이 태국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채널 3는 자신들의 인기 텔레비전 시리즈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영화를 제작할 계획이다.

2018년 *Nakee 2* 등의 흥행으로 M 픽처스가 태국 영화 산업의 최대 주역이 된 것은 분명하다. 2018년 태국의 흥행 상위 영화 10편 중 절반이 M 픽처스 작품이다.

프룩사 아마루지 감독의 <바이크맨>은 M 픽처스와 워크포인트 엔터테인먼트의 첫 번째 공동 작업이다. 이전 *Cat a Wabb*과 같은 작품에서 사하몽콜 필름과 작업을 한 적 있는 워크포인트는 32. *decembar*나 *Loser Love* 등의 흥행작을 만든 렉차이 퍼웅팻의 프로덕션인 랄루크 프로덕션과 <바이크맨>을 제작했다. GTH의 영화를 통해 관객들에게 얼굴이 익숙한 배우 파차라 치라티왓을 캐스팅한 이 영화는 6,711만 THB의 흥행 수입으로 올해 세 번째로 성공한 영화가 되었다.

<레전드 오브 무에타이: 9 사트라>는 엑스포맷필름이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 M 픽처스가 역시 태국의 배급권을 가져갔다. 이 영화는 5,263만 THB를 벌며 관객과 일부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았지만, 2억 THB에 달하는 제작비는 회수하기는 어려웠다.

태국의 가장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영화감독인 팻타이 웅캄라오(a.k.a. 뎀 쪽묵)도 사하몽콜필름을 떠나 M 픽처스에 합류한 또 다른 영화인이다. 2018년 팻타이는 M 픽처스에서 *Khun Bun Lue*을 감독, 제작하였다. 팻타이가 주연으로 출연하기도 한 이 코미디 영화는 4,652만 THB를 벌었는데, 이는 팻타이가 사하몽콜을 위해 만든 *The Bodyguard*나 *Hello Yasothorn*과 같은 영화의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요즘의 태국 영화로서는 그리 나쁘지 않다.

M 픽처스는 랑싯대학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Krut: The Himmaphan Warriors*도 배급했다. 이 영화는 1,071만 THB의 수익을 올렸으나, 고예산 장편 애니메이션으로는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

M 픽처스, 트루 아이콘 텐트, 방콕 필름 스튜디오, 매칭 스튜디오플러스의 합작사인 트랜스포메이션필름은 위시트 사사나티엥(<검은 호랑이의 눈물>)의 신작인 <리자이드> 단 한 편을 제작했다. <셔터>의 영화 속 커플 아난다 에버링엄과 나타위라눗 통미가 출연하는 저예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불과 405만 THB를 벌어들여 제작비도 회수하지 못했다. 트랜스포메이션필름은 3,900만 THB를 벌어들인 2019년 작품 <크라수예: 인휴먼 키스> (시티시리 몽콜시리 감독)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2018년에는 CJ메이저 엔터테인먼트의 작품은 없었지만, 2019년에는 위랏 행공디 감독(*Super Salaryman*)의 *Our Love Forever*, <번지 점프를 하다>의 리메이크인 추키아트 사크위라를 감독(<13>, <시암의 사랑>)의 *That March*, <클래식>의 리메이크인 타차퐁 수파스리 감독의 *Classic Again*까지 세 편의 영화를 준비 중이다.

포이 아논은 2018년 <농담 재즈 5G>, *How Taew Tak 6*, *Last Heroes* 세 편의 영화를 보유하여 가장 생산적인 태국 영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작품들은 메이저 씨네플렉스가 자금을 지원하고 M-39와 M픽처스가 배급을 맡았다. 2016년 큰 인기를 끌었던 <농담 재즈 4G>의 속편인 <농담 재즈 5G>는 2018년 1,840만 THB의 흥행 수입으로 완전 실패작이 되었다. *Last Heroes*는 200년 전 아유타야 시대에 왕국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서 싸워야 했던 트랜스젠더 그룹에 대한 서사적인 코미디 영화이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1,915만 THB를 벌었을 뿐이다.

포이 아논 감독의 트랜스젠더 코미디 영화 *How Taew Tak*의 여섯 번째 시리즈인 *How Taew Tak 6*는 2018년 태국 영화 매출 상위 10위 안에 든 포이 아논의 유일한 작품이다. 이 영화는 2,759만 THB를 벌어들였는데, *How Taew Tak* 시리즈 중 가장 성공하지 못한 작품이 되었다. 감독에 따르면 이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이 될 것이다.

비록 기대했던 수준의 성공은 아닐지라도 2018년은 GDH에게 또 다른 좋은 해였다. 8년 간의 공백 끝에 최신작 <브라더 오브 더 이어>로 돌아온 위타야 통유용 감독(<내 여자친구>, *The Little Comedian*)은 이 작품에서 GDH의 단골 배우인 씨니 수완메타논과 본 영화로 장편 데뷔를 한 우랏야 세뽀반과 함께 작업했다. <브라더 오브 더 이어>는 1억4,645만 THB의 흥행 수입으로 올해 두 번째로 흥행에 성공한 태국 영화가 되었다.

<홈스테이>는 GTH 시절부터 오랫동안 기다려온 프로젝트다. GTH가 에토 모리의 소설 『컬러풀』의 각색권을 사들인 게 10여 년 전이다. 용유스 톤콘툰 감독(<아이언 레이디>)이 연출을 맡기로 되어 있었으나, 결국 영화의 감독을 맡은 사람은 팍퐁 원퐁(<셔터>, <포비아> 시리즈 공동 연출)이다. <홈스테이>는 몇 여성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배드 지니어스>의 젊은 배우 티라돈 수파판핀요와 걸그룹 BNK48의 리더 체프랑 아리쿤이 주인공을 연기했기 때문에 개봉 첫 날 기세 좋게 시작했지만, 결국에 영화는 6,675만 THB를 벌어들이는 데 그쳤다. 최종 결과는 개봉 전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성공적이지 못했다.



GDH는 처음으로 두 개의 장편 다큐멘터리도 배급했다. 2,215는 GDH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로 노타폰 분프라콕이 감독을 맡았다. 이 다큐멘터리는 태국의 병원들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태국의 남부에서 북부까지 달린 록스타 아라티와라 공말라이의 뒤를 따른다. 이 다큐멘터리는 한정된 기간만 개봉했으며, 관객들은 입장권을 구입하는 대신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영화는 769만 THB를 벌어들였고, 그 수입은 병원을 돕는 아라티와라의 자선 프로젝트에 기부된다

GDH는 나와폰 탐롱라타나릿 감독의 <BNK 48: 소녀는 울지 않는다> 또한 배급했다. BNK48 1세대 멤버들을 인터뷰한 이 다큐멘터리는 BNK48 사무소가 제작했다. 이 영화는 1,358만 THB의 수입으로 태국에서 두 번째 높은 흥행 수입을 올린 다큐멘터리 영화가 되었다.

사하몽콜필름은 2018년에 제작 편수가 적었는데, 그 중 가장 성공한 영화는 쿡기앗 콤시리 감독의 <쿤 판 2>이다. 이 액션 판타지 드라마는 4,451만 THB의 흥행 수입을 올렸다.

<쿤 판2>를 제외하면 2018년 사하몽콜필름의 영화 중 흥행에 성공한 작품은 하나도 없었다. 마나사난 풍수완의 공포영화 *Viral*은 불과 225만 THB를 벌었다. 또한 펜-엑 라타나루앙 감독의 <사무이의 노래>는 2017년 베니스영화제 내 지오르나테 델 아우토리에서 첫 상영 후, 2018년 2월 개봉 때는 겨우 209만 THB를 버는 데 그쳤다.

GTH 위숫 폰보랄락 전 대표와 모노테크놀로지의 합작회사인 T-모멘트는 2018년 2편의 영화를 개봉하며 활동적이었다. 이 회사는 안용 쿠루앙쿠라 감독(*Back to the 90s*)의 *App War*를 첫 상영했다. <배드 지니어스>와 비슷한 스타일의 이 영화는 1,806만 THB를 벌어들여 흥행에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핑 롬프라플렝 감독의 <더 풀>은 다른 종류의 스릴러 영화를 만드려는 T-모멘트의 또 다른 노력이다. 태국의 슈퍼스타 티라데이 왕푸아판(<방콕 트래픽 러브 스토리>)이 출연한 이 영화는 2,717만 THB의 흥행 수입을 올렸다.

파이브스타 프로덕션은 2018년 단 한 편의 영화를 공개했는데, 바로 <사경>(파왓 파낭카시리, 니티밋 출바니치시리, 탐마논 사쿨분타눔 감독)이었다. 사실 파이브스타 프로덕션이 말레이시아의 아스트로 부 채널을 위해 제작한 *3 A.M. Bangkok Ghost Stories*의 세 개의 에피소드로 이뤄진 이 유니버스 호러영화는 583만 THB를 버는 데 그치면서 실패작으로 남았다. 파이브스타는 5,300백만 THB를 벌어들인 폰타리스 촛키사다르소폰 감독의 공포 코미디 영화 *Pee Nak*으로 더욱 크고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고, *Pee Nak*은 파이브스타 프로덕션의 지난 10년 간의 최고 성공작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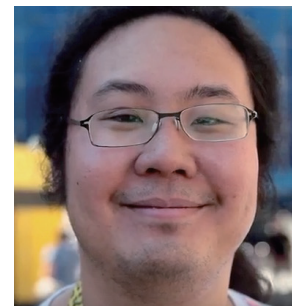
태국 예술 영화들은 전세계 영화제에서 상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국에서는 관객을 찾기 어렵다. 2017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지식상을 수상하고 태국 국내의 모든 시상식을 휩쓸었던 아누차 부냐와타나의 <마릴라: 이별의 꽃>은 겨우 253만 THB의 수익을 냈을 뿐이다.

2018년은 또한 지역 영화의 성장을 목도할 수 있었던 해이다. 북동부 지역에서는 그 곳 현지 관객들을 위해 북동부 지역 방언을 쓰는 영화가 더 많이 제작되고 있다. 2018년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시사갯 지역에 근거지를 둔 독립영화사 썽 프로덕션의 *Thi Baan The Series* (수라삭 풍손 감독) 시리즈의 세 번째 편인 *Thi Baan The Series 2.2*이다. 불교 전통에서 승려가 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검열위원회가 승려 역이 우는 장면을 자르도록 영화사에 지시하면서 이 영화는 검열위원회와 문제가 있었다. 승려가 우는 모습을 볼 수 없는 화면으로 장면을 변경하기로 제작자들이 결정한 후 영화는 검열을 통과했다. 이 영화는 부분적으로 검열에 대해 언론이 술렁거린 탓에 흥행에서는 성공을 거두었는데, 방콕에서 3,340만 THB를, 전국적으로는 1억1,500만 THB를 벌어들였다.

태국 북부, 중앙 북부, 중앙 남부 지역의 영화 배급사 겸 영화관 소유주인 타나 씨네플렉스가 소유한 영화 제작사 프라나곤 필름도 북동부 방언으로 영화를 제작, 배급하는 사업에 뛰어들었다. 티라덱 사판유 감독의 *Hug Paeng*으로 무려 2,063만 THB의 수입을 올렸다. *Hug Paeng*이후 티라덱은 M픽처스가 2019년 5월 배급하는 새 영화 *On-Zon-De*를 만들었다.

2016년 남부 지역에서 <더 크라운>이 성공한 이후, 유명 전통 가수에서 영화감독으로 변신한 이케차이 스리비차이는 *Norah*로 남부 지역에서 관객들을 위한 영화를 계속해서 만들었다. M픽처스가 배급하는 이 로맨틱 드라마 판타지 영화는 불과 135만 THB의 수입으로 방콕에서는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

2019년에는 산타나 티프라차트 감독의 *Na Han*, BNK48 사무소와 썽 프로덕션과 협력하여 제작한 *Thi Baan The Series* 중 BNK 48의 멤버가 출연한 *Thi Baan The Series X BNK48* 등 북동부 지역 방언의 영화가 더 많이 나올 예정이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행운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금광과도 같은 태국 북동부 지역 시장의 중요성을 이 프로젝트가 증명하고 있다.



#### 돈사론 꼬빗바닛차

돈사론 꼬빗바닛차는 *The Nation*과 같은 태국 잡지와 신문에서 시나리오 작가, 평론가, 기자로 활동 중이다. 또한 태국 문화부와 Federation of Motion Pictures and Contents Association가 주최하는 방콕아세안영화제의 프로그래밍 컨설턴트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시네마시아영화제에서 태국 영화 담당 컨설턴트로 일했으며, 2017 로테르담영화제와 2016 브줄아시아영화제에 심사위원으로 초청 받았다. 독립 영화 프로듀서로서 제작한 <마릴라: 이별의 꽃>은 2017 부산영화제에서 김지석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 Thailand Film Market Trend in 2018

In the year that Thailand is still under the military government, and Thailand will celebrate the coronation ceremony of King Maha Vajiralongkorn in May 2019, 2018 is the year of change of Thai mainstream film scene, with the rise of box office gross for Thai films, especially in the upcountry, and the success of new players, especially from television world.

In 2018, there are 50 Thai films released in cinemas, which the total box office gross for Thai films in 2018 is 839 million THB, which is 18.3% of total market. The market share of Thai films in 2018 is better than in 2017 which was only 10%.

It is unexpected when *Nakee 2* opened in Thai cinemas on 18 October, that the film would become the most successful Thai film of 2018 with the box office gross of 161.19 million THB. *Nakee* is a successful television series aired on Channel 3, which in 2017, the series was the highest rating television series of the year. Based on a novel, *Nakee* is the love story happened in the Northeastern region of Thailand between a man and a woman possessed by the ancient snake spirit called 'Nakee'. Pongpat Wachirabanjong, the director of the series is a veteran actor and filmmaker who directed films such as *Me...Myself*(*Khaw Hai Rak Jong Jaroen*) or *Happy Birthday*. Recently, he found success in producing and directing television series for Channel 3. The series which most of the dialogues are in Northeastern dialect (presented with Thai subtitles) can attract lots of audience especially audience from the Northeastern region.

From the success of the television series, Channel 3 decided to produce a sequel, but as a feature film with Pongpat as the director. The film is produced by Prawit Maleenont(ex-managing director of Channel 3), Search Entertainment(production company that produces television programs exclusively for channel 3), and DO Entertainment(production company owned by Pongpat and his wife Thanya Wachirabanjong), and is distributed by M Pictures. The film stars Thai superstars Nadech Kugimiya(*Sunset* at Chaophraya) and Urassaya Sperbund, along with original on-screen couple from the original television series Natapohn Tameeruks and Phupoom Phongpanu.

To turn successful television series into films is considered rare for Thai film industry, but the huge success of *Nakee 2* proves that this business model worked before in other countries like Japan works in Thailand as well. Channel 3 has plan to make more films based on their successful television series. In 2018, it is obvious that M Pictures has become the biggest player in Thai film industry, with the success of *Nakee 2* and other titles. Half of the top ten films in Thailand's box office in 2018 are from M Pictures.

*Bikeman*, directed by Prueksa Amaruji is the first collaboration between M Pictures and Workpoint Entertainment. Previously working with Sahamongkol Film on titles such as *Cat a Wabb*, Workpoint has produced *Bikeman* along with Raluk Production, which is production company of Rerkchai

Paungpetch, director who made box office hits such as *32. decembar* or *Loser Love*(*Sudkate Salateped*). Using the actor Pachara Chirativat, who the audience would be familiar with his face from GTH's films, the film became the third most successful film of the year with box office of 67.11 million THB.

*The Legend of Muay Thai: 9 Satra* is an animation produced by Exformat Films, which M Pictures also takes distribution right for Thailand. The film earned 52.63 million THB and is praised by audience and some critics, but with production budget of 200 million THB, it is difficult for the film to recoup.

Petchtai Wongkumlao or 'Mum Jokmok', Thailand's most famous comedian and comedy film director is also another filmmaker who left Sahamongkol Film and joined M Pictures. In 2018, Petchtai directed and produced *Khun Bun Lue* for M Pictures. The comedy film which Petchtai also stars as lead character earned 46.52 million THB, which can't compare to the success of Petchtai's films made for Sahamongkol like *The Bodyguard* or *Hello Yasothorn*(*Yam Yasothorn*), but it is not too bad for Thai films nowadays.

M Pictures also distributed animation *Krut: The Himmaphan Warriors*(*Krut Mahayut Himmaphan*) which is produced by Rangsit University. The film earned 10.71 million THB which is not so good for high budget animation feature.

Transformation Films which is joint venture a joint venture of M Pictures, True iContent, Bangkok Film Studio and Matching Studio Plus produced only 1 film which is *Reside*, a new film from Wisit Sasanatieng (*Tears of the Black Tiger*(*Fah Talai Jone*)). Though being a low budget film that stars on-screen couple from *Shutter*, Ananda Everingham and Natthaweeranuch Thongmee, the film earned only 4.05

million THB and did not recoup. Transformation Films will find more success in their 2019 title *Krasue: Inhuman Kiss* (directed by Sittisiri Mongkolsiri) which earned 39 million THB.

CJ Major Entertainment has no film in 2018, but in 2019, CJ Major will have 3 films which are *Our Love Forever*, directed by Wirat Hengkongdee (*Super Salaryman*(*Yod Manut Nguen Deuan*)), That March by Chookiat Sakveerakul (*13 Beloved*(*13 Game Sayawng*), *Love of Siam*(*Rak Haeng Siam*)) which is a remake of *Bungee Jumping of Their Own*(*Beonjijeompeureul hada*) and *Classic Again* by Thatchaphong Suphasri(produced by Chalermchatri Yukol) which is remade from *The Classic* (2003).

We can say that Poj Arnon is the most productive Thai filmmaker as he has three films in 2018, which are *Joking Jazz 5G*(*Luang Pee Jazz 5G*), *How Taew Tak 6*, and *Last Heroes*(*Toot Too Ku Chart*). All the titles are funded by Major Cineplex, and released by M39 and M Pictures. *Joking Jazz 5G*, which is sequel to *Joking Jazz 4G*(*Luang Pee Jazz 4G*) which was big hit in 2016 became a flop in 2018 with box office of 18.40 million THB. *Last Heroes* which is an epic-comedy about a group of transgender 200 years ago during Ayutthaya period who have to fight in the war to save the kingdom. Though being a high budget film, the film earned only 19.15 million THB.

*How Taew Tak 6*, which is the sixth The sixth installment of director Poj Arnon's '*How Taew Tak*' transgender comedy movie series is the only one from Poj Arnon that is in top ten highest grossing Thai movies of 2018. The film earned 27.59 million THB which is the least successful film in '*How Taew Tak*' series, which according to the director, will be the last installment of the series.





2018 was another good year for GDH, though the success may not be in expected level. After 8 years hiatus, Vithaya Thongyuyong (*My Girl(Fan Chan)*, *The Little Comedian(Baan Chan Talok Wai Gon)*) returns with his latest film *Brother of the Year(Nong, Pee, Teerak)* which GDH's usual actor Sunny Suwanmethanont stars with Urassaya Sperbund, who made her feature film debut with this film. *Brother of the Year* became the second most successful Thai film of the year with box office of 146.45 million THB.

*Homestay* is a long-awaited project since GTH days. It was more than 10 years ago that GTH has bought the adaptation right to Eto Mori's novel *Colorful*. Yongyoot Tongkongtoon (*The Iron Ladies(Satree Lek)*) was supposed to direct the film, but finally, it is Pakpoom Wongpoom (co director of *Shutter*, *Phobia* series(*See Prang*, *Ha Phraeng*)) who is assigned to direct the film. *Homestay* opened quite strong on its first day as the film stars young heartthrob actor James Teeradon Supapunpinyo from *Bad Genius*(Chalard Games Goeng) and girl group BNK48's captain Cherprang Areekul, however at the end, the film earned 66.75 million THB. The final result is not as successful as many people expected before the release.

For the first time that GDH also distributed two documentary features. *2215* is documentary produced by GDH, and directed by Nottapon Boonprakob. The documentary follows rock star Artiware Kongmalai who run from the south to the north of Thailand to collect donation to help hospitals in Thailand. The documentary was released for a limited period and the audience can donate the amount that they wish instead of purchasing the ticket. The film earned 7.69 million THB, which the income from the film will be donated to Artiware's charity project to help hospitals.

GDH also distributed BNK 48: *Girls Don't Cry* by Nawapol Thamrongrattanarit. The documentary which interviews first-generation members of BNK48 is made by BNK48 Office. The film became the second highest grossing documentary film of Thailand which box office of 13.58 million THB.

Sahamongkol Film has fewer production in 2018, which the most successful of all their titles is *Khun Phan 2* by Kongkiat Komesiri. The action-fantasy-drama earned 44.51 million THB in box office.

Apart from *Khun Phan 2*, none of the films of Sahamongkol film in 2018 were successful in box office. *Viral(Phee Toh Ra Sap)*, which is a horror film by Manasanan Pongsuwan earned only 2.25 million THB, while Pen-Ek Ratanruang's *Samui Song* which premiered at Giornate degli Autori in Venice in 2017, and was released by Sahamongkol in February 2018 earned only 2.09 million THB.

T-Moment which is joint venture between ex-CEO of GTH Visute Poolvorak and Mono Technology was active in 2018 with 2 films. The company premiered *App War*, a film by Yanyong Kuruangkura (*Back to the 90s(2538 Alter Ma Jib)*). The film which has similar style to *Bad Genius* was not so successful in box office by earning 18.06 million THB.

*The Pool(Narok 6 Metre)*, directed by Ping Lumprapleng is another effort of T-Moment in making different kind of thriller film. The film which stars Thai superstar Theeradej Wongpuapan (*Bangkok Traffic Love Story(Rot Fai Faa... Maha Na Ter)*) earned 27.17 million THB in box office.

Five Star Production had only one film in 2018, which is *3 AM: Part 3(3 AM: Aftershock)* (Directed by Phawat Panangkasiri, Nitiwat Cholanichsiri, Thammanoon Sukulboontanom). The omnibus horror film which is in fact 3 episodes of the *3 A.M. Bangkok Ghost Stories* that Five Star produced for Malaysia's Astro Boo Channel earned only 5.83 million THB, which is

considered a flop. Five Star finds more and surprising success with horror-comedy film *Pee Nak*, directed by Phontharis Chotkijadarsopon that earned 53 million THB, which make *Pee Nak* become the most successful film from Five Star Production of the past ten years.

Thai Arthouse films, though being shown in film festivals around the globe, are still difficult to find audience in their home country. *Malila: The Farewell Flower* by Anucha Boonyawatana which won Kim Jiseok Award from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2017 and swept all national awards in Thailand earned only 2.53 million THB in box office. 2018 is another year that we can see the growth of regional film, which there are more films being made in the Northeastern region that speaks Northeastern dialect for local audience there. The most interesting case of 2018 is *Thi Baan The Series 2.2*, the third installment of *Thai Baan the Series* movie series (all directed by Surasak Pongsorn) from independent film company based in Sisaket province called Serng Production. The film had problem with censorship board when the censorship board ordered the filmmaker to cut the scene that shows a monk character crying as it is not appropriate for a monk to cry according to Buddhist tradition. After the filmmaker decided to alter the scene with the shot that the audience can't see the crying monk, the film passed the censorship. The film became a success in box office,

partially because of the buzz it got from the medias about the censorship and earned 33.40 million THB in Bangkok and earned 115 million THB from the whole country.

Phranakorn Film, which is the film production company owned by Thana Cineplex, which is a local film distributor and movie theaters owner in the north, north central and south central region of Thailand also entered the business of producing and distributing films in Northeastern dialect with *Hug Paeng*, directed by Theeradech Saphanyoo, which earned 20.63 million THB in box office. After *Hug Paeng*, Theeradech makes a new film *On-Zon-De* which is distributed by M Pictures in May 2019.

From the success in the Southern region of *The Crown* in 2016, famous traditional singer turned film director Akechai Srivichai continued making films for audience in Southern region with Norah. The romantic-drama-fantasy film which is distributed by M Pictures was not successful with the box office in Bangkok only 1.35 million THB.

There will be more films in Northeastern dialect in 2019, such as *Na Han* directed by Chantana Tiprachart, *Thi Baan The Series X BNK48*, which BNK48 Office cooperates with Serng Production in making another installment of *Thi Baan The Series* movie series that stars members of BNK 48. The project proves the importance of market in Northeastern region of Thailand which is like a gold mine that everybody wants to try their luck.



#### Donsaron KOVITVANITCHA

Donsaron KOVITVANITCHA works as a film writer, critic, and journalist for many magazines and newspaper in Thailand such as *The Nation*. Donsaron also works as programming consultant for Bangkok ASEAN Film Festival, film festival organis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of Thailand and the Federation of Motion Pictures and Contents Association. Recently, Donsaron worked as a consultant for Thai films to Cinemasia Film Festival in Amsterdam, The Netherlands. He is also invited to be the jury in film festivals such as International Film Festival Rotterdam 2017 and Vesoul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f Asian Cinema 2016. He is also independent film producer which the film that he produced *Malila: The Farewell Flower* won Kim Ji-Seok Award from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17.



# 필리핀 PHILIPPINES

Made in  sia

# Figures of Top 10 Films in Philippines Box Office

www.boxofficemojo.com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Local)	Gross(USD)	제작사 Production	배급사 Distribution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Avengers: Infinity War	안소니 루소, 조 루소	Anthony RUSSO, Joe RUSSO	미국	USA	액션	Action	PHP 1,226,052,000	USD 23,295,000	Marvel Studios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	Jurassic World: Fallen Kingdom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Juan Antonio BAYONA	미국	USA	액션	Action	PHP 517,421,000	USD 9,831,000	Amblin Entertainment	United International Pictures
블랙 팬서	Black Panther	라이언 쿨러	Ryan COOGLER	미국	USA	액션	Action	PHP 512,789,000	USD 9,743,000	Marvel Studios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아쿠아맨	AQUAMAN	제임스 완	James WAN	미국	USA	액션	Action	PHP 478,947,000	USD 9,100,000	Warner Bros. Pictures	Warner Bros. Pictures
엔트맨과 와스프	Ant-Man and the Wasp	페이트 리드	Peyton REED	미국	USA	액션	Action	PHP 306,210,000	USD 5,818,000	Marvel Studios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데드풀 2	Deadpool 2	데이빗 레이치	David LEITCH	미국	USA	액션	Action	PHP 279,210,000	USD 5,305,000	Marvel Entertainment	20th Century Fox
인크레더블2	Incredibles 2	브래드 버드	Brad BIRD	미국	USA	애니메이션	Animation	PHP 272,526,000	USD 5,178,000	Walt Disney Pictures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Mission: Impossible - Fallout	크리스토퍼 맥쿼리	Christopher McQUARRIE	미국	USA	액션	Action	PHP 259,157,000	USD 4,924,000	Skydance Media	United International Pictures
쥬만지: 새로운 세계	Jumanji: Welcome to the Jungle	제이크 캐스단	Jake KASDAN	미국	USA	액션	Action	PHP 238,526,000	USD 4,532,000	Columbia Pictures	Columbia Pictures
베놈	Venom	루벤 플레셔	Ruben FLEISCHER	미국	USA	액션	Action	PHP 234,631,000	USD 4,458,000	Columbia Pictures	Columbia Pictures

# Figures of Top 10 Films in Domestic Box Office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Local)	Gross(USD)	제작사 Production	배급사 Distribution
The Hows of Us	The Hows of Us	캐시 가르시아-몰리나	Cathy GARCIA-MOLINA	필리핀	Philippines	로맨스	Romance	PHP 660,000,000	USD 12,540,000	Star Cinema	ABS-CBN Film Productions
Fantastica	Fantastica	배리 곤잘레스	Barry GONZALEZ	필리핀	Philippines	코미디	Comedy	PHP 571,000,000	USD 10,849,000	Star Cinema	ABS-CBN Film Productions
Exes Baggage	Exes Baggage	댄 빌리에가스	Dan VILLEGAS	필리핀	Philippines	로맨스	Romance	PHP 292,000,000	USD 5,548,000	Black Sheep	Star Cinema
Jack Em Popoy: The Puliscredibles	Jack Em Popoy: The Puliscredibles	마이클 투비에라	Michael TUVIERA	필리핀	Philippines	액션	Action	PHP 200,000,000	USD 3,800,000	CCM Productions	Axinite Digicinema Inc
시드 & 아야: 낫 어 러브 스토리	Sid and Aya: Not a Love Story	이레네 빌라모르	Irene VILLAMOR	필리핀	Philippines	드라마	Drama	PHP 160,000,000	USD 3,040,000	N² Productions	Viva Films
미스 그레니	Miss Granny	조이스 베르날	Joyce BERNAL	필리핀	Philippines	코미디	Comedy	PHP 135,000,000	USD 2,565,000	Viva Films	Viva Films
My Perfect You	My Perfect You	캐시 가르시아-몰리나	Cathy GARCIA-MOLINA	필리핀	Philippines	로맨스	Romance	PHP 120,000,000	USD 2,280,000	Star Cinema	ABS-CBN Film Productions
오로라	Aurora	얌 라라나스	Yam LARANAS	필리핀	Philippines	공포	Horror	PHP 107,000,000	USD 2,033,000	Allud Entertainment	Viva Films
Kasal	Kasal	루엘 S. 바야니	Ruel S. BAYANI	필리핀	Philippines	드라마	Drama	PHP 105,000,000	USD 1,995,000	Star Cinema	ABS-CBN Film Productions
Ang Dalawang Mrs. Reyes	Ang Dalawang Mrs. Reyes	준 라나	Jun LANA	필리핀	Philippines	코미디	Comedy	PHP 97,000,000	USD 1,843,000	Star Cinema	ABS-CBN Film Productions



# 필리핀 2018 영화산업 동향

지난해 필리핀 영화는 대형 쇼케이스들의 뜻밖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림길에서 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필리핀 영화는 아직도 그 자신의 정체성과 충성도 높은 시장을 끝없이 찾고 있다. 할리우드와 다른 외국의 전통과 혁신으로부터 온 영향은 전세계 영화에 폭넓게 퍼져 있었고 이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항상 꼭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100년에 걸친 미국의 정복에서 신식민주의 이후 환경에 따른 식민지 메커니즘의 소산일 뿐이다. 파운드 푸티지 신드롬과 같은 예외도 있지만, 이 또한 초국가적인 순환에서 파생된 일부 독립영화제작자들 사이의 규칙에 국한된다. 현 상황에서 월드시네마는 아시아권에서 대륙권에 이르는 지역이 상호 의존하며 발전할 수 있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일반 대형 상영관이나 갤러리, 체육관, 교실처럼 통상적인 방식에 더하여, 스트리밍은 디지털 및 사이버화로 인해 거대 통신재벌 ABS-CBN 방송사의 IWant등을 통해 지역화선을 이용해서도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항상 그러했던 것처럼, 여전히 전국 영화관에서 최고 수익을 올리는 프로젝트는 ABS-CBN의 영화부문의 충실한 일꾼인 스타시네마이다.

캐시 가르시아-몰리나 감독이 연출하고, 10대 커플로 캐서린 버나도, 다니엘 파딜라가 출연한 스타시네마의 *The Hows of Us*는 연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어느 커플의 위기에 관한 이야기로 6억6천만 PHP를 벌었다. 스타시네마와 비바필름이 공동 제작한 *Fantastica*는 기사로부터 자신의 영지에서 세 명의 공주를 찾는 임무를 받게 된 '판타스티카'라는 카니발의 소유주에 관한 희극이다. 사실 세 명의 공주들은 서로 떨어져서 지구에 붙들려 있다가 악마에게 심한 공격을 받는데, 오히려 기사의 라이벌이 악마에 맞서 성공적으로 격퇴한다. 이 프로젝트는 게이 코미디언 바이스 간다, 필리핀 어른들의 아이돌인 당동 단테스와 리차드 구티에레즈가 주연을 맡았다. 이 영화는 5억7,100만 PHP라는 엄청난 액수를 벌었다.

스타시네마의 계열사인 블랙십프로덕션은 실제 커플이었던 안젤리카 팡가니반과 카를로 아키노를 주인공으로 한 *Exes Baggage*를 제작했다. 나르시스트 음악가가 갑자기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는 2억9,200만 PHP를 벌었다.

이미 크리스마스 전에 메트로마닐라영화제(MMFF)의 공식 대변인 노엘 페러는 매년 12월 25일 개막하는 본 페스티벌이 외국 영화를 상영하지 않는 동안 10억 PHP의 총 매출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8편의 공식 응모작들은 흥행 패권과 수상을 놓고 경쟁을 벌였다. *Fantastica*가 수입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비즈니스 월드』의 잘린 B. 추아가 보도한 페러의 2019년 2월 10일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MMFF 2018의 상위 네 편의 영화는 (순서와 관계없이) <오로라>, *Fantastica*, *Jack Em Popoy: The Puliscredibles*, RC 데 로스 레예스가 연출한 *Mary, Marry Me*였다.

『필리핀 뉴스』의 온라인 페이지는 마이클 튜비에라 감독이 연출하고 코미디언 빅 소토, 배우 코코 마틴, 젊은 스타 메인 멘도자 등이 출연해 경찰관들의 모험과 실수를 그린 *Jack Em Popoy: The Puliscredible*이 2018년 상영에서 2억 PHP를 벌어들였다고 보도했다.

MMFF 집행위원회와 다닐로 델라푸즈 림 MMDA 의장에 따르면 영화제는 목표치인 1백만 PHP를 넘어섰다고 한다. "연휴 기간 중 그칠 줄 모르는 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폭풍우를 이겨내고 살아남았고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라고 림 의장은 말했다.

아이린 빌라모어가 감독의 <시드 & 아야: 낫 어 러브스토리>는 한 남자가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고 방랑하던 중 한 여자를 우연히 만나 사랑을 느끼는 내용으로 1억 6천만 PHP의 수익을 거두었다. 흥행 감독 조이스 베르날이 메가폰을 잡고 사라 제로니모가 주연을 맡은 <미스 그래니>는 한국 판타지물을 각색했다. 이 영화는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느끼던 70세 여성이 사진관에서 마법처럼 30세 여성으로 변신한다는 이야기로 1억 3,500만 PHP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리고 암 라라나스 감독의 <오로라>는 난파선에서 실종자를 찾는 한 젊은 여성과 그녀의 여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그렸다. 앤 커티스가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1억7백만 PHP를 벌어들였다.

캐시 가르시아-몰리나 감독의 *My Perfect You*는 2015년 미스 유니버스 출신 피아 부르츠바흐와 제럴드 앤더슨이 팀을 이루어 여자친구와 막 헤어진 남자가 호스텔을 관리하는 동네 미녀와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되는 이야기로 1억2천만 PHP를 벌었다. 예비 신부의 결혼에 대한 불안에 관한 이야기를 그린 루엘 S. 바야니 감독의 *Kasal*은 1억 5백만 PHP를 벌었다. 준 라나가 감독한 *Ang Dalawang Mrs. Reyes*는 두 남자가 부인들 몰래 서로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발각된 뒤 각자 인물들의 '멘붕'과 대처를 그린 이 이야기는 9700만 PHP를 긁어 모았다. 많은 영화 팬 또는 대중들의 믿음이나 근거 없는 결론과 달리, 국내 영화 산업은 살아 있으며 활기가 넘친다.



한편, 쇼핑몰에 위치한 많은 영화관에서 스튜디오 제작 영화를 전국적으로 동시 상영하는 것과는 별개로, ABS-CBN의 씨네마원오리지널영화제, TV5 계열사인 솔라엔터테인먼트, TV5(전 채널5) 계열사인 씨네필리피노의 시낙마닐라국제영화제와 같이 대형 통신회사들이 거대 영화공장과 연계하여 조직하고 활성화시킨 영화제들이 있다. 이 세 회사는 모두 접근법과 스토리텔링에서 정형화되지 않고 인습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쇼핑몰에 있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상영하고 또한 마케팅, 프로모션과 입장권 판매에 의존하는 상업적인 프로젝트를 잇달아 내놓았다. 확실히 주류와 인디 영화 제작 사이에 경계선은 더 이상 없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이들의 경쟁 무대가 하나로 통합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필리핀의 영화 문화 및 산업은 옛 것과 새로운 것, 진보와 보수, 평범과 대담, 자유를 위한 도전, 상업성, 정교함 등을 총 망라한 거대한 사업이자, 소비자들의 관심사이며 많은 영화제작자들의 중심축이기도 하다.

공식적으로 2018년 전국에 상영된 영화는(인쇄매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언급된 다큐 드라마까지 포함) 총 131편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제작된 영화가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필리핀에는 개봉, 시장 보고서 및 분석의 공식 모니터링 기관이 없다. 필리핀대학교 시네아다르나의 프로그래머 노노이 라우존은 학계에 기반을 둔 영화평론가모임인 젊은 평론가 서클(YCC)의 현역 회원 중 한 명이다. 그에 따르면, 지역 영화의 흥행기록을 모니터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정부기관이 꼭 필요하다. 라우존은 "필리핀영화진흥위원회, 즉FDCP는 지역 영화산업의 모든 시장매출과 특성을 모니터하고 기록하는 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한 움직임을 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조사 과정에서 필자는 *Jack Em Popoy: The Puliscredibles*에 투자한 CCM 프로덕션, M-Zet프로덕션, 그리고 APT 엔터테인먼트의 사무실에 연락해 매출액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우리는 회사 방침상 흥행 매출을 대중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중하게 전달해달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비바엔터테인먼트의 예약 부서 또한 그들 영화의 매출에 대한 우리의 요청을 거절했다. 오직 스타시네마만이 그들의 공식 수입을 공유했다. 2018 MMFF의 상위 4개 흥행작들 중, <오로라>의 제작자들만이 시네마브라보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인용해 영화 흥행 성적을 공개했다.



### 보이 빌라산타

본명 훌리아니토 V. 비야산타는 수상 경험을 보유한 프리랜서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저널리스트이자, 최근 작품으로 필리핀계 영국인 조위 모렐 감독과 함께 필리핀 QC 정부의 케손시립도서관을 위해 작업한 *The Making of Quezon City* (2018)의 TV 및 다큐멘터리 제작자, 2010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사진-르포-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필리핀 원주민에 대한 관한 *Dumagat*으로 상을 받은 다큐멘터리 감독이며, 언론학 서적 저자, 이벤트 기획자, 필리핀 신문 및 타블로이드의 연예면 기고가, 쇼비즈 뉴스 편집자 겸 *OpinYon*, *Diyaryo Pinoy*, *The Market Monitor*, *Remate*, *Pinoy Weekly*, *www.filcaspro.com* 등의 신문의 영화 칼럼니스트이다. boyvillasanta18@gmail.com, boyvillasanta@hotmail.com로 연락 가능



# Philippines Film Market Trend in 2018

Last year's Philippine cinema was still at the crossroads despite the windfall in big screen showcases. It is still eternally finding its own identity and loyal market after all these years. The influences of Hollywood and other foreign traditions and innovations have always been prevalent and recurrent in every film year in, year out. It's not a default, though, but instead a colonial mechanism after one hundred years of American conquest to the post-neo-colonial milieu. There are exceptions like the found footage syndrome but then again, it is a rule among some independent filmmakers also derivative of transnational cycle. As it is, world cinema is an interdependent method from the Asian to the continental sphere.

Aside from the regular big screens and other out-of-the-box venues like galleries, gyms, classrooms etc, streaming has been a platform for film showing in the local circuit going digital and cyber as in the case of the giant telecommunications conglomerate ABS-CBN Broadcasting Corporation Corporation's IWant.

Traditionally, though, as in the past years, it's still the stalwart Star Cinema, film arm of ABS-CBN that dominated the matrix of the top moneymaking projects on traditional theaters nationwide.

Star Cinema's *The Hows of Us* directed by Cathy Garcia-Molina and starred in by teen love tandem of Kathryn Bernardo and Daniel Padilla about a couple's predicament on how to fix their romance problems raked in 660 million PHP. The coproduction of Star Cinema and Viva Films' *Fantastica*, a comic fare on a proprietor of a carnival who was tasked by a knight to find three princesses of the knight's land only to be warped up on Earth separately but were battered by an evil which was opposed and fought successfully by a rival knight. The project was headlined by gay comic Vice Ganda, Filipino senior heartthrobs Dingdong Dantes and Richard Gutierrez. It earned a whopping 571 million PHP.

Black Sheep Productions, an affiliate of Star Cinema, has come out with a surprise hit, *Exes Baggage* which featured former real screen lovers Angelica Panganiban and Carlo Aquino about a musician who is madly hooked on his but suddenly falls for a woman. It earned 292 million PHP.

As early as pre-Christmas season, Metro Manila Film Festival(MMFF) official spokesperson Noel Ferrer said that the annual fest which held its annual opening every December 25 targeted 1 million PHP gross sales in a time that no foreign fares were shown. Eight official entries vied for box-office supremacy and awards. *Fantastica* topped the race in the revenues.

According to Ferrer in an Instagram post on February 10, 2019 as reported by Zsarlene B. Chua of Business World—when everything was accounted for by the Metro Manila Development Authority—the government agency which perennially oversees the event—the first four films in the MMFF 2018 were (in no particular order) *Aurora*, *Fantastica*, *Jack Em Popoy: The Puliscredibles* and *Mary, Marry Me* directed by RC Delos Reyes.

In the online page of the Philippine News stated that *Jack Em Popoy: The Puliscredibles* directed by Michael Tuviera and starred in by comedian Vic Sotto, actor Coco Martin and young star Maine Mendoza about the adventures and misadventures of police officers earned 200 million PHP in its 2018 run.

According to the MMFF Executive Committee and Danilo Delapuz Lim, Chairman of the MMDA, they hit the 1 million PHP target and even went beyond the mark. "Despite the incessant rains during the holiday season, we braved and survived the storms and have created new records," said Lim.

Viva Films' *Sid and Aya: Not a Love Story* directed by Irene Villamor and top billed by Dingdong Dantes and Anne Curtis which is about an insomniac who accidentally meets and romances a woman in the diaspora to accompany him in sleepless night grossed over 160 million PHP; *Miss Granny*, an adaptation of a Korean fantasy fare megged by box-office director Joyce Bernal and starred in by Sarah Geronimo about a 70-year old woman who feels being a burden to her family until she is magically transformed to a 30-year old lady in a photo gallery earmarked a 135 million PHP receipts at the tills; and *Aurora* directed by Yam Laranas which is about a young woman and her sister in search of the missing dead from a shipwreck. The cast was led by actress Anne Curtis and the movie raked in 107 million PHP at the cash registry.

Star Cinema's *My Perfect You* directed by Cathy Garcia-Molina and teamed up 2015 Miss Universe Pia Wurtzbach and Gerald Anderson about a bachelor who has just broken up with his girlfriend and finds a replacement in a local beauty who manages a tourist's hostel made 120 million PHP; *Kasal* directed by Ruel S. Bayani and starred in by Derek Ramsay, Bea Alonzo and Paulo Avelino about the marital uncertainties of a bride-to-be brought home 105 million PHP; and *Ang Dalawang Mrs. Reyes* directed by Jun Lana and pitted in Judy Ann Santos and Angelica Panganiban onscreen about the gay relationship of their respective husbands and how they cope up with the predicament raked in 97 million PHP.





Contrary to popular belief or unscientific conclusion of the many, film citizens or not, the local movie industry is alive and kicking.

Meanwhile, apart from the synchronized showing of movies by the studios in a big number of theaters all throughout the country mostly designated in malls, there were film festivals organized and facilitated by big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associated with giant film factories like Cinema One Originals Film Festival of ABS-CBN, Sinag Maynil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f Solar Entertainment and Cine Filipino, an affiliate of TV5, formerly Channel 5, a free TV network all three churned out projects which were non-formulaic or unconventional in approach and storytelling but commercial just the same since their screenings were shown in mall cineplexes and also depended on marketing, promotion and ticket sales. Obviously, there isn't any more a demarcation line between mainstream and indie filmmaking because they're already morphed into one competitive arena.

Film culture and industry in the Philippines is a massive enterprising, consumerists' interest, central pivot of many filmmakers—old and new, progressive and reactionary, ordinary and bold and daring if not liberating, potboiler and exquisite etc.

There were 131 recorded films shown across the country in 2018 which also included docu dramas, documented online in printed media but surely, these weren't the only produce.

Sadly, though, in the Philippines, there's no official monitoring organization of releases, their market reports and analyses.

According to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UP) Cine Adarna programmer Nonoy Lauzon, one of the active members of Young Critics Circle(YCC), a group of academe-based film critics, there ought to be a government body that should monitor and officially declare box-office records of local films. "The Film Development Council of the Philippines or the FDCP must initiate a move to create an office which will monitor and record all market sales and temperament of the local movie industry," said Lauzon.

During the course of this research, this writer called the office of CCM Productions, M-Zet Productions and APT Entertainment which invested in *Jack Em Popoy The Puliscredibles* to ask on its gross sales but they begged off through a secretary and according to their SMS messages: "Please respectfully tell them we do not release box-office sales to the public as a matter of company policy." Viva Entertainment booking section also turned down our request of their films' box-office receipts. Only Star Cinema shared their official earnings. In the 44th MMFF four top grossers, only the producers of *Aurora* revealed their movie's box-office take citing a post on Cinema Bravo's Facebook page.



#### BOY VILLASANTA, Julianito V. VILLASANTA

in real life, is an award-winning freelance multimedia entertainment journalist; TV and documentary film producer, his recent one being *The Making of Quezon City*(2018) for the Quezon City Public Library of the QC 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with Fil-Briton filmmaker Jowee Morel at the helm; awarded documentary filmmaker in *Dumagat*, about the indigenous peoples in the Philippines at the ASEAN Festival of Photos- Reportage- Documentary Film 2010 in Hanoi, Vietnam; book author on media studies; event organizer; contributor to entertainment pages of Philippine broadsheets and tabloids; showbiz news editor and movie columnist for newspapers such as *OpinYon*, *Diyaryo Pinoy*, *The Market Monitor*, *Remate*, *Pinoy Weekly* and *www.filcaspro.com*. Reach him through boyvillasanta18@gmail.com and boyvillasanta@hotmail.com

베트남  
VIETNAM

Made in  sia

# Figures of Top 10 Films in Vietnam Box Office

Le Hong Lam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Local)	Gross(USD)	Production	Distribution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Avengers: Infinity War	안소니 루소, 조 루소	Anthony RUSSO, Joe RUSSO	미국	USA	액션	Action	VND 186,000,000,000	USD 7,998,000	Marvel Studios	CJ CGV Vietnam co. ltd
Sieu Sao Sieu Ngo	Sieu Sao Sieu Ngo	독 틴	Duc Thinh	베트남	Vietnam	코미디	Comedy	VND 108,000,000,000	USD 4,644,000	Thiên Phúc Entertainment	CJ CGV Vietnam co. ltd
블랙 팬서	Black Panther	라이언 쿠글러	Ryan COOGLER	미국	USA	액션	Action	VND 103,400,000,000	USD 4,446,200	Marvel Studios	CJ CGV Vietnam co. ltd
아쿠아맨	AQUAMAN	제임스 완	James WAN	미국	USA	액션	Action	VND 100,900,000,000	USD 4,338,700	Warner Bros.	CJ CGV Vietnam co. ltd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	Jurassic World: Fallen Kingdom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Juan Antonio BAYONA	미국	USA	액션	Action	VND 94,500,000,000	USD 4,063,500	Amblin Entertainment	
더 nun	The Nun	코린 하디	Corin HARDY	미국	USA	미스터리	Mystery	VND 90,300,000,000	USD 3,882,900	New Line Cinema	
인크레더블2	Incredibles 2	브래드 버드	Brad BIRD	미국	USA	애니메이션	Animation	VND 90,200,000,000	USD 3,878,600	Walt Disney Pictures	CJ CGV Vietnam co. ltd
My Mr. Wife	My Mr. Wife	찰리 응웬	Charlie NGUYEN	베트남	Vietnam	코미디	Comedy	VND 87,000,000,000	USD 3,741,000	CJ HK Entertainment	CJ CGV Vietnam co. ltd
베놈	Venom	루벤 플레셔	Ruben FLEISCHER	미국	USA	액션	Action	VND 86,400,000,000	USD 3,715,200	Columbia Pictures	
Lat Mat 3: Ba Chang Khuyet	Lat Mat 3: Ba Chang Khuyet	리 하이	LY Hai	베트남	Vietnam	액션	Action	VND 85,500,000,000	USD 3,676,500	Ly Hai Production	CJ CGV Vietnam co. ltd

# Figures of Top 10 Films in Domestic Box Office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Local)	Gross(USD)	Production	Distribution
Sieu Sao Sieu Ngo	Sieu Sao Sieu Ngo	독 틴	Duc Thinh	베트남	Vietnam	코미디	Comedy	VND 109,000,000,000	USD 4,687,000	Thiên Phúc Entertainment	CJ CGV Vietnam co. ltd
My Mr. Wife	My Mr. Wife	찰리 응우옌	Charlie NGUYEN	베트남	Vietnam	코미디	Comedy	VND 87,000,000,000	USD 3,741,000	CJ HK Entertainment	CJ CGV Vietnam co. ltd
Lat Mat 3: Ba Chang Khuyet	Lat Mat 3: Ba Chang Khuyet	리 하이	LY Hai	베트남	Vietnam	액션	Action	VND 85,500,000,000	USD 3,676,500	Ly Hai Production	CJ CGV Vietnam co. ltd
고-고 시스터즈	Go-Go Sisters	응우옌 꾸앙 중	NGUYEN Quang Dung	베트남	Vietnam	드라마	Drama	VND 84,000,000,000	USD 3,612,000	CJ HK Entertainment	CJ CGV Vietnam co. ltd
798Ten	798Ten	더스틴 응웬	Dustin NGUYEN	베트남	Vietnam	코미디	Comedy	VND 70,000,000,000	USD 3,010,000	Galaxy M&E	Galaxy Distribution
대디 이슈즈	Daddy Issues	오치아이 켄	OCHIAI Ken	베트남	Vietnam	코미디	Comedy	VND 68,000,000,000	USD 2,924,000	Chanh Phuong Phim	Lotte Entertainment
싱글탈출 대 작전2	The Cougar Queen	남시토	Namcito	베트남	Vietnam	코미디	Comedy	VND 65,000,000,000	USD 2,795,000	MAR6 Pictures	BHD Co. Ltd
The Immortal	The Immortal	빅터 부	Victor VU	베트남	Vietnam	판타지	Fantasy	VND 50,000,000,000	USD 2,150,000	CJ HK Entertainment	CJ CGV Vietnam co. ltd
Ong Ngoai Tuoi 30	Ong Ngoai Tuoi 30	보 탄 호아	VO Thanh Hoa	베트남	Vietnam	코미디	Comedy	VND 30,000,000,000	USD 1,290,000	Le Dao Media	Galaxy Distribution
Summer in Closed Eyes	Summer in Closed Eyes	카오 투이 니	CAO Thuy Nhi	베트남	Vietnam	드라마	Drama	VND 12,000,000,000	USD 516,000	Soul Catcher Production	Galaxy Distribution



# 2018 베트남 영화산업 동향

베트남의 한 배급사에 따르면 개봉 영화와 극장 수가 모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말까지 상영된 40편의 베트남 영화는 전년과 동일한 약 7,500억 VND(3,230만 USD)의 수익을 거두었다. 단 7편의 영화만이 수익 창출에 성공하였으며 3분의 2 이상은 큰 손실을 입었다. 이 수치들은 베트남 영화가 불황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소비자의 취향은 다양성이 부족하고 로맨틱코미디 영화가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티켓박스를 지배하는 로맨틱 코미디와 코미디 영화

2018년 공식 상영된 베트남 영화 40여 편 중에 높은 수익을 거둔 영화는 7편에 불과하다. 흥행순으로 보면 독 틴 감독의 *Sieu Sao Sieu Ngo*, 리 하이 감독의 *Lat Mat 3: Ba Chang Khuyet*, 응우옌 꾸앙 중 감독의 <고-고 시스터즈>, 찰리 응우옌 감독의 *My Mr. Wife*, 더스틴 응우옌 감독의 *798Ten*, 남 시토 & 바오 난 감독의 <싱글탈출 대 작전2> 그리고 오치아이 켄 감독의 <대디 이슈즈>의 순이다

2018년 흥행한 7편의 영화 이전에, 지난 5년간 베트남 시장에서 가장 성공한 영화는 레 탄 선 감독의 <불량소녀>, 판 지아 린 감독의 <내가 니 할매다>, 카이 응우옌, 썬 부 록 감독의 <디자이너>, 리 민 탕 감독의 *Mother in Law: Me Chong* 등 로맨틱 코미디 장르나 여주인공 중심의 여성관객을 겨냥한 영화다. 베트남에서 역대 최고 흥행 10위권 안에 든 다른 영화로는 찰리 응우옌 감독의 <마이가 결정할게2>, 빅터 부 감독의 <벤지폴 하트>, 찰리 응우옌 감독의 Teo Em 등이 있다. 이 영화 중 *Sieu Sao Sieu Ngo*와 *798Ten*은 구정에 개봉하여 베트남 최대 명절의 수혜를 입었다. *Sieu Sao Sieu Ngo*는 평범한 수준의 오락 영화이기 때문에 1,080억 VND(465만 4천 USD)이라는 수익은 의외로 평가된다. 관객을 끌어들이는 결정적인 요인은 폭넓은 팬층을 가진 코미디언 조영 지양이었다. 더스틴 응우옌 감독의 좀 더 잘 만들어진 코미디 드라마인 *798Ten*은 기대만큼 성공적이진 않았지만 약 550억 VND(236만 9천 USD)라는 그럭저럭 만족할 만한 매출을 올렸다.

<고-고 시스터즈>, *Lat Mat 3: Ba Chang Khuyet*, *My Mr. Wife*도 800억 VND(350만 USD)라는 대기록을 넘으며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뒀다. 이 세 편의 영화의 상업적 성공이 만족스러운 것은 공통적으로 관객의 취향과 의견을 충족시키는 훌륭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고 시스터즈>는 대본이 훌륭했던 한국 영화 원작(강형철 감독의 <씨니>)의 리메이크이며 *My Mr. Wife*는 베스트셀러 프랑스 소설을 각색하여 두 작품 모두 외국 작품에서 '빌려온' 요소들을 담고 있는데 반해, *Lat Mat 3: Ba Chang Khuyet*은 실로 놀라운 현상으로 이에 대한 언급은 물론 추가적인 이야기 할 만한 가치가 있다.

'*Lat Mat*'은 베트남의 각본가 겸 감독이 각인된 원작에서 '프랜차이즈' 혹은 '브랜드네임'으로 성장했다. 비록 리 하이는 노련한 감독이 아니며 때때로 그의 영화 제작 방식은 평이하지만 다른 베트남 영화 감독들에게 좀처럼 없는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용감함을 발휘하여 극단으로 밀어 부친다는 점이다. 리 하이는 헌신과 고된 노력이 타고난 재능을 이길 수 있다는 좋은 실례다. 그는 스스로 어려운 장소에서 촬영하고 대중의 '아드레날린'을 자극하기 위한 액션과 모험적인 장면을 만드는 것에 도전했다.

연휴 시작인 4월 30일에 작년 최대의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맞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리 하이 감독의 *Lat Mat 3: Ba Chang Khuyet*이 850억 VND(366만 4천 USD)라는 놀라운 수입을 기록하며 '*Lat Mat*' 시리즈 중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것은 이 때문이다(본 영화의 예산은 약 170억 VND-73만 2,824 USD). '*Lat Mat*' 시리즈의 성공(리 하이는 내년 4편의 개봉을 계획 중이다)은 리 하이가 업계에서 독자 노선을 선택했던 베트남 영화계의 매우 '특이한' 사례임을 보여준다.

분명 리 하이의 성공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현상'인지는 지켜봐야한다. 베트남의 오락 영화 시장은 2000년대 초반에 대중적인 관객층을 목표로 삼아 큰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르우 푸옥 상이라는 쿨한 제작자를 이미 경험한 바가 있다.

그러나 미국 출신의 베트남 영화제작자들의 유입과 함께 까다로운 입맛에 맞는 영화들이 시장에 나오자 푸옥 상은 몇 차례의 실패 끝에 곧바로 사라졌다. 리 하이는 푸옥 상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도전에 직면한 예술영화와 독립영화

베트남 관객들이 선호하는 영화의 다양성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관객들은 거의 항상 로맨스, 유머, 판타지 영화 같은 친숙한 장르를 좋아하는데, 이들 장르는 주로 17세에서 25세의 여성 관객을 겨냥하는 영화로는 가장 인기가 있다. 따라서 독립영화, 예술영화, 실험영화 등 여타 장르의 작품들은 (수익 면에서) 손해를 보기 쉽다.

2017년 두 편의 예술 영화인 홍 안 감독의 <더 웨이 스테이션>과 르엉 딘 중 감독의 <파더 앤 선>은 더 많은 티켓을 판매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음에도 불구하고 흥행에서는 참패했다. 2018년 레온 레 감독의 <더 탭 박스>, 까오 투이 니 감독의 *Summer in Closed Eyes*, 응우옌 민 독 감독의 <엑트리스 원티드>, 응우옌 후 호앙 감독의 <케이: 여배우 살인사건의 비밀>, 혹은 롤랜드 난 응우옌 감독의 *Dream Man*과 같은 잘 만든 작품에게도 역사는 반복되었다.

<더 탭 박스>와 *Summer in Closed Eyes*, 두 영화가 SNS의 입소문은 물론 언론에서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 *Summer in Closed Eyes*는 약 120억 VND(51만 7,648 USD), <더 탭 박스>는 대략 50억 VND(21만 5,686 USD)의 매출을 올렸다. 뛰어난 작품성과 스타일로 2018년 최고의 격려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두 영화로서는 뼈아픈 실망과 슬픔이었을 것이다. 사실 두 영화 모두 감독 자신의 예술적 관점과 독립성을 홍보하고 있지만 영화를 보는 관객들을 기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 두 영화는 기존의 선례를 따르지 않으며 제작자의 요구를 만족시키지도 않는다. 그러나 베트남 관객들은 이런 종류의 영화에는 관심이 없다. <케이: 여배우 살인사건의 비밀>, <엑트리스 원티드>, *Dream Man*처럼 공포감을 살짝 가미한 탐정물 세 편도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영화 장르들은 외국 관객들에게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으며 많은 작품들이 박스오피스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베트남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국적이다. 다수 영화 관객을 중시해야 하는 제작자들에게 베트남 관객들의 심리와 습성을 깬다는 것은 진짜 도전이다. 베트남 영화 장르의 다양성이란 지겨워서 없앨 때까지는 항상 한 가지만 좋아하는 옛날 이야기와 같다.

## 저급 영화와 지나치게 많은 실패작

2018년 베트남 영화 시장의 상황에 대해 내가 목격하고 명백하게 느낀 것은 퇴보뿐이었다. 실제로 저급 영화나 상업적으로 실패한 영화들이 매년 베트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왔지만 아마도 지난 10년 간의 저급 영화의 숫자는 올해 제작된 영화의 숫자와 정비례한다. 그리고 결과가 그것을 증명했다. 개봉한 40편의 영화 중 대략 30편의 영화가 손해를 입었으며 심지어 투자금을 전액을 잃기도 했다.

<엽기적인 그녀>(Yêu Em Bất Chấp)와 같은 한국 리메이크 영화부터 <라라>처럼 한국과 합작한 작품, *The Vietnamese Bride*, *Yêu Nữ Siêu Quậy*, *Thử Yêu Rồi Biết*, *Bao Giờ Hết Ế*, *Husband Swap*, *Quý Cô Thừa Kế*, *Tìm Vợ Cho Bà*, *Please Don't Marry My Mom*처럼 뻔하거나 터무니 없는 제목을 붙인 영화까지 부족한 작품성과 유행에 뒤진 스타일 때문에 모두 개봉 후 조용히 사라졌다. 흥행 참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실패작들은 여전히 베트남 영화의 전형적인 약점이 시나리오라는 것을 보여준다.

베트남 영화의 제작 예산은 평균 80~120억 VND(31만 5,000~51만 7,000 USD)으로 영화관과 최소 50대 50의 지분율로 묶여 있지만, 상당수 영화의 수익은 수십 억 VND, 심지어 수 억 VND에 불과하다(2018년 발렌타인 데이에 개봉한 로맨스 영화 *The Vietnamese Bride*는 입장권 수익이 단 1억 VND-4,310 USD에 그쳤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30편의 영화가 적게는 수십 억 VND에서 많게는 제작비 전액의 손실을 입었다는 걸 의미한다.

2018년 베트남 영화의 한심한 실패의 연속은 이해할 수 있다. 영화 산업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 가진 채 영화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트렌드를 따르는 제작자들은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대본은 어설프고 께맏추기에 말도 안 되고 부조리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아마추어에 숙련되지 않은 입봉 감독들이 연출한 영화들은 어설프고 낡고 빌려 입은 듯한 스타일과 감각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그에게 더해 배우들의 강요 받은 듯한 무미건조하고 영혼 없는 연기는 베트남 관객들의 자국 영화에 대한 호의를 되찾기도 전에 싫증나게 만들었다. 진정한 작품성으로 관객을 정복하기가 쉽지 않을 때면 관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스캔들을 퍼뜨렸는데, 끼에우 민 뚜언, 안 응우이와 캣 프엉, 세 배우의 불륜 치정 스토리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이로써 베트남 제작자와 감독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베트남 영화는 불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결과를 초래했다. 90년대 '인스턴트 라면' 장르의 완전한 쇠락과 실종의 교훈은 아직도 유효한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다수의 형편 없는 베트남 영화가 맞이한 씁쓸한 결말에도 기대할 여지가 있다. 터무니없는 수준 낮은 영화를 제거하고 진짜 재능 있는 감독들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베트남 영화는 건전한 시장 정화가 필요하다. 베트남 영화에게는 아직도 많은 기회가 남아 있으며, 베트남 관객들이 자신의 취향과 수요에 걸맞는 양질의 베트남 영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 영화의 점유율은 아직까지 우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 레 홍 람

1977년 태어난 레 홍 람은 1999년 하노이 국립대학 언론학과를 졸업했다. 람은 예술 및 문화 분야에서 기자, 편집자 및 편집장으로 거의 20년을 종사했다. 람은 현재 프리랜서 영화 평론 및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까지 람은 *Watching Letters Reading Images*(문학과 영화에 대한 인터뷰 및 평론, 2005), *Play with Structures*(영화 평론, 2011), *Birds in the Wind*(영화 관련 수필집, 2016), *The Dilemma of Being Human*(영화 관련 수필집, 2018) 및 *101 Best Vietnamese Films*(베트남 영화의 전망, 2018)과 같은 5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 Vietnam Film Market Trend in 2018

According to a distributor in Vietnam, forty domestic films screened at the end of December 2018 grossed about 750 billion VND(32.3 million USD) that are equal to last year, despite the number of films and theaters have all increased.

Only seven were successful in generating revenue, and more than two-thirds of movies suffered heavy losses. These figures show that the Vietnamese cinema is at risk of recession, there is a lack of variety in consumer tastes, and rom-com movies still dominate the market.

## ROM-COM AND COMEDY FILMS DOMINATE THE TICKET BOX

Of more than 40 Vietnamese films officially screened in 2018, only 7 films are considered to reach a strong revenue. They are *Siêu Sao Siêu Ngổ* directed by Duc Thinh, *Lật Mặt 3: Ba Chàng Khuyết* directed by LY Hai, *Go-Go Sisters*(*Tháng Năm Rực Rỡ*) directed by NGUYEN Quang Dung, *My Mr. Wife*(*Chàng Vợ Của Em*) directed by Charlie NGUYEN, *798Ten*(*798Mười*) directed by Dustin NGUYEN, *The Cougar Queen*(*Gái Già Lắm Chiêu 2*) directed by Namcito & BAO Nhan, and *Daddy Issues*(*Hồn Papa Da Con Gái*) directed by OCHIAI Ken that is ranked from high to low sales.

Before 7 hit films of 2018, the most successful films in Vietnam market in the last 5 years are of the romantic comedy(rom-com) genre or women-led (chick-flick) films including *Jailbait*(*Em Chưa 18*) directed by LE Thanh Son, *Sweet 20*(*Em Là Bà Nội Của Anh*) directed by PHAN Gia Nhat Linh, *The Tailor*(*Cô Ba Sài Gòn*) directed by Kay NGUYEN and TRAN Buu Loc, *Mother in Law*(*Mẹ Chồng*) directed by LY Minh Thang... The other highest-grossing movies in the all-time top 10 hits in Vietnam are comedy and horror films that are *Let Hoi Decide*(*Để Mai Tính 2*) directed by Charlie NGUYEN, *Vengeful Heart*(*Quả Tim Máu*) directed by Victor VU and *Tèo Em* directed by Charlie NGUYEN.

Of these films, *Siêu Sao Siêu Ngổ* and *798Ten* were released on the Lunar New Year and benefited from Vietnam's most celebrated holiday. The revenue of 108 billion VND(4,654 million USD) of *Siêu Sao Siêu Ngổ* is considered as a surprise since this film is only an old-fashioned entertaining work of average quality. The factor that decided to attract the audiences mainly came from the name of Truong Giang, the comedian having a large fan base. *798Ten*, a comedy drama of better quality by director Dustin NGUYEN, though not as successful as expected, has an acceptable turnover satisfaction of about 55 billion VND(2,369 million USD).

*Go-Go Sisters*, *Lật Mặt 3: Ba Chàng Khuyết* and *My Mr. Wife* also have a proud achievement when they surpassed the milestone of 80 billion VND(3.5 million USD). The commercial success of these three films is satisfactory because they all have good quality that meets the audience tastes and opinions.

Whereas *Go-Go Sisters* is a remake from an original work (*Sunny* directed by KANG Hyeoncheol) of Korean cinema that has a terrific script, and *My Mr. Wife* is adapted from a best-selling French novel, both of which contain elements 'borrowed' from foreign works, *Lật Mặt 3: Ba Chàng Khuyết* is really a striking phenomenon that is worth noting and further discussing.

*Lật Mặt* has grown a 'franchise' or a 'brand name' of an original work that imprints by a Vietnamese scriptwriter and director. Although LY Hai is not a skilled director, sometimes too easy in the film-making style, he has a unique gift that other Vietnamese film-makers rarely have, that is he uses his bravery and dares to go to the extreme. LY Hai is a good illustration that dedication and hard work can beat a born talent. He has challenged himself to film in difficult locations, make action and adventurous scenes to stimulate 'adrenaline' of the popular audience.

This explains why even though *Lật Mặt 3: Ba Chàng Khuyết* clashed with the biggest Hollywood blockbuster of the year as Avengers: Infinity Wars on the April 30 holiday, the movie of LY Hai made a big surprise when it grossed up to 85 billion VND(3,664 million USD), turning into the highest-grossing in the *Lật Mặt* series (the film's budget is about 17 billion VND – 732,824 USD). The success of the *Lật Mặt* series (LY Hai has planned to do the 4th released next year) shows that LY Hai is a very 'odd' case of Vietnamese cinema when choosing a separate path in the film industry.

Obviously, let's wait and see whether the success of LY Hai is a temporary or lasting 'phenomenon'. The Vietnamese entertaining movie market has witnessed Phuoc Sang as a cool producer with big commercial success by targeting at the segment of the popular audience in the early 2000s. However, when the market has more products that could suit demanding tastes, particularly the entry of overseas Vietnamese film-makers from the USA, Phuoc Sang immediately disappeared after several flops. Hopefully, LY Hai will not step into the same rake of Phuoc Sang.

## THE ART HOUSE AND INDEPENDENT FILMS' ENCOUNTER OF CHALLENGES

The diversity in cinema enjoyment of Vietnamese audiences is probably something worth mentioning. The Vietnamese audience is almost always fond of familiar genres such as romantic, humor, or fantasy movies, all of which are of the most popular that target women aged 17-25 as the primary audience. Therefore, works of other genres including independent, artistic or experimental films, are likely to make a loss (in terms of revenue).

In 2017, the two art house films, *The Way Station*(*Đảo Của Dân Ngụ Cư*) directed by HONG Anh and *Father & Son*(*Cha Cống Con*) directed by LUONG Dinh Dung were struggling



to get more ticket sold but still a big flop at the box office. In 2018, history was repeating itself for some good quality movies like *The Tap Box*(*Song Lang*) directed by LEON Quang Le, *Summer in Closed Eyes*(*Nhắm Mắt Thấy Mùa Hè*) directed by CAO Thuy Nhi, *Actress Wanted*(*Vai Diễn Đối Đối*) directed by NGUYEN Minh Duc, *Murder in the Lens*(*Ổng Kính Sát Nhân*) directed NGUYEN Huu Hoang or *Dream Man*(*Lời Kết BẠN Chết Chóc*) directed by Roland Nhan NGUYEN.

Despite the two films *The Tap Box* and *Summer in Closed Eyes* have received the most positive feedback in media as well as 'viral' on social networks, they did not attain commercial success. *Summer in Closed Eyes* earns about 12 billion VND (517,648 USD), and *Song Lang* has approximately 5 billion VND(215,686 USD) turnover. It could be a pang of sadness and disappointment for the two films that were supposed to be worth the most encouragement of 2018 due to the quality and style. In fact, both films are easygoing to the popular audience in the sense that they do not fool film watchers, even though at least they both promote the film-makers' personal artistic vision and independence. They do not follow any existing footsteps or satisfy the demand of the producer. However, the Vietnamese audience is not interested in these types of movies. The three detective-type films that slightly blend a feeling of horror like the *Murder in the Lens*, *Actress Wanted* or *Dream Man* have the same consequence.

Indeed, these film genres are nothing new under the sun to foreign audiences, and many of them have hit the box office, but in the Vietnamese market, they are still exotic. Breaking the psychology and habits of Vietnamese audiences is a real challenge for any film-maker who does

pamper the majority of film watchers. The diversity of Vietnamese cinema genres is still an old story where we always fancy just one until we are fed up with and get rid of it.

### LOW-QUALITY FILMS AND TO MANY FLOPS

Regression was all I witnessed and felt clearly about the situation of the Vietnamese film market in 2018. Actually, bad or commercially failed films have made up a large proportion in Vietnam every year, but perhaps in the last 10 years, the number of bad films is proportional to the number of films produced this year.

And the result proved that. In 40 films released, there are about ... 30 films that were suffering losses, even losing all the investment. From the remake films of Korean cinema like *My Sassy Girl*(*Yêu Em Bất Chấp*) to the one having the co-operation with Korea like *Live Again, Love Again*(*LALA: Hãy Để Em Yêu Anh*), and films that have a cheesy or nonsense title like *Yêu Em Từ Khi Nào*, *Yêu Nữ Siêu Quậy*, *Thử Yêu Rồi Biết*, *Bao Giờ Hết Ế*, *Kế Hoạch Đổi Chồng*, *Quý Cô Thừa Kế*, *Tìm Vợ Cho Bà*, *Chú Ối Đừng Lấy Mẹ Con*... all in turn were premiered and then disappeared in silence due to their bad quality and old-fashioned style. The other films flopped, though not a box-office disaster, still show the typical weakness of Vietnamese cinema: the script.

The production budget of a Vietnamese film is at an average of 8-12 billion VND(315–517 USD) and bound by a share of at least 50/50 with the cinema theater system, but the revenue of many films is only around a few billions VND, even just a few hundred million VND(*The Vietnamese Bride*, the romantic film released on the Valentine's Day of 2018 only reached 100 million VND for tickets – 4,310 USD). It shows that the 30 films abovementioned suffered loss from a few billion VND to a complete loss of the production money.

The pathetic failure of a series of Vietnamese films in 2018 is understandable. Producers have a short-term vision, following the trend that everybody can make a film while completely having a vague idea of the film industry. The script is clumsy, patchy, nonsense and full of absurd or unreasonable things. Films directed by amateur, first-time, unskilled filmmakers, have clearly shown a clumsy, old, and borrowed style and sense. Additionally, the forced, bland and soulless acting of actors and actresses... has made the Vietnamese audience get sick before regaining their favour in Vietnamese movies. When it is not easy to conquer the audience with true quality, they have spread scandal to fool the audience in which the story of the trio KIEU Minh Tuan, An NGUY and Cat Phuong is a typical example.

All of this has resulted in the fact that Vietnamese cinema faces a recession if Vietnamese producers and filmmakers are not awake. The lesson of the complete decline and disappearance of 'instant noodles' genre in the 90s is still valuable.



LE Hong Lam

Born in 1977, Lê Hồng Lâm graduated in Journalism at the Hanoi National University in 1999. Lam has had nearly 20 years of experience working as journalist, editor and editor-in-chief in the arts and culture. Lam currently works as a freelance film critic and journalist. To date he has authored *five publications*: *Watching Letters Reading Images* (literature and cinema interviews and criticism, 2005); *Play with Structures* (cinema criticism, 2011); *Birds in the Wind* (a collection of essays on cinema, 2016); *The Dilemma of Being Human* (a collection of essays on cinema, 2018); and *101 Best Vietnamese Films* (a survey of Vietnamese cinema, 2018).

인도네시아  
INDONESIA

Made in  sia

# Figures of Top 10 Films in Indonesia Box Office

Sigit Prabowo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Local)	Gross(USD)	제작사 Production	배급사 Distribution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	Avengers: Infinity War	안소니 루소, 조 루소	Anthony RUSSO, Joe RUSSO	미국	USA	액션	Action	IDR 350,985,046,000	USD 25,288,929	Marvel Studios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딜란 1990	Dilan 1990	파자르 부스토미	Fajar BUSTOMI	인도네시아	Indonesia	드라마	Drama	IDR 252,626,560,000	USD 19,028,816	Max Pictures	
아쿠아맨	AQUAMAN	제임스 완	James WAN	미국	USA	액션	Action	IDR 254,415,000,000	USD 17,500,000	Warner Bros, Pictures	
더 님	The Nun	코린 하디	Corin HARDY	미국	USA	미스터리	Mystery	IDR 205,992,600,000	USD 13,800,000	New Line Cinema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	Jurassic World: Fallen Kingdom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Juan Antonio BAYONA	미국	USA	액션	Action	IDR 193,565,199,000	USD 13,950,645	Amblin Entertainment	United International Pictures
블랙 팬서	Black Panther	라이언 쿨러	Ryan COOGLER	미국	USA	액션	Action	IDR 168,730,263,000	USD 12,448,743	Marvel Studios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베놈	Venom	루벤 플레셔	Ruben FLEISCHER	미국	USA	액션	Action	IDR 162,517,738,000	USD 10,704,633	Columbia Pictures	Sony Pictures Releasing
벌벌비	Bumblebee	트래비스 나이트	Travis KNIGHT	미국	USA	액션	Action	IDR 160,369,137,000	USD 10,982,683	Allspark Pictures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Mission: Impossible - Fallout	크리스토퍼 맥쿼리	Christopher McQUARRIE	미국	USA	액션	Action	IDR 158,945,375,000	USD 10,950,422	Skydance Media	
수사나 - 산 채로 묻힌 여자	Suzzanna: Buried Alive	록키 소라야, 앙기 움바라	Rocky SORAYA, Anggy UMBARA	인도네시아	Indonesia	코미디	Comedy	IDR 133,847,400,000	USD 9,195,342	Soraya Intercine Films	

# Figures of Top 10 Films in Domestic Box Office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Local)	Gross(USD)	제작사 Production	배급사 Distribution
딜란 1990	Dilan 1990	파자르 부스토미	Fajar BUSTOMI	인도네시아	Indonesia	드라마	Drama	IDR 252,626,560,000	USD 19,028,816	Max Pictures	
수사나 - 산 채로 묻힌 여자	Suzzanna: Buried Alive	록키 소라야, 앙기 움바라	Rocky SORAYA, Anggy UMBARA	인도네시아	Indonesia	코미디	Comedy	IDR 133,847,400,000	USD 9,195,342	Soraya Intercine Films	
Danur 2: Maddah	Danur 2: Maddah	아위 서르야디	Awi SURYADI	인도네시아	Indonesia	호러	Horror	IDR 102,914,840,000	USD 7,479,276	MD Pictures	MD Pictures
Si Doel The Movie	Si Doel The Movie	라노 카르노	Rano KARN0	인도네시아	Indonesia	드라마	Drama	IDR 70,306,120,000	USD 4,854,724	Falcon Pictures	
Asih	Asih	아위 서르야디	Awi SURYADI	인도네시아	Indonesia	호러	Horror	IDR 68,591,920,000	USD 4,520,359	MD Pictures	MD Pictures
Friends but Married	Friends but Married	라코 프리잔토	Rako PRIJANTO	인도네시아	Indonesia	드라마	Drama	IDR 66,633,160,000	USD 4,842,526	Falcon Pictures	Falcon Pictures
Milly & Mamet	Milly & Mamet	어니스트 프라카사	Ernest PRAKASA	인도네시아	Indonesia	코미디	Comedy	IDR 62,527,520,000	USD 4,304,524	Starvision	
212 워리어	212 Warrior	앙가 드위마스 사송코	Angga Dwimas SASONGKO	인도네시아	Indonesia	액션	Action	IDR 62,080,560,000	USD 4,205,430	20th Century Fox	LifeLike Pictures
Jailangkung 2	Jailangkung 2	리잘 만토바니, 호세 포르노모	Rizal MANTOVANI, Jose POERNOMO	인도네시아	Indonesia	호러	Horror	IDR 59,945,400,000	USD 4,289,167	Sky Media	
A Man Called Ahok	A Man Called Ahok	푸트라마 투타	Putrama TUTA	인도네시아	Indonesia	드라마	Drama	IDR 58,616,600,000	USD 4,015,111	The United Team of Art	

# 2018 인도네시아 영화산업 동향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인도네시아 영화의 연간 관람객 수는 항상 천만 명대였다. 따라서 2016년 영화가 총 3,700만 관객에 도달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누구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2017년에는 더 많은 관객이 밀려 들었다. 2017년 인도네시아 영화는 무려 4,270만 명의 관객을 모았다. 자연스럽게 2018년은 불안감과 함께 흥분이 고조된 느낌으로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인가?

2017년 12월 대형 개봉작들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첫 주에는 새로운 개봉작도 없었기 때문에 2018년 1월 인도네시아 영화로서는 한 해를 조용하게 시작했다. 그 다음 주 초자연적인 공포물을 좋아하는 인도네시아 대중들은 <인시디어스4: 라스트 키>에 겁먹었다. 2018년 1월 25일 <딜란 1990>의 개봉과 함께 대기록이 나왔다. 베스트셀러 소설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10대 로맨스를 다루며 핵심 팬층을 넘어 일반 관객들까지 포용했고, 기본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딜러니즘(Dilanisme)' 서브컬처에 불을 붙였다. 이 영화는 9주 이상 상영되며 630만 명 이상의 관객 수를 기록, 현재 인도네시아 역대 최대 관객 동원 영화 2위에 올라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2003년 블록버스터의 후속작으로 2월 개봉한 *Eiffel I'm In Love 2*는 아마도 2018년의 첫 번째 빅히트작이 될 것으로 보였다. 이 영화는 2016년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를 상대로 대항 편성된 <왓츠 위드 러브 2>의 성공을 모방하여 <블랙 팬서>와 같은 기간 중에 개봉했다. 하지만 이 영화는 100만 관객 동원에 고전하면서 상영 23일 만에 겨우 기록을 달성했다(<딜란1990>의 경우 4일 걸렸다). 그 이후, 같은 달 하순에는 거의 대부분 자바어로 만들어진 <요위스 벤>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흥행에 성공하며 관객 100만 명 돌파에 근접했다.

*Benyamin The Troublemaker*로 전설적인 'Benyamin' 프랜차이즈의 부활을 꾀한 시도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후, 2018년 3월은 월말에 이르러 *Danur 2: Maddah*와 *Friends, But Married*의 2연타로 대박이 났다. *Danur 2: Maddah*는 2017년 큰 성공을 거둔 프랜차이즈의 속편으로 <사탄의 숭배자> 나오기 전까지 잠시나마 인도네시아 역대 최고 공포 영화의 왕관을 차지하고 있었다. *Friends, But Married*는 '실제 경험에 기초한' 인기 로맨스 소설을 각색한 작품이다. 두 영화 모두 휴일 기간을 이용해 며칠 안에 각각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2018년 첫 3개월 동안 4편의 영화가 빠르게 목표했던 백 만 관객을 기록한 뒤 4, 5월은 현저하게 맥이 풀렸다. 이는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가 개봉해 그 과정에서 각종 기록을 다 깨버린 기간이기도 했다. 개봉 첫 날 수입, 개봉 첫 주 수입, 최종 수입과 관객수, 최대 개봉관, 전부. 이 기간 동안 공포 영화 *The Secret: Suster Ngesot Urban Legend*이 그럭저럭 성황을 이루며 6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 모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2018년 5월 가장 성공한 영화는 79만 2천명이 입장한 *Sajen*과 68만 2천명이 입장한 *Alas Pati: Hutan Mati*였다. 두 편 역시 공포 영화이다.

2018년 이드 알피트르(라마단이 끝나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 연휴는 2018년 6월 중순이었다. 전통적으로 연제나, 많은 제작자들은 가장 수입이 짝퉁한 이 시기에 그들의 영화를 개봉하려고 노력했다. 2018년의 경우, 5편의 인도네시아 영화가 관객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경쟁했다: 로맨틱코미디 *Dimsum Martabak*, 코미디 *Insya Allah Sah 2*, 두 편의 공포물 *Jailangkung*와 <쿤틸라낙-거울 귀신의 집으로>, 마지막으로 코미디 스릴러 *Target*이다. 두 편의 공포물이 가장 성공적이었고 각각 백만 관객 기록을 경신했다: *Jailangkung 2*는 이 프랜차이즈 영화의 지속성을 확보했고 <쿤틸라낙>은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영화들이 이드 알피트르 기간의 개봉을 원하면서 전체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 귀중한 상영관 (당시 약 1,700개)을 어느 정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므로 어떤 영화에게도 <딜란 1990>(1,000개 이상)이나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1,500개 이상)처럼 최대한의 상영관 점유율을 누릴 여지는 없었다. 이드 알피트르 기간의 나머지 영화들은, 6월 말에 개봉하여 9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또 다른 공포 영화 *Rasuk* 보다 흥행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2018년 7월엔 가족영화 *Koki-Koki Cilik*을 시작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마블의 또 다른 영화 <엔트맨과 와스프>와 맞붙었다. *Koki-Koki Cilik*은 60만 명이 넘는 관객을 사로잡는 한편 속편도 보장하면서 충분히 잘 방어했다. 7월 중순에는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인형의 복수>의 또 다른 속편인 <인형의 저주>가 개봉하여 130만 명의 관객을 기록했다. 반 테러 경찰 영화 <테러 시티 22>도 7월에 개봉하여 무려 78만 6천명이 관람했다.

8월 역시 휴일인 독립기념일(8월 17일) 덕분에 인도네시아 영화가 개봉하기 좋은 달이다. 2018년에 그 날은 금요일이었고, 뒤이어 8월 22일 수요일은 이드 알 아드하(이슬람력으로 12월 8~10일 행해지는 메카 연례 성지순례가 끝나고 열리는 이슬람 최대 명절)였다. 전설적인 TV 시리즈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Si Doel The Movie*는 최대의 수익을 내기 위해 그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고, 17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왔다. *Si Doel The Movie*로부터 딱 일주일 뒤 <악마가 오기 전에>는 개봉 첫 주 기록을 소소하게 시작했다. 강력한 입소문에 힘입어 20일 뒤 이 영화는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그리고 마침내 월말에는 많은 예산을 들인 스펙터클 무협 영화 <212 워리어>가 스크린을 강타했다.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책과 TV 시리즈를 각색한 <212 워리어>는 15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다.

폭발적인 흥행을 기록한 8월 이후에, 9월에는 단 두 편의 영화만이 간신히 30만 관객을 돌파하며 눈에 띄게 흥행이 저조했다. 스타들이 대거 출연한 <아루나 & 허 펠렛>은 대표적인 흥행 실패작이었다.

10월은 재빨리 공포 영화 *Asih*라는 흥행 해결책을 제공했는데, 이는 흥행작 *Danur*를 배경으로 한 공포 영화로 170만 흥행을 기록했다. 로맨스 속편 *Dear Nathan Hello Salma* 또한 좋은 활약을 보였고, 2017년 전작보다 많은 관객을 사로잡으면서 지나치게 많은 속편의 양산을 방지하는 데 성공했다.



시깃 프라보우 Sigit Prabowo

시깃은 인도네시아에서 박스오피스 정보를 제공하는 트위터 계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워드프레스도 운영)인 @bicaraboxoffice를 운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영화의 흥행 데이터와 시청률을 제공하는 모바일앱 씨네포인트(Cinepoint)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2018년 가장 놀라운 흥행작 중 하나는 11월에 개봉한 *A Man Called Ahok*이었다. 전 자카르타 주지사 바스키 차하야 푸르나마의 젊은 시절을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14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았다. 강렬한 11월을 마감한 것은 <수사나 - 산 채로 묻힌 여자>였다. 어려운 제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전설적인 공포 아이콘을 재해석한 이 영화는 흥행 면에서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33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으며 <딜란 1990>에 이어 2018년 흥행 2위 영화가 되었다.

인도네시아 영화가 또 인기 있는 개봉 시기는 크리스마스, 새해 연휴 기간이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영관이 꽉 찬다. 하지만 할리우드 대작 <아쿠아맨>과 <범블비>의 존재 때문에 2018년은 예외였다. *Milly & Mamet*이 2018년 12월 유일하게 1백만 관객을 동원한 작품이었다. <친타에게 무슨 일이?> 프랜차이즈의 유산과 점차 강해지는 작가 겸 감독 어니스트 프라카사의 브랜드를 결합한 이 영화는 결국 할리우드 대작 영화들과 힘든 전투를 벌이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150만 명 이상의 입장 기록을 가져갔다. 2018년 12월 라인업은 공포영화 *Silam*과 드라마 *Asal Kau Bahagia* 로 마무리했다.

여러 상황들이 진정되었을 때, 인도네시아 영화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지속가능한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확실히 '그렇다'였다. 2018년에 개봉한 인도네시아 영화의 총 관객 수는 5,100만 명 이상으로 19% 이상 증가했다. 여러 요인이 이러한 성장에 기여하는 데에는, 영화의 질, 상영관 수 증가 그리고 인도네시아 경제 자체의 강세가 그것이다. 이제 사람들이 오락과 레저에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한 도전이다. 하지만 2014년 이후 인도네시아는 줄곧 세계 20위권의 시장이며 성장 잠재력도 여전히 엄청나다는 점에서 미래는 밝아 보인다.





# Indonesia Film Market Trend in 2018

From 2010 to 2015, Indonesian films yearly admission number was always in the teens of millions. So when 2016 films hit a total of 37 million admissions, everybody was basically not ready. And then 2017 rolled in with an even higher number: 2017 Indonesian films amassed a whopping 42.7 million viewers. Naturally, 2018 was viewed with a sense of heightened excitement along with anxiety: will the trend continue?

January 2018 began the year quietly for Indonesian films, as the first week of the year saw no new releases while big December 2017 releases still dominated. The following week, supernatural-horror-loving Indonesian crowd was spooked by *Insidious: The Last Key*. The big break came in 25 January 2018, with the release of *Dilan 1990*. The teen romance based on a bestselling novel was embraced by audiences beyond its core fanbase, and basically sparked a whole new 'Dilanisme' subculture. The movie shot to 6.3 million+ admissions after more than 9 weeks of play, currently sitting at no.2 in the Indonesian films all-time admission chart.

February's *Eiffel I'm In Love 2* (*Eiffel Aku Jatuh Cinta 2*), long-awaited sequel to the beloved 2003 blockbuster, was probably thought to be the first big hit of 2018. The movie was released in the same frame as *Black Panther*, aiming to emulate the counterprogramming success of *What's Up with Love? 2* (*Ada Apa Dengan Cinta 2*) against *Captain America: Civil War* in 2016. However, the movie struggled to reach 1 million admissions, achieving the milestone only after 23 days in play (*Dilan 1990* did it in four days). After that, sleeper hit *Yowis Ben* which was almost entirely in Javanese language, went close to breaking 1 million late in the month. After a not-entirely-successful attempt to revive the legendary 'Benyamin' franchise with *Benyamin The Troublemaker* (*Benyamin Biang Kerok*), March 2018 hit paydirt late in the month with the double whammy of *Danur 2: Maddah and Friends, but Married* (#*Teman Tapi Menikah*). *Danur 2* was a sequel to the very successful 2017 franchise opener, which briefly held the crown of Indonesia's all-time top horror movie before *Satan's Slaves* (*Pengabdian Setan*) came along. *Friends, but Married* was an adaptation of a popular 'based on real life experience' romance novel. Both movies capitalized on a holiday-boosted week and cracked 1 million admissions within days of each other.

After four movies quickly hit the coveted 1M admission mark in the first three months of 2018, April-May eased off significantly. It was during this frame also that *Avengers: Infinity War* opened, breaking records left and right along the way. Opening day, opening week, final gross and admission, most screens occupied, everything. It was worthy to note that during this period, horror movie *The Secret: Suster Ngesot Urban Legend* managed to thrive and attracted more than 600 thousand spectators. The most successful movies of May 2018 were *Sajen*, 792 thousand admissions and *Alas Pati: Hutan Mati*, 682 thousand admissions. Both were also horror titles. The Eid al-Fitr holiday stretch of 2018 came during mid June 2018. As was always the tradition, many producers tried to get their films opened during this once most lucrative release corridor. In the case of 2018, five Indonesian films fought for audience attention: romcom *Dimsum Martabak*, comedy *Insya Allah Sah 2*, horror pair *Jailangkung 2* and *Kuntilanak*, and finally comedy-thriller *Target*. The horror pair proved to be the most successful and broke 1 million admission each: *Jailangkung 2* ensured franchise continuation, while *Kuntilanak* opened a new one. As more and more movies try to lay claim to the Eid al-Fitr release window, the overall impact was detrimental. Precious screen real estate (about 1,700 of them at that time) has to be divided more or less fairly, leaving no movie capable of enjoying maximum screen coverage like *Dilan 1990* (1,000+ screens) or *Avengers: Infinity War* (1,500+ screens). The rest of the Eid al-Fitr movies were less successful than late June entry, *Rasuk*, yet another horror that netted more than 900,000 viewers.

July 2018 began with family movie *Koki-Koki Cilik* squared off against *Ant-Man and the Wasp*, another Marvel movie that is always popular in Indonesia. *Koki-Koki Cilik* defended well enough, capturing more than 600 thousand spectators while ensuring a sequel. In the middle of the month, *Sabrina*, another entry from the successful 'The Doll' franchise was released and got 1.3 million admissions. Police antiterrorism movie *22 Minutes* (*22 Menit*) also opened in July, to the tune of 786 thousand admissions.

August is another popular month for releasing Indonesian films, due the Independence Day holiday on 17 August. In 2018, the date was in Friday, followed by Eid al-Adha holiday on Wednesday, 22 August. Drama *Si Doel The Movie*, based on a legendary TV series, didn't have to wait for that period to get maximum result, 1.7 million people came to see it in the movies. Just a week after *Si Doel*, *May The Devil Take You* (*Sebelum Iblis Menjemput*) opened to a modest opening week number. Fueled by strong word of mouth, 20 days later the movie broke 1 million admissions. And finally at the end of the month, big-budget martial arts spectacle *212 Warrior* (*Wiro Sableng: Pendekar Kapak Maut Naga Geni 212*) hit the screens. Adapted from a hugely popular book and TV series, *212 Warrior* claimed more than 1.5 million spectators.



After an explosive August, September was noticeably subdued, with only two movies barely breaking 300,000 admissions. A notable box office disappointment was the star-studded *Aruna & Her Palate* (*Aruna & Lidahnya*). October quickly provided box office remedy, in the form of *Asih*, a horror movie set in the lucrative *Danur* Universe, which snagged 1.7 million admissions. Romance sequel *Dear Nathan Hello Salma* also performed well and managed to avoid sequelitis, grabbing higher admission than its predecessor in 2017.

One of the biggest box office surprise of 2018 came in the form *A Man Called Ahok* in November. Based on the early life of ex Jakarta Governor Basuki Tjahaja Purnama, the movie captured more than 1.4 million viewers. To close a strong November, came *Suzzanna: Buried Alive* (*Suzzanna: Bernapas Dalam Kubur*). Despite troubled production, the reimagining of Indonesia's legendary horror icon was very successful at the box office, attracting more than 3.3 million specators and became the no.2 movie of 2018, behind *Dilan 1990*.

Another popular release corridor for Indonesian films is during the Christmas - New Year holiday period, and it is usually quite packed. However, 2018 was an exception due to the presence of Hollywood giants *Aquaman* and *Bumblebee*. *Milly & Mamet: Ini Bukan Cinta & Rangga* was the sole one-million admission breaker of December 2018. Combining the legacy of *What's Up with Love?* franchise with the increasingly strong brand of writer/director Ernest Prakasa, the movie ended up fighting a hard battle with the Hollywood tentpoles, while still nabbing more than 1.5 million admissions in the process. Two other movies with moderate success, horror *Silam* and drama *Asal Kau Bahagia* rounded up December 2018 lineup.

When the dust have settled, the question about whether the rapid growth of Indonesian film industry is sustainable or not, was answered with a resounding yes. Total admission of Indonesian films raised in 2018 shot to more than 51 million, a growth of more than 19%. Several factors contribute to this growth. Quality of the movies, the increasing number of cinema screens, and the strength of Indonesian economy itself, as people can now spend more in entertainment and leisure. Maintaining such a high level of growth can be very challenging. However, the future looks bright as Indonesia is constantly in the Top 20 International Market since 2014, and potential for growth is still enormous.



#### Sigit Prabowo

Sigit runs @bicaraboxoffice, a Twitter account (along with Instagram, Facebook and Wordpress counterparts) that provides box office information in Indonesia. He is also the founder of cinepoint mobile application that provides box office data and audience rating for films in Indonesia.

Made in  asia

말레이시아  
MALAYSIA

# Figures of Top 10 Films in Malaysia Box Office

www.boxofficemojo.com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Local)	Gross(USD)	제작사 Production	배급사 Distribution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Avengers: Infinity War	안소니 루소, 조 루소	Anthony RUSSO, Joe RUSSO	미국	USA	액션	Action	MYR 69,830,000	USD 17,320,000	Marvel Studios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	Jurassic World: Fallen Kingdom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Juan Antonio BAYONA	미국	USA	액션	Action	MYR 52,540,000	USD 13,030,000	Amblin Entertainment	United International Pictures
블랙 팬서	Black Panther	라이언 쿨러	Ryan COOGLER	미국	USA	액션	Action	MYR 41,330,000	USD 10,250,000	Marvel Studios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아쿠아맨	AQUAMAN	제임스 완	James WAN	미국	USA	액션	Action	MYR 38,700,000	USD 9,600,000	Warner Bros. Pictures	Warner Bros. Pictures
위선2	Munafik 2	시엄술 유소프	Syamsul YUSOF	말레이시아	Malaysia	공포	Horror	MYR 37,740,000	USD 9,359,520	Skop Production Sdn. Bhd.	
한투 캅 리마	Hantu Kak Limah	마멧 칼리드	Mamat KHALID	말레이시아	Malaysia	코미디	Comedy	MYR 36,230,000	USD 8,985,040	Astro Shaw Sdn. Bhd.	Astro Shaw Sdn. Bhd.
파스칼: 더 무비	Paskal: The Movie	정건국	Adrian TEH	말레이시아	Malaysia	액션	Action	MYR 30,000,000	USD 7,440,000	Spectrum Films	Asia Tropical Films
벌블비	Bumblebee	트래비스 나이트	Travis KNIGHT	미국	USA	액션	Action	MYR 28,540,000	USD 7,080,000	Allspark Pictures	
베놈	Venom	루벤 플레셔	Ruben FLEISCHER	미국	USA	액션	Action	MYR 28,220,000	USD 7,000,000	Columbia Pictures	Sony Pictures Releasing
퍼시픽 림: 업라이징	Pacific Rim: Uprising	스티븐 S. 드나이트	Steven S. DeKNIGHT	미국	USA	액션	Action	MYR 26,250,000	USD 6,510,000	Universal Pictures	United International Pictures

# Figures of Top 10 Films in Domestic Box Office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Local)	Gross(USD)	제작사 Production	배급사 Distribution
위선2	Munafik 2	시엄술 유소프	Syamsul YUSOF	말레이시아	Malaysia	공포	Horror	MYR 37,740,000	USD 9,359,520	Skop Production Sdn. Bhd.	
한투 캅 리마	Hantu Kak Limah	마멧 칼리드	Mamat KHALID	말레이시아	Malaysia	코미디	Comedy	MYR 36,230,000	USD 8,985,040	Astro Shaw Sdn. Bhd.	Astro Shaw Sdn. Bhd.
파스칼: 더 무비	Paskal: The Movie	정건국	Adrian TEH	말레이시아	Malaysia	액션	Action	MYR 30,000,000	USD 7,440,000	Spectrum Films	Asia Tropical Films
폴리스 에보2	Polis Evo 2	안드레 쥬, 조엘 소	Andre CHIEW, Joel SOH	말레이시아	Malaysia	액션	Action	MYR 15,910,000	USD 3,945,680	Blackflag Sdn. Bhd	
KL Special Force	KL Special Force	샤피크 유소프	Syafiq YUSOF	말레이시아	Malaysia	액션	Action	MYR 12,220,000	USD 3,030,560	Viper Studios Sdn. Bhd.	Skop Productions Sdn. Bhd.
쿠콘	Dukun	데인 세이드	Dain SAID	말레이시아	Malaysia	공포	Horror	MYR 10,000,000	USD 2,480,000	Astro Shaw Sdn. Bhd.	Astro Shaw Sdn. Bhd.
싱크 빅 빅	Think Big Big	주청원	CHIU Keng Guan	말레이시아	Malaysia	코미디	Comedy	MYR 5,300,000	USD 1,314,400	Astro Shaw Sdn. Bhd.	GSC Movies
라이즈 오브 더 레전드	Rise of the Legend	마일등	Teng BEE	말레이시아	Malaysia	드라마	Drama	MYR 4,750,000	USD 1,178,000	CB Pictures Sdn. Bhd.	
돌아오지 않는	A Promise to Return	카비르 바티아	Kabir BHATIA	말레이시아	Malaysia	드라마	Drama	MYR 2,420,000	USD 600,160	Primeworks Studios	Primeworks Studios
A House of Happiness	A House of Happiness	JY 탕	JY TENG	말레이시아	Malaysia	코미디	Comedy	MYR 1,850,000	USD 458,800	Beijing Jiale Pictures Co.,Ltd	Mega Films Distribution



# 2018 말레이시아 영화산업 동향

2018년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2018년 5월 새로운 말레이시아 정부의 출범이었다. 새 정부가 영화 산업에 미친 주요한 영향이라면 이전 정부에서는 '어려운' 영화로 여겨졌던 영화들에 대한 수문을 연 것이다. 문제의 '어려운' 영화들은 주로 독립 영화로 제작되었고, 부패 경찰과 말레이시아인들 삶의 어두운 면과 같은 민감하게 여겨졌던 극적인 주제를 탐구하였다. 올해 말레이시아 영화제에서 남론 감독의 영화 <회색게임-원 투 자가>가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면서 마침내 독립 영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럼에도 2018년 흥행 대작들은 앞서 언급한 어려운 영화가 아닌 공포, 공포 코미디, 액션 영화의 전통적인 범주에 속하는 영화들이었다.

2018년 최고의 흥행작 두 편(역대 흥행 수익 50위권에 들었다)은 전편 개봉 당시 흥행에 성공했던 영화들의 속편이다. 2018년에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작품은 3,774만 MYR을 벌어들인 시업술 유소프 감독의 <위선 2>이다. 3년 전 개봉한 <위선>의 속편이며 이미 더 많은 속편을 보장할 거대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 <위선2>는 훌륭한 스토리뿐 아니라 특히 시각 효과가 뛰어난 작품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높은 수익을 올린 마멧 칼리드 감독의 영화 <한투 각 라마> 역시 일종의 속편으로 3,623만 MYR의 수익을 달성했다. 마멧 칼리드 감독의 전작과 비교하여 이 공포/코미디 영화의 비교적 큰 성공은 제작자들도 놀라게 했다. 심각한 주제를 다루는 <위선2>(코란의 인용 또한 과도하다)와 달리 <한투 각 라마>는 마을에 유명이 나타나 아수라장이 된 상황을 웃기게 표현하면서 가벼운 웃음을 제공한다. 세 번째 흥행작 <파스칼: 더 무비>는 방대한 군사 무기, 화력과 액션에 있어 현실적인 일전을 포함한 고예산 제작이라는 측면에서는 업계에서 새로웠다. 적들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말레이시아 해군 정예부대에 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액션 씬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애국심에 초점을 맞춘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통하면서 3천만 MYR에 달하는 수익을 거두었다.

2018년 흥행 면에서 언급할 만한 다른 영화들로는 <폴리스 에보2>(1,591만 MYR), *KL SPECIAL FORCE*(1,222만 MYR), <두쿤>(1천만 MYR), <싱크 빅 빅>(530만 MYR), <라이즈 오브 더 레전드>(475만 MYR) 등이 있다. 또 다시 액션 영화들이 드라마에 비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데인 세이드 감독의 <두쿤>이 완성된 지 10년 만인 2018년에 극적으로 개봉하여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는 점은 언급할 만하다. 마찬가지로 국민적인 배드민턴 챔피언의 삶을 바탕으로 한 <라이즈 오브 더 레전드>와 2018년 총선에 관한 영화 *Rise: Ini Kalilah*는 현실 속의 영웅과 사건을 주제를 모색해 말레이시아 영화 제작자들에게 밝은 전망을 보여줬다.

비록 이 영화들은 평균적인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에 그쳤지만, 더 중요한 것은 2018년에 제작된 영화들은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영화들이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독립적이고 남성적인 드라마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들만의 관객들을 찾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 동안 검열된 영화를 보는 것에 익숙해진 말레이시아인들에게 이러한 영화들이 주류로 받아들여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미래의 방향을 지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회색게임 - 원 투 자가>, *Vedigundu Passange*, *Busker*, 그리고 <광> 같은 소규모 영화들은 보다 많은 말레이시아 영화 제작자들이 이제는 민감한 주제들을 탐구하고자 하는 용의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말레이시아 영화가 현실이 되리라고 확신하는 증거이다.



카밀 오스만

20년 가까이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 종사한 이후, 카밀은 말레이시아 멀티미디어공사(MDEC)로 자리를 옮겨, 말레이시아의 애니메이션 산업 개발 책임자가 되었다. 이 시기에 카타르의 알자지라 어린이 채널과 공동 제작한 *Saladin*을 총괄 제작하기도 했다. 2011년, *Saladin*은 말레이시아 최초로 국제 에미상 후보에 올랐다. 2015년에서 2016년 말까지 그는 국립 말레이시아 영화개발공사(FINAS)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재임 기간 중, 그는 FINAS를 국제시장에 개방, 차세대 콘텐츠 제작자들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했을 뿐 아니라 FINAS의 디지털 시대를 열기도 했다. 2016년 11월, 그의 FINAS 임기를 마치고 말레이시아 방송통신 및 멀티미디어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의 창조 산업 고문에 임명됐다. 그는 현재 아시아 영상위원회 네트워크(AFCNET) 부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 Malaysia Film Market Trend in 2018

For 2018, the most significant change was when a new Government took over the country's administration in May 2018. The impact on the film industry was mainly to open the floodgates for what were considered 'difficult' films under the previous Government. The 'difficult' films in question are mainly independently produced, and explored dramatic themes previously considered sensitive such as police corruption and the darker side of Malaysian life. When the film *Crossroads - One Two Jaga* (directed by Nam RON) won the Best Film Award at this year's Malaysian Film Festival,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time for independent movies has finally come.

The Box Office giants for 2018 however were not the difficult films as mentioned earlier but films that belong to the traditional categories of horror, horror comedy, and action movies.

The two top grossing films for 2018 (and are in the all-time Top 50 highest achievers) are in fact sequels to films that in their time were Box Office successes as well. The highest grossing in 2018 was *Munafik 2* directed by Syamsul YUSOF that picked up 37.74 million MYR. This is the sequel to the film *Munafik* released three years ago (also by the same director) and which already has a huge fan base that will ensure further sequels. *Munafik 2* has the benefit of not only a good story but high production values, especially in its Visual Effects.

The second highest grossing film *Hantu Kak Limah* (directed by Mamat KHALID) is also a sequel of sorts, notching up 36.23 million MYR. The relatively huge success of this horror/comedy (compared to the first film, also by the same director) was surprising even to the producers. Unlike *Munafik 2* which deals with a serious subject matter (and is heavy on its Quranic references), *Hantu Kak Limah* serves up a light comedy in the form of a ghost who comes to town and causing plenty of havoc in a hilarious manner.

The third big ticket grosser *Paskal: The Movie* is something new for the industry in terms of big budget productions involving extensive military hardware and realistic bouts of firepower and action, centering on a story about Malaysia's elite Navy commandos protecting the country from the bad guys. The action is efficiently choreographed and presented. Its focus on patriotism went down well with the audience, who contributed to its 30 million MYR B.O. collection.

Other worthy mention for 2018 B.O. are also films like *Polis Evo 2* (15.91 million MYR), *KL Special Force* (2.22 million MYR), *Dukun* (10.0 million MYR), *Think Big Big* (5.3 million MYR), *Lee Chong Wei - Rise of the Legend* (4.75 million MYR). Again the action oriented movies still scored well compared to drama, although it is worth mentioning Dain SAID's *Dukun* was a film that was completed a decade ago and was only released theatrically to critical success in 2018.

Likewise, *Lee Chong Wei - Rise of the Legend*, based on the life of the national badminton champion player, and *Rise: Ini Kalilah* about the 2018 General Elections made good the prospects of Malaysian film-makers possibly looking in the future for real life heroes and events as subject matter.

Although these achieve only average Box Office returns, more importantly there is far more diversity in the films being made in 2018 than before. These independent, and mainly dramatic, films may be finding its own audience slowly but surely. For Malaysians at least who are used to watching sanitized movies all these years, these films will need time to be accepted by the mainstream but in terms of pointing the directions for the future, the smaller films like *Crossroads - One Two Jaga*, *Vedigundu Passange*, *Busker and Guang* are evidence that more and more Malaysian film makers are now willing to explore sensitive themes and in the process assure the new Malaysian Cinema will become a reality.



**Kamil OTHMAN**

After almost 20 years in the Oil & Gas Industry, Kamil joined the 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 (MDEC) where he was put in charge of developing the Animation Industry in Malaysia. It was also during this time that he executive produced *Saladin*, a co-production with Al Jazeera Children's Channel in Qatar. *Saladin* became Malaysia's first International Emmy Award Nomination in 2011. In 2015 he was assigned to the National Film Development Corporation (FINAS) as its Director General, a position he held until end of 2016. During this tenure, he opened up FINAS to the international landscape and implemented initiatives designed to support the new generation of content creators and to roll out FINAS into the digital era. After the term at FINAS ended in Nov 2016, he was appointed Advisor on Creative Industries to the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He is currently the Vice President for the Asian Film Commissioners Network (AFCNET).

인도  
INDIA

Made in  sia

# Figures of Top 10 Films in India Box Office

Baradwaj Rangan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Local)	Gross(USD)	Production	Distribution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Avengers: Infinity War	안소니 루소, 조 루소	Anthony RUSSO, Joe RUSSO	미국	USA	액션	Action	INR 2,231,000,000	USD 32,795,700	Marvel Studios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Mission: Impossible – Fallout	크리스토퍼 맥쿼리	Christopher McQUARRIE	미국	USA	액션	Action	INR 771,200,000	USD 11,336,640	Skydance Media	Paramount Pictures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	Jurassic World: Fallen Kingdom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Juan Antonio BAYONA	미국	USA	액션	Action	INR 720,500,000	USD 10,591,350	Amblin Entertainment	United International Pictures
데드풀 2	Deadpool 2	데이빗 레이치	David LEITCH	미국	USA	액션	Action	INR 539,000,000	USD 7,923,300	Marvel Entertainment	20th Century Fox
더 nun	The Nun	코린 하디	Corin HARDY	미국	USA	미스터리	Mystery	INR 420,000,000	USD 6,174,000	New Line Cinema	Warner Bros. Pictures
인크레더블2	Incredibles 2	브래드 버드	Brad BIRD	미국	USA	애니메이션	Animation	INR 407,500,000	USD 5,990,250	Walt Disney Pictures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블랙 팬서	Black Panther	라이언 쿨러	Ryan COOGLER	미국	USA	액션	Action	INR 381,000,000	USD 5,600,700	Marvel Studios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앤티맨과 와스프	Ant-Man and the Wasp	페이튼 리드	Peyton REED	미국	USA	액션	Action	INR 306,000,000	USD 4,498,200	Marvel Studios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베놈	Venom	루벤 플레셔	Ruben FLEISCHER	미국	USA	액션	Action	INR 278,000,000	USD 4,086,600	Columbia Pictures	Sony Pictures Releasing
램페이지	Rampage	브래드 페이튼	Brad PEYTON	미국	USA	액션	Action	INR 265,000,000	USD 3,895,500	New Line Cinema	Warner Bros. Pictures

# Figures of Top 10 Films in Hindi(Bollywood) Box Office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Local)	Gross(USD)	Production	Distribution
산주	Sanju	라지쿠마르 히라니	Rajkumar HIRANI	인도	India	드라마	Drama	INR 4,385,000,000	USD 64,459,500	Rajkumar Hirani Films	Fox STAR Studios
파드마바트	Padmaavat	산제이 릴라 반살리	Sanjay Leela BHANSALI	인도	India	드라마	Drama	INR 4,000,000,000	USD 58,800,000	Bhansali Productions	Viacom 18 Motion Pictures
심바	Simmba	로hit 셰티	Rohit SHETTY	인도	India	액션	Action	INR 2,950,000,000	USD 43,365,000	Dharma Productions	Reliance Entertainment
레이스3	Race 3	레모 드 소우자	Remo D’SOUZA	인도	India	액션	Action	INR 2,170,000,000	USD 31,899,000	Salman Khan Films	Tips Films
더 워리어: 돌아온 전사	Baaghi 2	아메드 칸	Ahmed KHAN	인도	India	액션	Action	INR 2,118,400,000	USD 31,140,480	Nadiadwala Grandson Entertainment	Fox STAR Studios
서그스 오브 힌두스탄	Thugs of Hindostan	비제이 크리시나 아차리아	Vijay Krishna ACHARYA	인도	India	액션	Action	INR 1,940,000,000	USD 28,518,000	Yash Raj Films	Yash Raj Films
Badhaai Ho	Badhaai Ho	아mit 라빈드레나트 샤르마	Amit Ravindrenath SHARMA	인도	India	코미디	Comedy	INR 1,760,000,000	USD 25,872,000	Junglee Pictures	AA Films
라지	Raazi	메그나 굴자르	Meghna GULZAR	인도	India	액션	Action	INR 1,580,000,000	USD 23,226,000	Junglee Pictures	AA Films
패드맨	Pad Man	R. 발키	R. BALKI	인도	India	코미디	Comedy	INR 1,050,000,000	USD 15,435,000	Hope Productions	Sony Pictures Releasing
히치키	Hichki	시드하스 말호트라	Siddharth MALHOTRA	인도	India	드라마	Drama	INR 591,300,000	USD 8,692,110	Yash Raj Films	Yash Raj Films

# Figures of Top 10 Films in Tamil(Kollywood) Box Office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Local)	Gross(USD)	제작사 Production	배급사 Distribution
2.0	2.0	S. 상카르	S. SHANKAR	인도	India	액션	Action	INR 5,100,000,000	USD 74,970,000	Lyca Productions	Dharma Productions
사르카르	Sarkar	A. R. 무르가도스	A.R. MURUGADOSS	인도	India	액션	Action	INR 1,810,000,000	USD 26,607,000	Sun Pictures	Sun Pictures
칼라	Kaala	파 랜지스	Pa. RANJITH	인도	India	액션	Action	INR 1,070,000,000	USD 15,729,000	Wunderbar Films	Rockline Entertainment
어 갱 폼 바이 잇셀프	A Gang Formed by Itself	비그네쉬 쉬바	Vignesh SHIVAN	인도	India	액션	Action	INR 73,000,000	USD 1,073,100	Studio Green	Bharathan Films
카다이쿠티 싱암	Kadai Kutty Singam	판디라즈	Pandiraj	인도	India	액션	Action	INR 64,000,000	USD 940,800	2D Entertainment	Sakthi Film Factory
Chekka Chivantha Vaanam	Chekka Chivantha Vaanam	마니 라트람	Mani RATNAM	인도	India	액션	Action	INR 62,000,000	USD 911,400	Madras Talkies	Lyca Productions
시마 라자	Seema Raja	폰람	Ponram	인도	India	액션	Action	INR 53,000,000	USD 779,100	24AM Studios	24AM Studios
아이언 커튼	Iron Curtain	P. S. 미트란	P.S. MITHRAN	인도	India	액션	Action	INR 51,000,000	USD 749,700	Vishal Film Factory	Krikes Cine Creations
바다 첸나이	Vada Chennai	베트리 마란	Vetri MAARAN	인도	India	액션	Action	INR 46,000,000	USD 676,200	Wunderbar Films	Lyca Productions
96	96	C. 프렘 쿠마르	C. Prem KUMAR	인도	India	드라마	Drama	INR 40,000,000	USD 588,000	Madras Enterprises	Seven Screen Studio

# Figures of Top 10 Films in Telugu(Tollywood) Box Office

작품명	English Title	감독	Director	국가	Country	장르	Genre	Gross(Local)	Gross(USD)	제작사 Production	배급사 Distribution
랑가스탈람	Rangasthalam	수크마르	Sukumar	인도	India	액션	Action	INR 1,860,000,000	USD 27,342,000	Mythri Movie Makers	Konidela Production Company
Bharat Ane Nenu	Bharat Ane Nenu	코라타라 시바	Koratala SIVA	인도	India	액션	Action	INR 1,280,000,000	USD 18,816,000	DVV Entertainment	
Aravinda Sametha Veera Raghava	Aravinda Sametha Veera Raghava	트리비크람 스리니바스	Trivikram SRINIVAS	인도	India	액션	Action	INR 1,220,000,000	USD 17,934,000	Haarika & Hassine Creations	Sri Venkateswara Creations
Geetha Govindam	Geetha Govindam	파라수람 페트라	Parasuram PETLA	인도	India	드라마	Drama	INR 1,060,000,000	USD 15,582,000	GA2 Pictures	Geetha Arts
마이 네임 이즈 수리아, 마이 홈 이즈 인디아	My Name Is Surya, My Home Is India	바칸삼 밤시	Vakkantham VAMSI	인도	India	액션	Action	INR 82,000,000	USD 1,205,400	Ramalakshmi Cine Creations	Modern Moviee
Agnyaathavaasi	Agnyaathavaasi	트리비크람 스리니바스	Trivikram SRINIVAS	인도	India	액션	Action	INR 68,500,000	USD 1,006,950	Haarika & Hassine Creations	
마하나티	Mahanati	나그 애쉬윈	Nag ASHWIN	인도	India	드라마	Drama	INR 66,000,000	USD 970,200	Vyjayanthi Movies	Trident Arts
바게매티	Bhaagamathie	G. 애쇼크	G. ASHOK	인도	India	액션	Action	INR 51,000,000	USD 749,700	UV Creations	
Devadas	Devadas	스리람 아디티아	Sriram ADITYA	인도	India	드라마	Drama	INR 41,000,000	USD 602,700	Vyjayanthi Movies	
тол리 프레마	Tholi Prema	벤키 아틀러리	Venky ATLURI	인도	India	멜로/로맨스	Romance	INR 36,000,000	USD529,200	Sri Venkateswara Cine Chitra	Sri Venkateswara Films



# 2018 인도 영화산업 개괄

## 발리우드(힌디) 시네마

최근 몇 년간 라즈쿠마르 히라니 감독이 영화를 개봉할 때마다 그 해의 최고 흥행작이 되었다. <세 일간이>가 그랬고, <피케이: 별에서 온 일간이>도 그랬다. 올해 <산주>가 그런 케이스였는데, 스타 배우 란비르 카푸르가 간절히 원했던 블록버스터급의 성공을 이루었다(연기에 대한 감탄만으로 커리어를 지속할 수는 없는 법이다). 산제이 릴라 반살리 감독도 최근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데, 또 하나의 흥행 대작 <파드마바트>로 <람릴라>와 <바지라오 마스타니>의 성공을 이어갔다. 하지만 우익 집단의 제작 중단 협박이라는 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없었다면 박스 오피스 성적도 그렇게 화려했을까에 대한 논쟁은 있었다.

전반적으로 이른바 대형 스타와 감독이 참여하고 프로듀서가 손댄 대작들이 선전했다. 살만 칸 주연의 <레이스 3>는 나쁜 평가에도 불구하고 관객을 불러들였다. 악셰이 쿠마르는 사회적 의미를 담은 영화 시리즈를 계속했고 놀랍게도, 월경 위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패드맨>은 이 주제를 둘러싼 금기를 깨고 전세계적으로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 인도에서는 실패한 <서그스 오브 힌두스탄> 조차 아미르 칸의 명성을 이용해 해외에서 크게 성공했다. 대형 스타들 중에서는 샤룩 칸만이 안 좋은 한 해를 보냈다. 난쟁이를 연기한 그의 야심작이자 기대작이었던 <제로>는 엄청난 실패를 맛봤다.

그러나 올해의 가장 고무적인 경향은 남성 스타 배우가 끌고 가지 않은 중급 영화의 성공이었다. 메그나 굴자르가 감독과 알리아 바트가 주연을 맡은 첩보 스릴러 <라지>는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 알리아 바트는 현재 인도 최고의 여성 스타다. 8위의 Badhaai Ho 또한 의외다. 스타의 명성에 기대지 않고 (아이쉬만

쿠라나와 산야 말호트라가 주연을 맡았다) 매우 색다른 주제(중년 어머니의 임신에 따른 아들의 트라우마)로 관객은 재미만 있으면 어떤 것에도 개방적이라는 것을 이 영화의 성공이 증명한 셈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힌디어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순위에 없는 일부 영화는 <2.0>과 <K.G.F: 챕터 1>과 같은 대작이다.

이 영화들은 각각 타밀어, 칸나다어권에서 왔으며, 힌디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도 선전함으로써 텔루구어권 영화인 <전사 바후발리> 시리즈가 반짝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결국 인도인들은 인도 전역에서 온 영화에 돈을 쓰는 것 같다

## 칼리우드(타밀) 시네마

어떻게 그는 계속 할 수 있는 걸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산카 감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문이다. 그의 영화, 예산, 스타들은 계속 커져만 가고 흥행 수익의 규모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로봇>에서 함께 했던 S. 샹카르 감독과 주연 라지니칸트가 다시 뭉친 속편 <2.0>은 올해 최대 히트작이었다. 과도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배급망의 열세 속에서 성공을 증명했다. 배급사들에게는 결국 실망으로 여겨진 영화지만, 라지니칸트는 파 랜지스가 감독한 <칼라>에서도 큰 흥행을 기록했다.

2018년은 순조롭게 시작되지 않았다. 타밀어 영화제작자 협의회가 UFO나 Qube 같은 디지털영화기술회사들이 부과한 가상 인쇄비(VPF)에 항의하며 신작 영화의 개봉을 불허하기로 한 결정 때문에 첫 6개월은 대단히 고통스러웠다. 48일 간의 파업으로 인해 영화에 굶주린 관객들은 결과적으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같은 할리우드 영화에 줄을 섰다. 7월이 되어서야 업계는 <타밀 필름2>와 <카다이쿠티 심암> 두 편의 히트작을 낸다. 그 후에는 <파리예루 페루말>과 Merku Thodarchi Malai와 같은 중저예산 영화들이 선전했다. 이 영화에는 스타도 출연하지 않고 감독의 데뷔작이지만 내용만으로 관객을 끌었다. 물론 그 정반대편에는 위에서 언급한 <2.0>과 비제이 주연의 <사르카르>와 같은 스타가 견인한 블록버스터들이 있었다. 또한 베티리 마란의 <바다 첸나이>처럼 비평가들에게 호평을 받은 영화들도 있었다.

부족한 상영관은 큰 문제로 남아있다. 멀티플렉스 상영관이 보편화된 다른 큰 주들과는 달리 타밀 나두의 극장 대부분은 스크린을 한 두 개 보유하고 있다. 이는 특히 200편이 넘는 영화를 제작하는 업계에서 히트작이 연달아 들어오기 시작하면 문제가 된다는 걸 증명했다. 베티랑 감독인 마니 라트남은 Chekka Chivantha Vaanam으로 오랜만에 어마어마한 흥행을 기록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주에 <데몬>, <96>과 <노타> 세 편의 개봉으로 꽤 많은 상영관을 잃고 말았다. 이들 작품 모두 얼마간 성공하긴 했으나, 조금 더 상영관이 많아서 영화가 보다 길게 상영될 수 있었다면 훨씬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문제 중 하나는 역시 파업이었다. 이들 영화를 더 많은 곳에서 개봉했다면 수익을 더 냈을 것이다. 또한 이 업계는 개봉을 규제할 조직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많은 영화가 실제 개봉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개봉 날짜를 발표하여 극장과 관객을 혼란스럽게 했다. 더 많은 극장을 건설하고 하루 네 편의 상영만 허용하는 오래된 규칙을 폐기하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로 보인다.





## 탈리우드(텔루구) 시네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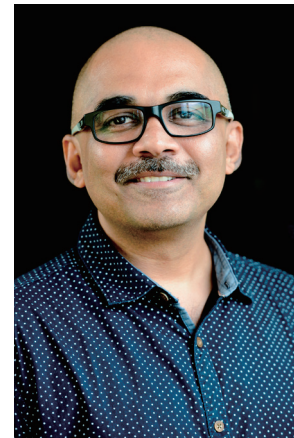
전통적으로 야단스럽고 상업적인 영화의 영역으로 여겨져 온 텔루구어 영화 산업의 면모를 두 가지가 바꾸어 놓았다. 첫 번째, <바후발리> 시리즈의 국제적으로 놀라운 성공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어도 도심에서는 대성공을 거둔 색다른 영화(#Pellichoopulu, *Fidaa*, *Arjun Reddy*)를 만든 신세대 영화 연출자들의 등장이다. 따라서 완전히 정형화된 파란 칼리아가 주연을 맡은 트리비크람 감독의 *Agnyaathavaasi*로 2018년이 시작했을 때는 좌절이 컸다. 영화는 대실패였고 한 해가 비판적으로 출발했다. 전세계적으로 9억 INR (*Agnyaathavaasi*와 매우 비슷함)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알루 아르준이 주연을 맡은 <마이 네임 이즈 수리아, 마이 홈 이즈 인디아>는 큰 실망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수익은 인상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이들 영화의 비용(제작과 판매 가격 측면에서) 또한 막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스타 위주의 영화들은 선전했다. 두 번의 큰 실패 후에 마헤쉬 바부는 정치 대하드라마 *Bharat Ane Nenu*로 컴백했다. 그리고 람 차란과 사만다가 주연을 맡은 수쿠마르 감독의 <랑가스탈람>은 잘 만든 주류 영화의 확실한 예로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왕년의 스타 사비트리의 전기를 그린 <마하나티>에서 키어시 수레시가 주연을 맡았고, <바개매티>에서는 아누쉬카 쉐티가 주연을 맡아 여성 주인공 영화로는 드문 히트작이었다. 그리고 N.T. 라마 라오 주니어는 *Aravindha Sametha Veera Raghava*로 주가를 올렸다.

2018년 가장 흥미로운 젊은 배우는 *Arjun Reddy*의 비제이 데베라콘다이다. 그는 텔루구어 영화의 구세주로 평가되었지만,

*Geetha Govindam*와 *Taxiwaala*의 공식에 굴복했다. 그럼에도 이전영화 *Arjun Reddy*은 진부했지만 엄청난 흥행 성적을 거뒀다(미국에서도 대성공을 거뒀다). 스타가 되는 것은 쉽지만 인기를 유지하며 활동영역을 넓혀가는 것은, 지속적인 겸손한 자세에 달려있다. 이것이야말로 이 배우의 최근 선택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아닐까?

계속해서 조금씩 경계를 허무는 사람들이 있었다. 프라산트 바르마의 *Awe!*는 성과를 올린 독특한 다중서사, 다중장르 영화였다. 아제이 부파티의 *RX 100*이 히트를 쳤으며, <톨리 프레마> (10위권에 진입할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Chalo*, *Needi Naadi Oke Katha*, 스타일리쉬한 *Goodachari*와 *Chi La Sow* 같은 소규모 영화들이 충격을 남겼다. 그리고 사랑이 가진 다면성에 대한 심오한 이야기를 한 2018년 최고의 영화, 벤카테쉬 마하의 감독 데뷔작 *C/O Kancharapalem*이 있었다. 앞서 말한 신선한 영화의 물결처럼 이 영화 또한 대도시의 멀티플렉스 상영관에서만 선전했다. 하지만 그 정도면 충분히 좋은 시작이다.



## 바라드와즈 랑간

바라드와즈 랑간은 *Film Companion*지의 인도 남부지역판 에디터이다. 2005년에는 내셔널어워드에서 최고영화비평가상인 황금연꽃상을 수상했다. *The Caravan*, *Arts Illustrated*, *Open*, *Tehelka*, *Biblio*, *Outlook*, *The Cricket Monthly* 등에 영화, 음악, 미술, 책, 여행, 유머에 관한 글을 기고한 바있다. 배우 비크람에 관해 길게 쓴 글은 *The Caravan Book of Profiles*에서 '결정적 프로필 12선'으로 꼽혔다. 타밀어 로맨틱코미디 *Khadal 2 Kalyanam*의 각본작가로 활약하며, 타밀어 단편영화 *Kalki*의 각본을 담당했고 댄스 드라마 *Krishna*와 *Meghadootam*에서는 대사와 내러티브를 작성했다. 그가 쓴 단편소설 *The Call*은 문예지 *Indian Quarterly*에 실렸고, 현재 첸나이에 있는 아시아 저널리즘 학교에서 영화에 대한 강의를 맡아 진행 중이다. 내셔널필름어워드의 심사위원으로 일했고, 지오MAMI 뭄바이영화제에서는 국제부문선정위원을 맡았다. *Subramaniyapuram: The Tamil Film in English*에 실은 에세이와 *Behind the Scenes: Contemporary Bollywood Directors and Cinema*에 실은 라지쿠마르 히라니에 대한 분석 등 여러 권의 선집에 글을 실었으며, 랑간이 쓴 첫 단행본인 *Conversations with Mani Ratnam*은 2012년 펍출판사를 통해 출간되었다. 두 번째 책인 *Dispatches From the Wall Corner*는 웨스트랜드출판사가 2014년에 펴냈다.



# India

## Film Market

### Trend in 2018

#### HINDI CINEMA

In recent years, every time Rajkumar HIRANI has released a film, it has become the year's top film. It happened with *3 Idiots*. It happened with PK. This year, it happened with *Sanju*, which gave star Ranbir KAPOOR a much-needed blockbuster (Appreciation for acting alone cannot sustain a career). Sanjay Leela BHANSALI has also been going through a golden phase of late, and he followed up *Goliyon Ki Rasleela: Ram-Leela and Bajirao Mastani* with another big grosser, *Padmaavat*. But there was some discussion whether the box office performance would have been so spectacular without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film, with right-wing outfits threatening to shut down production.

Generally speaking, the big films -namely, the ones with big stars, big directors, and from big producers- did well. The badly reviewed Salman KHAN starrer, *Race 3*, brought in the crowds. Akshay KUMAR continued his series of socially relevant films, and surprisingly, *Pad Man*, a story about menstrual hygiene, broke through the taboos surrounding the topic and did well worldwide. Even Thugs of Hindustan, which flopped in India, cashed in on the Aamir KHAN brand name and made it big overseas. Only Shah Rukh KHAN, among the big stars, had a bad year. His ambitious and much-anticipated *Zero*, where the actor played a dwarf, was a huge bomb.

But the year's most heartening trend was the success of mid-level films, not helmed by a big male star. *Raazi*, a spy thriller directed by Meghna GULZAR and starring Alia BHATT, exceeded the wildest expectations. Alia BHATT is now the country's No. 1 female star. *Badhaai Ho*, at No. 8, is another surprise. Without any major star value (it starred Ayshmann KHURRANA and Sanya MALHOTRA) and with a really offbeat subject (a son's trauma over his middle-aged mother's pregnancy), its success proved that the audiences were open to anything as long as it was entertaining.

Some films that are not on the list -because they are not "technically" Hindi films- are biggies like *2.0* (starring Rajinikanth and directed by S. Shankar) and *K.G.F.: Chapter 1* (starring Yash and directed by Prashanth Neel). These films were from the Tamil and Kannada film industries, and they did well in the Hindi-speaking belts, too, proving that the *Baahubali* films (from the Telugu film industry) were no flash in the pan. Finally, Indians seem to be consuming movies from all over India.

#### TAMIL CINEMA

How does he keep doing it? That's the question everyone has about the director Shankar. His films, his budgets, his stars keep getting bigger - and the size of the box-office returns keeps increasing, too. The Rajinikanth starring *2.0* - a sequel to the director's *Robot(Enthiran)*, with the same star - was the year's biggest hit. Even with its exorbitant costs, the film proved a success down the distribution chain. The star had another big grosser in *Kaala*, directed by Pa RANJITH, though the film was finally seen as a disappointment by distributors.

But the year didn't begin well. The first six months suffered terribly due to a decision by the Tamil Film Producers Council to not allow new releases, protesting the Virtual Print Fee (VPF) charged by digital cinema technology outfits like UFO and Qube. The 48 day strike resulted in content starved audiences queuing up for Hollywood films like *Avengers: Infinity War*. It wasn't until July that the industry saw two big hits in *Tamizh Padam 2* and *Kadaikutty Singam*. Later, medium-budget and low-budget films like *Pariyerum Perumal* and *Merku Thodarchi Malai* did well, too. These had no stars, and were made by first-time filmmakers -the content alone drew audiences in. Of course, at the other end of the spectrum, there were star-driven blockbusters like the above-mentioned *2.0* and *Sarkar*, featuring Vijay. And there were critically acclaimed films like *Vetri Maaran's Vada Chennai*.

The big problem remains the lack of screens. Unlike other big states, where multiplexes are the norm, a majority of the theatres in Tamil Nadu have just one or two screens. And this proved a problem -especially for an industry that produces over 200 films- when the hits finally starting coming in a wave. Veteran filmmaker Mani RATNAM scored a huge hit after a long time, with *Chekkha Chivantha Vaanam*. The very next week, though, the film lost quite a few of its screens to three new releases: *Raatchasan*, 96 and NOTA. All of these succeeded to some extent, but the levels of success would have been so much more had there been more screens and the films could have had a longer run.

Part of the problem was also the strike. Had the release of these films been more spread out, they may have made more money. Also, the industry needs a body to regulate releases. Too many films announced their release dates barely a week before they actually opened, leaving the theatres (and the audiences) confused. Building more theatres and scrapping the archaic rule of allowing only four shows a day seem to be the only way out.



## TELUGU CINE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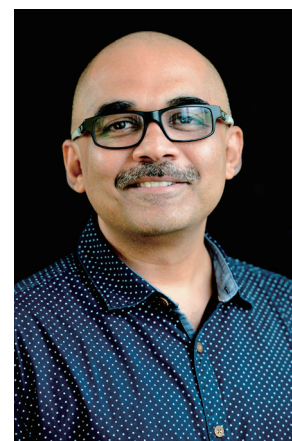
Two things have changed the face of the Telugu film industry, which has traditionally been seen as the domain of loud, commercial cinema. One, the phenomenal worldwide success of the *Baahubali* films. And two, the arrival of a new generation of filmmakers whose offbeat movies (*#Pellichoopulu*, *Fidaa*, *Arjun Reddy*) worked big-time at the box-office, at least in the urban centres. So it was a setback when 2018 opened with the utterly formulaic Pawan KALYAN starrer, *Agnyaathavaasi*, directed by Trivikram. The film bombed, and the year began on a downbeat note. Despite a worldwide gross of nearly 90 crore (very similar to that of *Agnyaathavaasi*), the Allu ARJUN starrer *Naa Peru Surya*, *Na Illu India* was regarded a disappointment. These returns may look impressive, but the costs of these films (both in terms of production and the price of sale) are also huge. But other star-driven vehicles did well. Mahesh BABU made a comeback, after two big flops, with the political saga, *Bharat Ane Nenu*. And Sukumar's *Rangasthalam*, starring Ram CHARAN and Samantha, was a mega-success, a solid example of well-made mainstream cinema. A yesteryear star, Savitri, got a biopic in Naga ASHWIN's *Mahanati*. It starred Keerthi SURESH, and along with the Anushka-driven *Bhagamathie*, it was the rare female-driven hit. And N.T. Rama RAO Jr. scored with *Aravindha Sametha Veera Raghava*.

The most interesting actor of the year was Vijay DEVERAKONDA, the young Arjun Reddy star. He was seen as a saviour of Telugu cinema, but he, too, succumbed to formula with *Geetha Govindam* and *Taxiwaala*. The former film, despite its clichés, was a huge hit (It did spectacularly well in the USA). Becoming a star may be easy, but sustaining stardom and expanding one's markets means bowing before the tried and tested. Is that the

lesson from this actor's recent choices?

At least, there were others who kept breaking boundaries.

Prasanth VARMA's *Awe!* was a unique multi-segment, multi-genre movie that worked. Ajay BHUPATI's twisty RX 100 was a hit, and smaller films like *Tholi Prema* (which did well enough to enter the top 10 charts), *Chalo*, *Needi Naadi Oke Katha*, the stylish *Goodachari* and *Chi La Sow* made an impact. Then, we had the year's best movie, first-timer Venkatesh MAHA's *C/O Kancharapalem*, which said something profound about the many faces and facets of love. Like the earlier wave of fresh films, it did well only in the multiplexes in the cities. But that's a good enough start.



### Baradwaj RANGAN

Baradwaj RANGAN is Editor, *Film Companion*(South) and Chief Consultant, Programming. He won the National Award (Swarna Kamal) for Best Film Critic in 2005. His writings on cinema, music, art, books, travel and humour have been published in various magazines like *The Caravan*, *Arts Illustrated*, *Open*, *Tehelka*, *Biblio*, *Outlook* and *The Cricket Monthly*. His long-form story on VIKRAM was featured in *The Caravan Book of Profiles*, as one of their 'twelve definitive profiles'. He has co-written the Tamil rom-com, *Kadhal 2 Kalyanam*. He has written the Tamil short film, *Kalki*. He has written dialogue and narratives for the dance dramas *Krishna* and *Meghadootam*. His short story, *The Call*, was published in *The Indian Quarterly*. He teaches a course on cinema at the Asian College of Journalism, Chennai. He has served as a member of the jury at the National Film Awards, and as a member of the selection committee for international films at the Jio MAMI Mumbai Film Festival. Baradwaj has contributed to various anthologies, including an essay in *Subramaniapuram: The Tamil Film in English Translation*, and an analysis of Rajkumar HIRANI in *Behind the Scenes: Contemporary Bollywood Directors and their Cinema*. His first book, *Conversations with Mani Ratnam*, was published by Penguin in 2012. His second book, *Dispatches From the Wall Corner*, was published by Westland in 2014.

발행인	신철	Publisher	SHIN Chul
발행일	2019년 6월	Publishing date	June, 2019
책임 편집	남종석	Chief Editor	Jongsuk Thomas NAM
원고 및 편집	문새연, 박준영, 서재원, 이승혜, 최문경, 홍민경	Texting & Editing	Samantha MOON, PARK Juneyoung, SUH Jaewon, LEE Seunghye, Hannah CHOI, HONG Minkyung
번역	김고운, 김동희, 김정민, 박재용, 이현정	Translation	KIM Goun, KIM Donghee, KIM Jeongmin, PARK Jaeyoung, Roc LEE
디자인인쇄	브랜드디렉터스		BRAND DIRECTORS
아시아 판타스틱영화 제작네트워크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판타스틱오피스(부천시청 별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14547 전화 032 327 6313 웹사이트 <a href="http://www.bifan.kr/big/index.asp">http://www.bifan.kr/big/index.asp</a>		Fantastic Office, 210 Gilju-ro, Bucheon-city, Gyeonggi-do, 14547, Korea Phone +82 32 3276313 Web <a href="http://www.bifan.kr/eng/big/index.asp">http://www.bifan.kr/eng/big/index.asp</a>

\* 본 책자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장르영화산업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발간되었습니다.

\* This Catalogue is published through support for ‘BIFAN Industry Gathering’ by Gyeonggi Province and Gyeonggi Content Agency.